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www.krei.re.kr](http://www.krei.re.kr)

지인배 | 김현중 | 김원태 | 서강철

#### 연구 담당

**지인배**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김현중** | 전문연구원 | 제2장, 제4장, 제6장 집필

**김원태** | 전문연구원 | 제2장, 제3장, 제4장 집필

**서강철** | 연구원 | 제2장, 제4장 집필

#### 공동 연구

**조재성** | 충남대학교 교수 | 제3장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및 연관산업 전망

**이정민** |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 제5장 외국 사례(미국)

**이용건** | 홋카이도대학교 | 제5장 외국 사례(일본)

연구보고 R824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0.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동양문화인쇄포럼 061-332-7120

ISBN | 979-11-6149-090-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0475)

## 머 리 말

---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로 대우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관련 서비스의 부족, 관련 제도 미흡 등으로 일부 반려동물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학대를 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주인들은 생활면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 관련 기초 현황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사육 현황과 전망,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서비스 현황과 전망,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서비스 소비 실태, 일본과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사육·연관산업·제도 현황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과 연관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건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문화 안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좋은 의견과 많은 조언을 주신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펫사료협회,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 요 약

---

###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연관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복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 반려동물 사육과 연관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 전망을 통해 동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함.

###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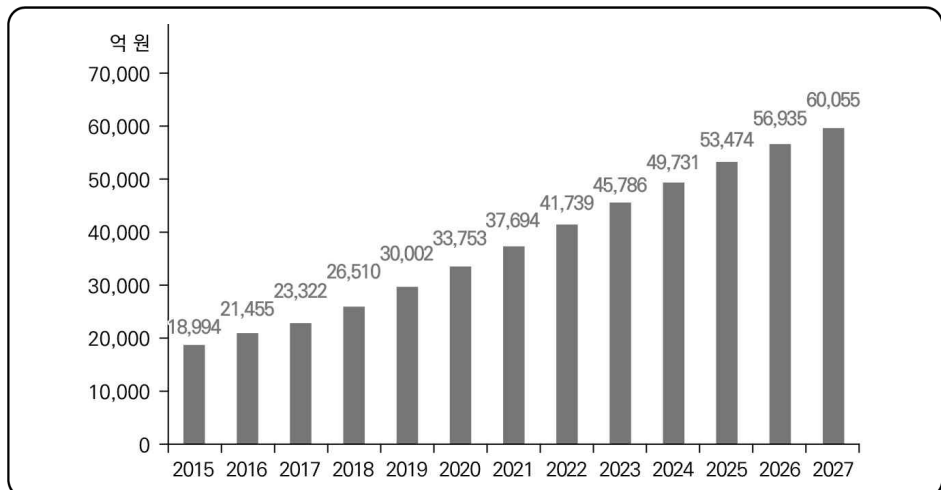
- 반려동물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언론보도와 연구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또한 반려동물 관련 협회와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함.
- 전국의 반려동물 사육현황과 서비스 이용실태,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Bass 확장 모형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사육 및 연관산업을 전망하였으며,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속성별 지불의사를 추정함.

- 반려동물 사육과 연관산업의 문제점 파악,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1차례씩 개최하였으며, 업계 관련자와의 연구협의회도 13회 개최함.
-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및 연관산업 전망과 해외 사례 부문은 외부 전문가에 위탁연구를 추진함.

###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전망

- 2017년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에서 개 632만 마리, 고양이 243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체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는 약 874만 마리로 추정됨. 반려동물 사육 인구수는 약 1,481만 명으로 추정됨.
- 2014년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1조 5,684억 원으로 연평균 14.5%씩 성장하고 있음.
  - 산업별로는 사료산업이 4,841억 원, 동물 및 관련 용품산업이 3,849억 원, 수의 서비스 산업이 6,551억 원, 장묘 및 보호 서비스가 338억 원, 보험이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7년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17년 2조 3,322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개선 과제**

-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사육 등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가 미비하며, 반려동물 사육 시 동물 학대와 유실·유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2개월 이하의 어린 반려동물의 유통으로 폐사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유실·유기방지와 보험확대를 위한 동물 등록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동물 등록 마릿수는 107만 마리로 전체 540만 마리 중 19.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사료 산업은 기초통계가 부족하며,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사료관리법이 부재함.
  - 국내산 고급 육류 원료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국내산 사료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임.
-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가 심하고 과잉 진료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책정되는 문제가 있음.
  - 동물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없어 증가하는 의료서비스 수요 대처에 미흡한 실정임.
  - 국내 보험 시장이 취약하여 보험 가입률이 0.16% 수준이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 시장 형성이 부진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이 난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함.
  - 도그쇼 활성화가 미흡하고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도 크게 부족한 상황임.
- 반려동물 미용서비스업,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신규 업종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관리 기준이 미흡함.

###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국민들은 반려동물의 상업적 대량생산에 대해 대부분 반대(82.1%)의사를 나타냄. 반려동물 배설물 부적절 처리에 대한 처벌(95.4%)과 유기 및 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93.5%)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일정 수준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83.4%가 찬성함.

###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

-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사료에 대해 kg당 7,253원을, 알리지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에 대해 5,868원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사료에 대해 2,386원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특성과 선호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료를 개발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원료의 주성분이 육류인 사료에 지불의향이 높게 나타나 고급 사료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산 고급 육류 사료원료의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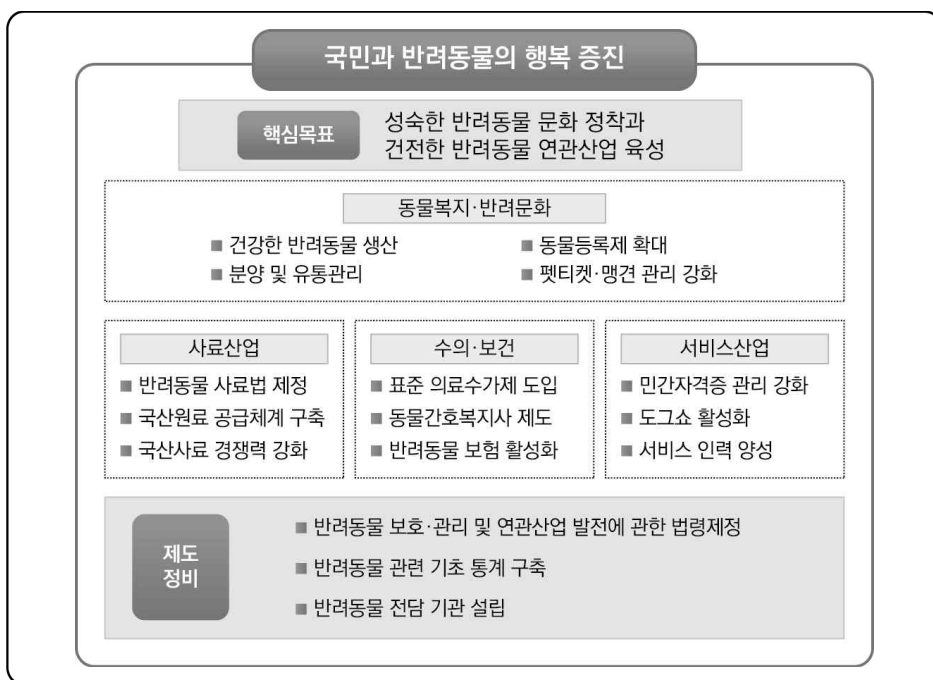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향**

- 본 연구는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목표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건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으로 설정함.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의 생산, 분양, 사육과정에서 동물복지를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의 보다 성숙한 의식과 문화를 고취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산업 보호 및 육성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이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향〉



### **<요약 및 시사점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방안**

- 건강한 반려동물 생산을 위해 생산과 분양, 유통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유기동물을 줄이고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펫티켓에 대한 교육과 맹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요약 및 시사점 2> 건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방안**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료법 제정, 국산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국산사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수의·보건 산업은 표준 의료수가제 도입, 동물간호복지사 도입, 보험활성화가 필요함.
- 기타 서비스 산업은 민간자격증 관리, 도그쇼 활성화,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요약 및 시사점 3> 건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방안**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연관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과 「반려동물 사료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법을 통해 관련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ABSTRACT

---

#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 **Background of Research**

In Korea, the demand for companion animals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such as the nuclear family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size of related industries is growing rapidly. Nevertheless, the issue of animal welfare continues to be pointed out,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s of related industries are insufficient, which impedes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animal breeding and related industries that the existing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policy does not cover and to protect and cultivate the industries through their prospects.

### **Method of Resear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us of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we reviewed the press releases and research reports on the related industries and gathered statistics of Statistics Korea and the Korean Agriculture Ministry. A survey was conducted on 2,000 peopl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ompanion animal breeding in Korea, actual use of the service, and public perception of companion animals.

The Bass diffusion model was used to forecast the companion animal breeding industry and related industries. The experiment choice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consumers' preference for animal feeds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each property.

We held a policy debate and a semina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ompanion animal breeding and related industries and to find measures to develop the industries, and held 13 meetings with industry experts.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t is estimated that 5.74 million households, or 29.4% of the nation's 19.52 million households in 2017, have 6.32 million dogs and 2.43 million cat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in Korea will reach about 8.74 million. The number of people raising companion animals is estimated at about 14.81 million. The size of the animal-related industry in 2014 is 1,568.4 billion won, which is growing by an average of 14.5% per year.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will steadily increase to reach 13.2 million in 2027. The size of the animal-related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from 2.3 trillion won in 2017 to more than 6 trillion won in 2027.

Basic statistics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breeding of companion animals are insufficient, and companion animal abuse, loss, and abandonment problems continue to occur. Since the animal which is less than 2 months old is sold to the market, the mortality rate is high, resulting in consumer damage.

Despite the compulsory registration of companion animals for the prevention of loss, abandonment and insurance expansion, the number of companion animals registered by 2016 is only 1.07 million, accounting for only 19.8% of 5.4 million. In addition, accidents of dogs attacking people are also occurring continuously.

Basic statistics on the feed industry are insufficient, and there is no feed law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companion animal feeds. Domestic feeds are not competitive due to the lack of a domestic high-quality meat supply system. There is a huge price difference of medical care depending on animal hospitals. Also there is a problem of medical expenses due to excessive medical treatment. Demand for animal care is rising rapidly, but it is difficult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animal healthcare services due to lack of an animal nursing care system and experts.

The companion animals insurance penetration rate is only 0.16% due to the weak domestic pet insurance market, and the companion animals insurance market is sluggish due to the high loss ratio of insurance companies. This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of consumers.

As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grows rapidly, many related certificates issued by private organizations are being created. However,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Dog shows are not active enough and there is a great lack of experts in animal care. Facilities and manpower management standards are insufficient for new industries such as the companion animal care service industry, dog cafes, dog hotels, dog kindergartens.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could develop only if a mature companion culture is established and a healthy companion animal industry is fostered. Therefore, this study set these two as the core objectiv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n order to establish a mature companion culture, animal welfare should be expanded in the production, sale, and breeding of companion animals. Also, the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raising companion animals should be mature.

Also, to cultivate the animal-relate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can protect and nurture the industry by enacting relevant law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Researchers: Ji Inbae, Kim Hyunjoong, Kim Wontae, and Seo Gangcheol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0.

E-mail address: [jiinbae@krei.re.kr](mailto:jiinbae@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선행연구 검토 ..... 4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7

### 제2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문제점

- 1. 반려동물 사육, 생산, 유통, 유기 현황 ..... 11
- 2. 반려동물 사료산업 현황 ..... 30
- 3. 반려동물 수의 및 보험 서비스 시장 현황 ..... 37
- 4. 반려동물 기타 서비스 시장 현황 ..... 51

### 제3장 반려동물 사육 및 연관산업 규모 전망

-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추정 ..... 67
- 2. 반려동물 사육 규모 및 연관산업 시장 규모 전망 ..... 68

### 제4장 반려동물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분석

- 1.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비 실태 조사 ..... 81
- 2. 반려동물 및 관련 서비스 소비 성향 분석 ..... 104

### 제5장 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시사점

- 1.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제도 ..... 111
- 2. 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제도 ..... 136
- 3. 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관련 제도의 시사점 ..... 155

### 제6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 1.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향 ..... 163

2.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방안 .....	165
3.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	169
4.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	178
5.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연관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	182

## 부록

1. 반려동물 국민 인식 조사 .....	185
------------------------	-----

참고문헌 .....	203
------------	-----



## 표 차례

---

### 제2장

<표 2-1> 연도별 반려동물 보유 현황 추정 .....	12
<표 2-2> 반려동물 생산업체 현황 .....	14
<표 2-3> 반려동물 생산업체 미신고 사유 .....	14
<표 2-4> 동물 관련 등록업체 수 .....	16
<표 2-5> 반려동물 분양규모 추정(2017) .....	17
<표 2-6> 반려동물 경매장 및 주별 출하두수 현황(2017. 10.) .....	18
<표 2-7>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	21
<표 2-8> 동물등록제 대행기관 현황(2016) .....	23
<표 2-9> 연도별 반려동물 검역실적 .....	25
<표 2-10> 연도별 개 수출입실적 .....	25
<표 2-11> 동물학대 행위 고발/기소 건수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 .....	26
<표 2-12> 연도별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 건수 .....	29
<표 2-13> 반려동물 배합사료 생산실적 .....	30
<표 2-14> 애완동물사료 사업체 수 및 생산액과 연말 재고액(10명 이상) .....	31
<표 2-15> 유통단계별 사료가격 .....	31
<표 2-16> 반려동물 사료 수출 현황 .....	32
<표 2-17> 반려동물 사료 수입 현황 .....	33
<표 2-18> 수의업 현황 .....	37
<표 2-19> 수의업 매출액의 분야별 비중 .....	37
<표 2-20> 수의사 현황(2017년 7월 기준) .....	38
<표 2-21> 전국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2016년 말 기준) .....	38
<표 2-22> 회사별 반려동물 보험 상품 .....	44
<표 2-23> 반려동물 보험 상품 예시(롯데 마이펫 보험) .....	45
<표 2-24> 롯데 마이펫보험 판매실적과 손해율 .....	49

<표 2-25>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와 매출액 .....	51
<표 2-26>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현황 .....	52

### 제3장

<표 3-1>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정치 .....	68
<표 3-2> 소비 지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정치 .....	73
<표 3-3> Bass 모형 추정을 위한 사육 규모 자료 .....	74
<표 3-4> Bass 모형 추정을 위한 시장 규모 자료 .....	74
<표 3-5> 시나리오별 사육 마릿수에 대한 Bass 모형 회귀분석 결과 ...	76
<표 3-6>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의 잠재 규모 및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	76
<표 3-7>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전망치(2018~2027) .....	77
<표 3-8> 소비 지출액 기준 시장 규모에 대한 Bass 모형 회귀분석 결과 ..	78
<표 3-9> 소비 지출액 기준 시장 규모의 잠재 규모 및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	78
<표 3-10>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 추정치 .....	78

### 제4장

<표 4-1> 국민인식조사 표본의 특성 .....	82
<표 4-2> 반려동물 관련 제도 인식 .....	83
<표 4-3> 반려동물 사육 초기 1년간 진료비 및 중성화 수술 비용 ...	95
<표 4-4> 병원 진료비에 대한 의견 .....	96
<표 4-5> 반려동물 마리당 병원 진료비와 진료 횟수 .....	97
<표 4-6> 반려동물 마리당 총 지출 금액(1년 기준) .....	99
<표 4-7> 반려동물 사료의 속성과 속성 수준 .....	107
<표 4-8> 반려동물 사료 속성의 선택실험법 추정 결과 .....	108
<표 4-9>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추정 결과 .....	109

### 제5장

<표 5-1> 일본의 2016년 반려동물 사육현황 .....	111
-----------------------------------	-----

<표 5-2>	일본 반려동물 사료의 판매액 및 판매량 .....	113
<표 5-3>	반려동물 용품의 판매액 .....	115
<표 5-4>	요코하마시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이용 안내 .....	117
<표 5-5>	반려견 감찰과 광견병 주사제표의 요건 .....	120
<표 5-6>	반려견의 등록과 광견병 예방주사 요금 .....	121
<표 5-7>	일본의 반려견 등록두수 및 광견병 예방 주사 두수 .....	121
<표 5-8>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 및 추진 계획 .....	125
<표 5-9>	동물애호와 관련된 주요처벌 .....	126
<표 5-10>	제1종 동물취급업의 사업내용 해당업자 .....	127
<표 5-11>	동물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	128
<표 5-12>	제2종 동물취급업의 신고 대상 마릿수 및 사육시설 .....	131
<표 5-13>	반려동물사료의 성분규격 .....	134
<표 5-14>	반려동물사료 제조방법의 기준 .....	134
<표 5-15>	연도별 사육 마릿수 및 사육가구 수 현황 .....	136
<표 5-16>	미국의 반려동물 입양 경로 .....	137
<표 5-17>	미국 내 브리딩 선호 견종 및 묘종 .....	138
<표 5-18>	미국 내 브리딩 업체 현황 .....	138
<표 5-19>	미국의 반려동물 쇼 현황 .....	139
<표 5-20>	도그쇼 참가자의 1인당 지출 항목 및 액수 .....	141
<표 5-21>	미국의 반려동물 품목별 매출액 전망(2017) .....	143
<표 5-22>	미국 내 반려견 및 반려묘 사육가구의 연평균 품목별 지출비용 .....	143
<표 5-23>	미국의 반려동물별 평균 보험료 .....	147
<표 5-24>	미국 내 반려동물 보험 인기 순위 및 보장 범위와 지출비용 .....	147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구성 .....	2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도 .....	10

### 제2장

<그림 2-1>	반려동물 유통 경로 .....	18
<그림 2-2>	유기·유실동물 구조 마릿수 .....	20
<그림 2-3>	동물보호센터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 .....	20
<그림 2-4>	동물보호센터 현황 .....	21
<그림 2-5>	연도별 동물등록 누적 현황 .....	22
<그림 2-6>	개와 고양이의 입양 시기 .....	28
<그림 2-7>	수의업 종사자 수 비중 .....	40
<그림 2-8>	반려동물 보험 판매 회사 .....	43
<그림 2-9>	반려동물 보험 가입 현황 .....	46
<그림 2-10>	반려동물 보험 인지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	47
<그림 2-11>	반려동물 보험 미가입 이유 .....	48
<그림 2-12>	도그쇼 개최 현황 .....	56
<그림 2-13>	애견 핸들러 자격검정 추이 .....	57
<그림 2-14>	한국애견연맹의 애견 훈련사 자격검정 추이 .....	58
<그림 2-15>	애견미용서비스 자격증 취득 현황 .....	59
<그림 2-16>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추이 .....	60
<그림 2-17>	반려동물 폐사 시 처리방법 및 향후 처리계획 .....	63

### 제3장

<그림 3-1>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전망 그래프 .....	77
<그림 3-2>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	79

## 제4장

<그림 4-1>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이수 의무화에 대한 찬반 여부 ..	83
<그림 4-2>	맹견의 공격 피해 해결 방안 .....	84
<그림 4-3>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상위 10개 품종 .....	85
<그림 4-4>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동기 .....	86
<그림 4-5>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	86
<그림 4-6>	반려동물 입양 경로 .....	87
<그림 4-7>	동물 등록제 인지 여부 및 동물 등록 여부 .....	88
<그림 4-8>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	88
<그림 4-9>	동물 등록 방법 .....	89
<그림 4-10>	동물 등록 시 불편한 점 .....	89
<그림 4-11>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	90
<그림 4-12>	반려동물 관련 민원 경험 내용 .....	91
<그림 4-13>	반려동물 사육 관련 정부 건의 사항 .....	91
<그림 4-14>	급여하는 사료 원산지 .....	92
<그림 4-15>	반려동물 마리당 한 달 사료 급여량 및 kg당 사료 가격 ..	93
<그림 4-16>	반려동물 사료 구입처 .....	93
<그림 4-17>	반려동물 사료 구입 시 고려사항 .....	94
<그림 4-18>	동물병원 방문 경험 및 방문 이유 .....	94
<그림 4-19>	동물병원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용 항목(1순위) .....	95
<그림 4-20>	반려동물 주사 경험 및 직접 주사에 대한 의견 .....	96
<그림 4-21>	반려동물 용품 구입 시 고려사항 .....	97
<그림 4-22>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비율 .....	98
<그림 4-23>	향후 늘어났으면 하는 반려동물 시설 .....	99
<그림 4-24>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유 .....	100
<그림 4-25>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이유 .....	101
<그림 4-26>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 상위 10개 품종 .....	101
<그림 4-27>	반려동물 입양 시 고려사항 .....	102

## 제5장

<그림 5-1>	일본의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및 사람 수 현황 .....	112
<그림 5-2>	일본의 반려동물 순수익보험료의 추이 .....	114
<그림 5-3>	동물 애호 관리법의 목적 .....	122
<그림 5-4>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	132
<그림 5-5>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대상과 표시 의무사항 .....	135
<그림 5-6>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도그쇼와 CFA 캣쇼 .....	140
<그림 5-7>	미국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 현황 및 전망 .....	142
<그림 5-8>	미국의 반려동물 보험업 규모 변화 추이 .....	146
<그림 5-9>	미국의 반려동물 사육 추이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추이 ...	156

## 제6장

<그림 6-1>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향 .....	164
<그림 6-2>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	18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면서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 15.6%이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1%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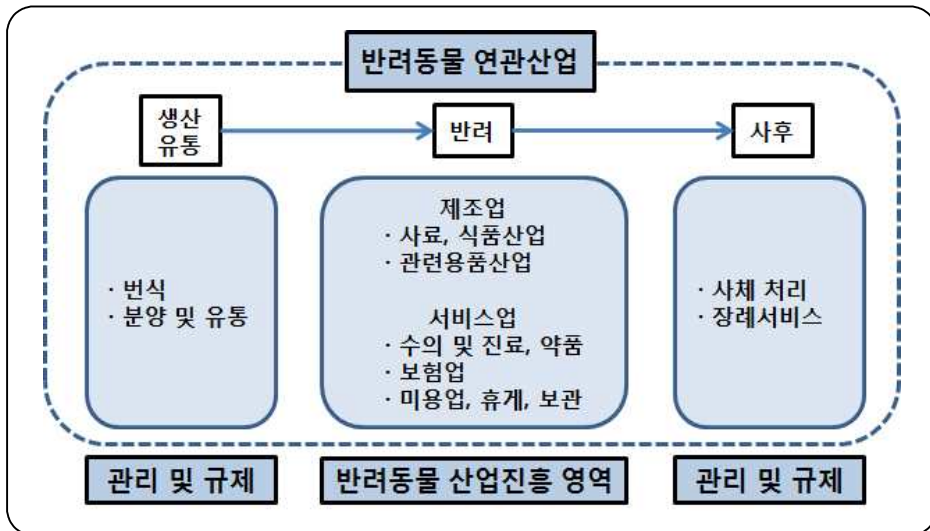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소득도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사육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황명철 외(2013)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규모를 2012년 9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연평균 26.3% 성장하여 2020년에는 5조 8,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반려동물의 번식을 통한 생산·분양·유통, 사육을 위한 사료·관련용품·수의·진료·약품·보험·미용·휴게·보관, 사후처리를 위한 장례 등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 반려동물의 생산·유통과 관련하여서는 동물복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정보인 사육 마릿수와 생산농가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 2 서론

못하다.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련하여서는 사료, 용품산업, 수의업, 판매업, 미용업에 대한 업체 수, 종사자 수 등과 같은 기초 통계자료도 부족하며, 이들 업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체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정부의 관리와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려동물의 사육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장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례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못하여 사체처리에 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구성



자료: 기획재정부(2016). “반려동물산업 TF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결과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연관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1년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은 주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학대 금지, 유기동물,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등의



등록·신고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 반려동물과 연관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산업진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2017년 3월 2일 동물유기 및 학대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만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12. 14.).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방역관리과 내에 전담팀(신규 3명 + 기존 2명)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조직개편으로 축산환경복지과에서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2. 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23일 “동물유기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 보유인구가 1천만 명이 넘고 도시민의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향후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선진국형 동물보호·복지제도와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산업 전망을 통해 동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4 서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초 통계자료 수집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산업 전망, 수요분석을 통해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마련 등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2.1. 반려동물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2016년 농식품부 정책과제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비피기술거래(2016)의 『반려동물 산업과 첨단기술의 만남』의 보고서가 있다. 그 이전에는 농촌진흥청(지상윤 외 2011), 농협경제연구소(황명철 외 2013), 한국소비자원(김선희 2013),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황원경 2015, 2017), 경기연구원(이정임 2015), 현대증권(김영각 2015)과 같은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이슈 리포트들이 소수 있다. 이러한 이슈 리포트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로 전문잡지들의 특집 기사 정도였다.

유기동물과 관련한 연구로 건국대 산학협력단(한진수 외 2013)의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되었다.

이영대(2016)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의 반려동물 산업 및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반려동물산업 관련 정부조직 설치와 기금 설치, 수출 확대 방안,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지상윤 외(2011)의 “견우시대-반려견 산업 다시보기”에서는 인간과 개가 언제부터 함께 지내게 되었는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최근 성장하는 반려견 관련 산업인 분

양산업, 사료 및 식품산업, 관련용품 산업, 서비스 산업, 관광·축제, 특수목적 반려견, 반려견 관련 직업 등 반려동물산업의 특징을 정리하고,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황명철 외(2013)는 애완동물의 정의를 살펴보고, 애완동물 관련산업으로 사료 시장, 관련용품 시장, 수의진료 시장, 보험 시장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리포트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의 애완동물 관련시장의 현황을 정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애완동물의 수요증가와 함께 애완동물 관련시장의 성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본 리포트는 농협중앙회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 중 많은 사업이 애완동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애완동물 관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애완동물 관련시장 전망 자료는 이후 반려동물 관련 대부분의 저작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추정방법과 전망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김선희(2013)는 반려동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분양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유통 현황과 소비실태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기준 정보 제공, 구입 계약서 제공 의무 강화,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황원경(2015)은 국내외 반려동물보험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반려동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보험이 매우 활성화되어 계약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될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로 인해 반려동물보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임 외(2015)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공공서비스와 위생·안전관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려동물산업의 신규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반려동물등록제의 홍보와

동물 유기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황원경(2017)은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최근 이슈, 양육 현황, 양육관련 사회·제도적 인식, 양육 형태, 금융 행태, 양육 만족도, 관련시장 성장 전망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러한 정책 이슈리포트나 보고서 외에 반려동물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한은경 외(2015)의 『동물 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카라(2014)의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 명보영(2013)의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용무(2006)의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 이종인 외(2014)의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 조사』, 함태성(2015)의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황규성 외(2015)의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정책이슈 리포트 수준이며, 연구보고서 형태의 연구들은 유기동물이나 동물복지와 관련한 연구들이거나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생산, 유통, 사육 현황과 함께 사료, 용품, 수의·진료, 보험, 미용, 휴게, 도그쇼, 장례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반려동물사육과 연관산업의 성장규모에 대해 전망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황과 전망, 문제점,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할지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연관산업과 관련한 최초의 종합 연구보고서로써 반려동물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1.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육, 생산, 유통, 유기, 수출입 등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사육현황과 함께 사료산업, 수의·보험 산업, 용품산업, 미용·휴게, 장례, 도그쇼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해 정리하고, 동 산업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반려동물 사육현황 자료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연관산업 규모를 추정하고, BASS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와 연관산업의 규모를 전망한다.

제4장에서는 국민들이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사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의식과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실태, 반려동물 및 관련 서비스 소비 실태,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와 향후 기를 의향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사료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선호도와 속성별 지불의사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려동물 사육현황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반려동물 관련 법,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장의 반려동물 사육 및 연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산업 전망, 소비 실태 분석,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향후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문화 개선 방안, 연관산업 발전 방안, 제도 개선 방안, 정책로드맵을 도출한다.

### 3.2. 연구 범위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애완동물이 사람의 장난감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인식에서 1983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안되었다. 반려동물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감성이나 사회성,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동물로 개, 고양이, 말, 앵무새, 고슴도치, 토끼, 햄스터 등 대부분 집에서 기르는 포유류가 이에 포함된다(네이버 지식백과). 따라서 집에서 기르는 파충류와 곤충류는 반려동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과 연관산업을 분석한다. 반려동물 사육과 관련한 문제로 일부 반려동물 유기현황을 다루지만, 반려동물의 유기 등 동물보호와 관련한 주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주제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식용견, 유기견, 길고양이 등 현재 반려의 목적 이외의 상태에 있는 동물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 3.3. 연구 방법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언론보도, 이슈리포트와 보고서 등의 연구 자료를 살펴 보았으며, 통계청과 관세청, 관련 협회,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현황 파악을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협회인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한국펫사료협회, 한국펫산업수출협회, 한국동물장례협회, 한국그루머협회, EBS펫에듀, KB손해보험 등 현직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현장 상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전국의 반려동물 사육현황과 서비스 이용실태,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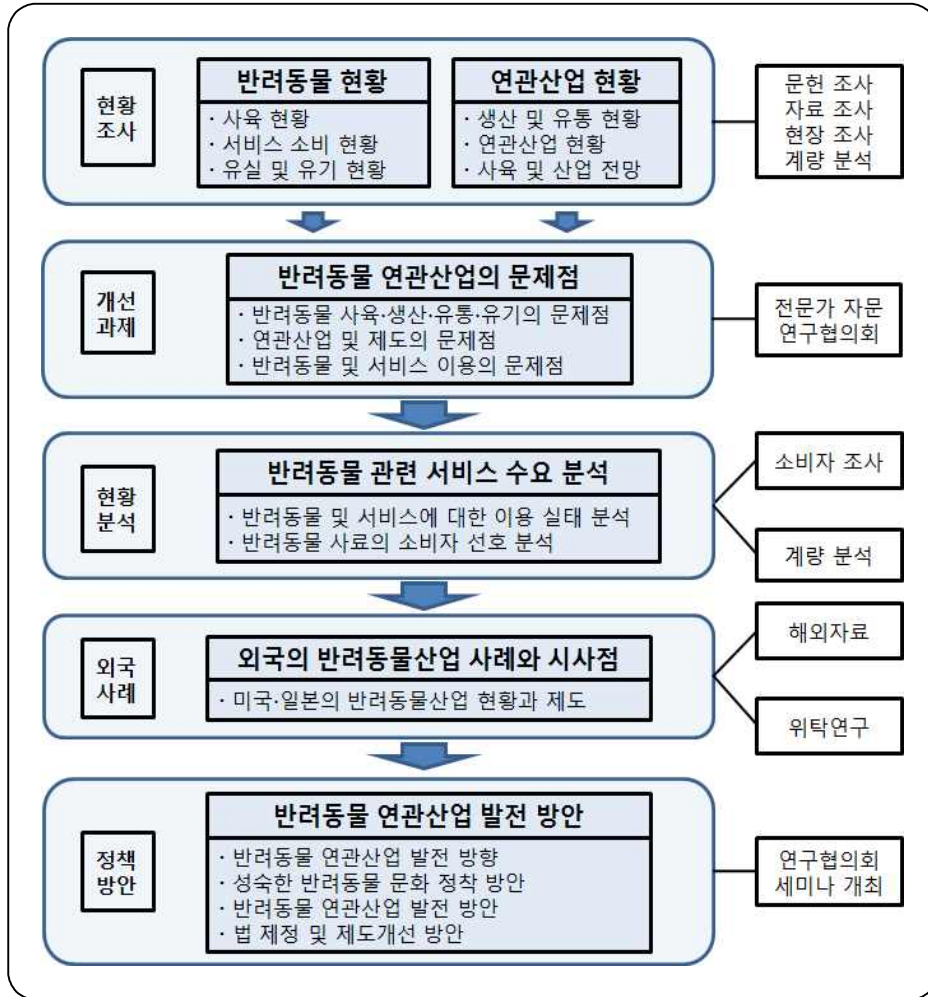
사는 조사전문 업체인 (주)마이크로엠브레인에서 실시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성인남녀 2,000명에 대해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12일 간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 반려동물 사육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사육 및 입양 현황과 향후 의향, 반려동물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이다.

반려동물 사육 및 연관산업 전망과 관련 서비스 소비의향에 대해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향후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와 연관산업의 성장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BASS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속성별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였다.

반려동물 사육 및 연관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5월 30일 한국애견연맹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7월 13일에는 서울 KT&G 회의실에서 6명의 발표자와 10명의 토론자, 약 1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펫사료협회,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협회 등 관련 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도 13회 개최하였다.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와 연관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 조재성 교수에게 위탁연구를 추진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현재 각국에서 유학 중인 이정민 연구원과 이용건 연구원에게 원고위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과 협력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도





### 1. 반려동물 사육, 생산, 유통, 유기 현황

#### 1.1. 반려동물 사육 현황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증가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반려동물 사육현황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으며, 전수조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17년 8월 “반려동물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 마릿수를 추정하였다.<sup>1</sup>

사육 현황에 대해 과거와의 비교 및 이번 조사결과의 검토를 위해 과거와 최근 시행된 조사들을 비교·정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민의 동물보호 관련 의식 수준과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동물보호법 및 제도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향후 동물복지종합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2010년, 2012년, 2015년 네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시장 전반적 사항과 반려동물

<sup>1</sup> 본 연구의 “반려동물 국민 인식 조사”의 개요는 제4장 참조.

## 12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문제점

양육가구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5월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국펫사료협회는 지난 9월 한국갤럽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조사결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한국펫사료협회에서 조사한 반려동물 사육 현황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본 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중은 2006년 22.6%를 제외하고는 2010년 17.4%에서 2017년 29.4%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 연도별 반려동물 보유 현황 추정

구분		2006년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KB	펫사료협회	본 연구
표본크기(명)		2,015	2,030	2,000	3,000	1,500	2,024	2,000
전국 가구수(천 가구)		16,322	17,495	18,119	19,013	19,524	19,524	19,524
개	보유 비중(%)	22.1	16.3	16.0	19.1	25.5	22.7	24.2
	가구당 평균 마릿수(마리)	1.66	1.47	1.38	1.28	1.40	1.50	1.34
	총 사육 마릿수(천 마리)	5,988	4,192	4,001	4,648	6,968	6,648	6,318
고양이	보유 비중(%)	1.4	1.7	3.4	5.2	5.1	5.6	8.5
	가구당 평균 마릿수(마리)	1.91	1.92	1.70	1.74	1.80	1.90	1.47
	총 사육 마릿수(천 마리)	436	571	1,047	1,720	1,803	2,077	2,425
전체	보유 비중(%)	22.6	17.4	17.9	21.8	30.9	28.3	29.4
	총 보유 가구수(천 가구)	3,689	3,044	3,243	4,145	6,033	5,525	5,740
	총 사육 마릿수(천 마리)	5,988	4,763	5,048	6,369	8,770	8,725	8,7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 농림수산검역본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2010년, 2012년, 2015년)」; 황원경.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2017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한국펫사료협회. “반려동물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본 연구 “반려동물 국민 인식 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년 이후 개 사육 가구 비중은 2010년 16.3%에서 2017년 24.2%로 증가하였으며, 고양이 사육 가구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17년 8.5%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가구당 평균 개와 고양이 보유 마릿수는 2010년 각각 1.47마리와 1.92마리에서 2017년 1.34마리와 1.47마리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내 전체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와 사육 마릿수를 단순 계산방식<sup>2</sup>으로 추정하면, 2017년 현재 전국 1,952만 가구 중 574만 가구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며, 전국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 마릿수는 약 874만 마리로 추정된다. 개 사육 마릿수는 약 632만 마리, 고양이 사육 마릿수는 약 243만 마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사육 마릿수와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를 고려할 때 반려동물 사육 인구수는 1,481만 명으로 추정된다. 2010년 대비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는 88.6%, 개 사육 마릿수는 50.7%, 고양이 사육 마릿수는 4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최근 고양이 사육 마릿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 1.2. 반려동물 생산 현황

### 1.2.1. 반려동물 생산업체 현황

반려동물 생산업체에 대한 통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800~1,000개의 반려동물 번식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생산자협회는 2,000~3,000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3,000~

<sup>2</sup> 전국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 = 전국 가구 수 × 표본 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 비율, 전국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 전국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 × 표본 내 반려동물 사육 가구의 평균 사육 마릿수

<sup>3</sup> 최근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고, 악취가 적고, 독립적인 고양이의 습성으로 고양이 사육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 14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문제점

4,000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애견연맹에 따르면 혈통견 생산을 위한 전문브리더는 관련 협회 등록 브리더수가 약 5만 명에 이르며, 비등록 브리더를 포함하면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산업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① 반려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 사육 마릿수 및 종사자 수, ③ 사육형태, ④ 사육방식, ⑤ 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 등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총 708개소였으며, 이중 지자체 신고업체 수는 237개소로 33.3%를 차지하였고, 66.7%인 472개소가 미신고업체였다. 이들이 사육하는 반려동물 마릿수는 총 79,716마리로 업체별 평균 113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 수는 1,102명으로 업체별 평균 1.56명으로 나타났다. 291개소(41.1%)의 업체가 축사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548개소(77.4%)는 케이지에서 개별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반려동물 생산업체 현황

단위: 개소, (%)

전체 생산업체	신고업체	미신고업체
708(100)	236(33.3)	472(6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1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반려동물 생산업체의 미신고 사유는 신고대상 미인지가 266개소(56.4%)였으며, 건축법 위반이 121개소(25.6%), 설치제한지역이 60개소(12.7%), 시설기준 미충족이 6개소(1.3%)로 나타났다.

〈표 2-3〉 반려동물 생산업체 미신고 사유

단위: 개소, (%)

전체	신고대상 미인지	건축법 위반	설치제한지역	시설기준 미충족
472(100)	266(56.4)	121(25.6)	60(12.7)	6(1.3)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2017. 6. 12.).

## 12.2. 반려견 생산 체계<sup>4</sup>

반려견은 생후 6~8개월부터 발정이 오며, 1살 이후부터 교배를 시작하고 2~5살에 교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견의 임신기간은 품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60~63일 사이이며, 1년에 평균 1.5회 분만한다. 품종마다 다르지만 소형견의 경우 한 번에 2~3마리를 생산한다. 100마리를 사육할 경우 약 30마리의 수컷과 70마리의 암컷을 사육하며 1년에 대략 315마리<sup>5</sup>의 강아지 생산이 가능하다. 보통 소형견의 경우 1개 개장의 크기는 60cm×90cm로, 60m<sup>2</sup>(18평) 규모의 전사에서 100여개의 개장을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12.3. 반려동물 생산 마릿수 추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생산된 강아지 마릿수는 약 46만 마리로 추정되며, 지난 1년간 생산된 고양이 마릿수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된다. 전체 조사된 개(648마리) 중 7.3%가 1살 미만으로 이를 전체 사육 마릿수(633.1만 마리)로 환산하면, 1살 미만의 개 마릿수는 약 46만 마리이다. 전체 조사된 고양이(248마리) 중 9.6%가 1살 미만으로 이를 전체 사육 마릿수(243.9만 마리)로 환산하면, 1살 미만의 고양이 마릿수는 약 23만 마리이다.

## 1.3. 반려동물 유통 현황

### 1.3.1. 유통 및 판매업체 현황

2017년 3월 이전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종으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동물판

<sup>4</sup> 본 내용은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sup>5</sup> 모견 70마리×1.5회×3마리=315마리

## 16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문제점

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로 운영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생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모두 “판매업”으로 등록을 받다가, 2013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으로 분리하였다.

2017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영업의 종류를 기존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4개 업종에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8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였으며(제32조),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생산업은 기존의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되어 동물생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제34조). 이 외에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교육(제37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및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제38조), 출입·검사(제39조), 불법에 대한 포상금(제41조) 등이 강화되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판매업체수는 2017년 10월 12일 기준 4,152개소이며, 동물수입업체수는 38개소, 동물생산업체수는 469개소, 동물장묘업체수는 24개소이다. 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규제 강화로 인하여 등록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2-4〉 동물 관련 등록업체 수

단위: 개소

기준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2017. 6.14	406	3,961	32	24
2017.10.12	469	4,152	38	24
증감	63(15.5%)	191(4.8%)	6(18.8%)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2017. 6. 12.).

### 1.3.2. 유통경로 및 유통현황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유료로 거래된 개 마릿수는 약 78.8만 마리, 고양이 마릿수는 약 32.1만 마리로 추정된다. 유료로 입양된 개의 평균비용은 259,212원, 고양이가 523,500원으로 조사되었다. 1년 이내

입양된 개의 비율은 23.5%로, 이를 이용하여 환산할 경우 1년 이내 입양된 개의 마릿수는 약 148.5만 마리이며, 이중 유료로 입양된 개의 비율은 53.1%인 78.8만 마리였다. 1년 이내 입양된 고양이 비율은 32.3% 수준으로, 이를 이용하여 환산할 경우 1년 이내 입양된 고양이 마릿수는 약 78.3만 마리이며, 이중 유료로 입양된 고양이 비율은 41.0%인 32.1만 마리였다.

〈표 2-5〉 반려동물 분양규모 추정(2017)

단위: 천 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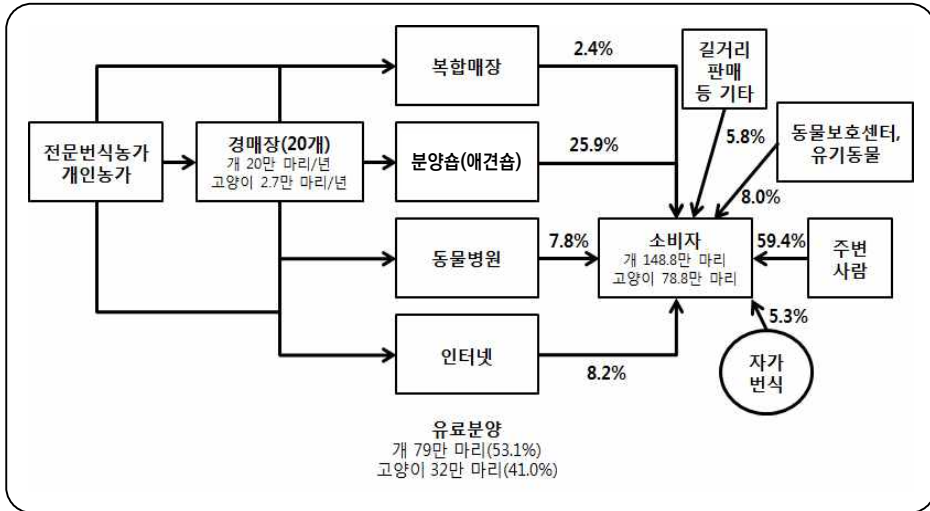
	유료분양	무료분양	합 계
반려견	788	696	1,485
반려묘	321	462	783
합계	1,110	1,158	2,268

주: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2017. 8.)를 이용하여 추정.

한편 반려동물의 유통경로는 경매장을 거쳐 분양숍 및 동물병원 등을 통하는 경로,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인터넷, 동물보호센터 등 다양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입양 경로 중 주변 사람으로부터 입양한다는 응답률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분양숍(애견숍) 25.9%, 인터넷 8.2%, 동물보호센터 8.0%, 동물병원 7.8%, 길거리 판매 등 5.8%, 자가번식 5.3%, 복합매장 2.4%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반려동물 경매장은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경기도(11개)와 대전(4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분양숍은 주로 경매장을 통해 80% 이상 유통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직접번식 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번식장과 직거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용무 2006). 개의 경우 경매를 통해 매주 약 5,000마리가 출하되고 있으며, 고양이는 640마리가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80% 정도가 낙찰을 받아 거래되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개의 경우 1년에 약 20만 마리가, 고양이는 약 2만 7,000마리가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매장 조사결과 유통과정에서 약 10%가 폐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 반려동물 유통 경로



자료: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2017. 8.),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2017. 10. 18.).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주로 개인번식장과 전문번식장을 이용한다. 개인 번식장은 주로 소형견종이며, 관리가 잘된다는 인식이 높다. 전문번식장은 주로 애견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품종이 주를 이루며, 2개월령이 30만 원 이상이며, 100만~200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지인을 통한 거래는 전국 강아지 거래량의 약 60%를 차지하며, 주로 무료 또는 20만 원 미만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이용무 2006).

〈표 2-6〉 반려동물 경매장 및 주별 출하두수 현황(2017. 10.)

단위: 마리

	경매장명	소재지	경매요일	개	고양이
1	한국경매장	경기	월/금	250	30
2	경기경매장	경기	화/금	300	-
3	서울펫경매장	경기	화/목	250	-
4	한펫경매장	경기	수/일	100	-
5	팜스코애견사랑방	경기	수	100	50
6	코리아펫경매장	경기	월/목	500	30
7	서부알프경매장	경기	수/일	400	20



(계속)

	경매장명	소재지	경매요일	개	고양이
8	코아스경매장	경기	화/금	350	200
9	하이펫펫타운	경기	수/토	350	-
10	다송펫경매장	경기	월	100	-
11	경서경매장	경기	일	100	-
12	천안경매장	충남	목	250	30
13	대전경매장	대전	월	250	150
14	유성동양경매장	대전	목	400	30
15	대전알프경매장	대전	월	250	50
16	광주경매장	광주	화	150	-
17	대구경매장	대구	화	200	20
18	대구대경경매장	대구	금	150	-
19	울산알프경매장	울산	월	350	30
20	부산경매장	부산	월	150	-
합계				4,950	640

자료: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의 전국 경매장 조사자료(2017. 10. 18.).

#### 1.4.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 현황<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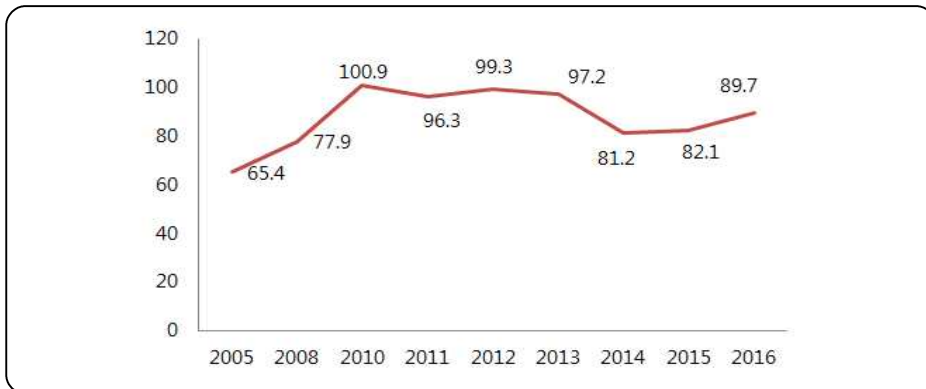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있다. 2016년에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총 89,732마리로 전년의 82,082마리보다 9.3% 증가하였다. 2014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81,200마리였으며, 이후 증가 추세이다. 2016년의 동물 종류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개가 63,600마리(70.9%), 고양이가 24,900마리(27.8%), 기타 1,200마리(1.4%) 순이다.

<sup>6</sup> 본 절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6. 12.) “‘16년 유실·유기동물 9만 마리 구조·보호, 지난 해 대비 9.3% 증가”를 기초로 이전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20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문제점

〈그림 2-2〉 유기·유실동물 구조 마릿수

단위: 천 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 11., 2017. 6. 12.).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인도되거나, 다른 주인에게 분양, 분양이 안될 경우 안락사시키며, 일부는 자연사한다. 2016년 기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의 처리형태는 분양이 30.4%, 자연사가 25.0%, 안락사가 19.9%, 소유자 인도가 15.2%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안락사는 줄고, 소유자 인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림 2-3〉 동물보호센터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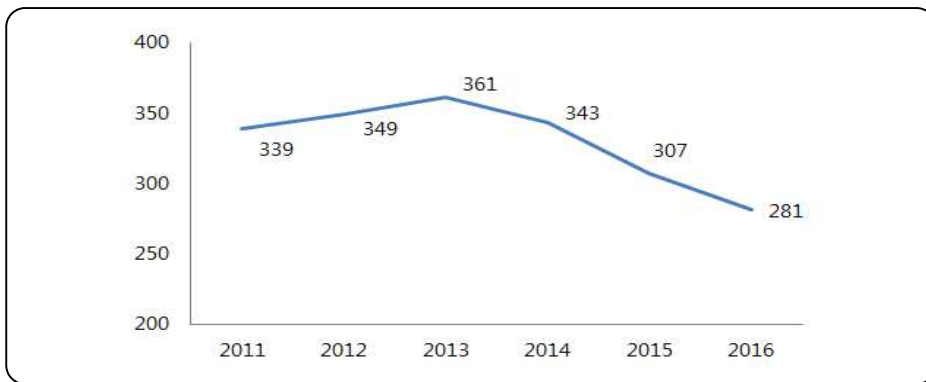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6. 12.).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광역화·대형화되고 있으며, 또한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과 시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 이후 동물보호센터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동물보호센터는 281개소로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26개소, 위탁이 250개소, 시설위탁이 5개소이다. 전년 대비 26개소(8.5%)가 감소하였다.

〈그림 2-4〉 동물보호센터 현황

단위: 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 11., 2017. 6. 12.).

지자체의 유실·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1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원(17.8%)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2016년의 경우 33,313마리에 대해 42억 9,4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5년 대비 중성화된 길고양이 마릿수는 7,007마리(26.6%), 이에 따른 비용도 11억 5,500만 원(36.8%) 증가하였다.

〈표 2-7〉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단위: 억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7.9	105.8	110.8	104.4	128.8	11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 11., 2017.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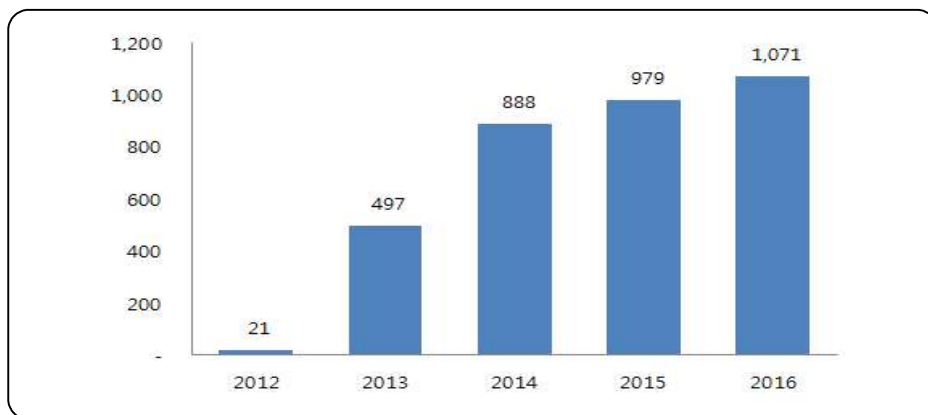
## 1.5. 반려동물 등록 현황<sup>7)</sup>

동물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유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2008년에 시작되었다. 2013년에는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10만 이하 시군구까지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등록방법은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의 3가지이다.

2012년 2만 1천 마리에 지나지 않던 동물등록은 2013년 49만 7천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2014년 88만 8천 마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반려인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 등록에 따른 비용, 내장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의 누적 등록 마릿수는 97만 9천 마리, 2016년은 107만 1천 마리 수준이다. 연도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신규 등록 비율은 2014년 30.6%, 2015년 55.0%, 2016년 65.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5〉 연도별 동물등록 누적 현황

단위: 천 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 11., 2017. 6. 12.).

<sup>7)</sup> 본 절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6. 12.) “‘16년 유실·유기동물 9만 마리 구조·보호, 지난 해 대비 9.3% 증가”를 기초로 이전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진다. 2016년 기준 전국에 3,450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으며, 이 중 동물병원이 3,169개소로 가장 많다.

〈표 2-8〉 동물등록제 대행기관 현황(2016)

단위: 개소

동물병원	동물판매	보호센터	보호단체	계
3,169	205	73	3	3,4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6. 12.).

## 1.6. 혈통견 생산 관리 체계

우리나라 혈통견은 주로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Korea Kennel Club: KKC)는 1988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다. 한국애견협회는 아시아 최초로 등록견에 대한 귀 색인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1990년부터 국내 최초로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1993년에는 세계세퍼드견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인명구조견협회 인가(1999), 국제구조견협회 가입(2002), 동물매개치료 활동 업무협약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애견협회는 캐나다애견협회(Canadian Kennel Club)와 혈통서 상호 인증 협약을 체결하였다.<sup>8</sup>

한국애견연맹은 1945년 제국군용견협회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명칭변경과 흡수를 통한 후,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여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한국애견연맹은 미국애견가협회(American Kennel Club), 영국켈넬클럽(The-Kennel Club) 등과 혈통서 상호 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다.<sup>9</sup>

한국애견연맹이 가입한 세계애견연맹(Federation Cynologique Internationale: FCI)의 주요 활동은 견종별 표준에 의해 견종의 형태, 성품을 특정하고 이

<sup>8</sup> 한국애견협회 홈페이지([www.kkc.or.kr](http://www.kkc.or.kr): 2017. 10. 10.)

<sup>9</sup> 한국애견연맹 홈페이지([www.thekcc.or.kr](http://www.thekcc.or.kr): 2017. 10. 10.)

를 보급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견종 품평회를 통해 반려견을 심사하고 그 혈통을 인증하며 적절한 번식(브리딩)으로 견종 특성을 보유한 반려견을 세계에 보급 확산시키는 것이다. 애견의 혈통 인증 관련 국제 추세는 자견 생산 시 민간단체(켄넬클럽 등)에서 방문 확인을 거쳐 귀에 문신(인식표)을 부착하고 혈통서를 발급하며, 마이크로칩 또는 DNA 검사를 통해 견종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애견 혈통서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 혈통을 보유한 반려견(특히 셰퍼드)은 절대평가인 종견인정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배가 금지된다. 종견인정검사를 통과한 셰퍼드는 2달 이후 도그쇼에 출품되어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혈통인증 견종은 약 140종으로 이들 견종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어 전문 브리더의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애견협회에서는 사육, 브리딩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시행 중이며, 협회 심사를 거쳐 협회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전문 브리더 등록증을 발부하고 있다. 협회에 등록된 브리더들은 약 5만 명이며 국내에는 총 10만 명의 브리더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 브리더들은 견종 보존 및 혈통 보존을 위해 종보존용 이외의 강아지는 중성화 시술 후 펫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들을 리미티드 혈통서를 통해 인증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혈통이 인증된 암컷 소유자가 지역신문에 번식예정 광고를 게재하고 3~4배수의 희망자를 접수한 후 강아지 생산 시 입양 환경을 고려하여 분양자를 선정하고 있다.

## 1.7. 반려동물 수출입 현황

2010~2016년 주요 반려동물 검역실적을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 모두 수출입 실적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개 수출 마릿수는 12,687마리, 수입 마릿수는 13,821마리였으며, 고양이 수출 마릿수는 2,229마리, 수입 마릿수는 2,609마리였다.

2016년 기준으로 개와 고양이 수입 마릿수가 수출 마릿수에 비해 많았

지만, 수출 마릿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개와 고양이가 각각 8.7%, 12.5%로, 수입 마릿수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양이의 수출 마릿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개의 연도별 수출입실적도 검역실적과 유사하게 수출 부문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 수출 금액은 82만 달러 수준으로 개 수입 금액의 292만 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를 마리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출은 65달러/마리 수준이나 수입은 211달러/마리 수준으로 개 수출 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연도별 반려동물 검역실적

단위: 건, 마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개	수출	건수	6,259	7,110	7,433	6,892	7,503	8,879	10,196	8.5%
		마릿수	7,710	8,746	8,650	7,895	8,760	10,573	12,687	8.7%
	수입	건수	5,588	7,171	6,877	5,791	6,437	6,623	6,701	3.1%
		마릿수	11,224	15,393	13,255	11,029	12,545	13,044	13,821	3.5%
고양이	수출	건수	955	1,123	1,326	1,463	1,651	1,720	1,884	12.0%
		마릿수	1,101	1,326	1,525	1,736	1,901	2,050	2,229	12.5%
	수입	건수	1,386	1,326	1,251	1,111	1,233	1,535	1,558	2.0%
		마릿수	2,431	2,114	1,880	1,688	1,861	2,415	2,609	1.2%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 및 축산물 검역통계([http://eminwon.qia.go.kr/statistics/statistics\\_No1.jsp?action=search](http://eminwon.qia.go.kr/statistics/statistics_No1.jsp?action=search): 2017. 6. 15.).

〈표 2-10〉 연도별 개 수출입실적

단위: 천 달러, kg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수출	금액	282	248	406	534	418	515	821	19.5%
	중량	6,873	7,081	9,185	10,339	11,588	23,590	32,643	29.7%
수입	금액	2,120	2,905	2,206	2,024	2,583	2,383	2,921	5.5%
	중량	28,267	32,217	27,349	25,598	30,943	26,781	30,978	1.5%

주: 품목명 '산동물' 중에서 개에 해당되는 코드번호 0106191000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2017. 6. 15.).

## 1.8. 반려동물 사육, 생산, 유통, 유기 문제점

### 1.8.1. 반려동물 생산, 유통, 사육 등 기초 통계자료 미비

반려동물의 생산 마릿수, 생산업체수, 유통 마릿수, 유통업체수, 사육 마릿수, 품종 등 반려동물과 연관산업의 보호, 육성,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미흡하여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초 통계라 할 수 있는 사육 마릿수에 대해서는 전국 2,000~3,000가구를 표본조사하여 가구 수와 평균 사육 마릿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기초통계 자료부족은 반려동물 관련업계의 사업투자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하여 연관산업 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8.2. 반려동물 사육 시 동물 학대와 유실·유기 지속 발생

반려동물을 굶기거나 소홀히 관리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 학대행위가 TV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발(일명 강아지공장 등)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려동물 생산을 위한 사육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며, 일부 생산농가는 불법적인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생산하고 있어 언론과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학대와 관련한 고발 및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1〉 동물학대 행위 고발/기소 건수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발/기소(건수)	160/70	271/131	287/115	-
유실·유기동물(천 마리)	97.2	81.2	82.1	89.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12. 14.).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비용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 및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1년에 약 8



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1.8.3. 반려동물 생산업의 규제 강화로 불법적 생산 증가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해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현재 미신고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신고업체도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향후 축산업 허가제 강화에 대비하여 허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꺼리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유권해석에서 무허가축사 면적에 대해 소, 젓소, 말 100~400㎡, 돼지 50~400㎡, 닭, 오리, 메추리는 200~600㎡ 이내의 무허가시설은 전체 축사규모에 관계없이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규제가 유예되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례적용은 2018년 3월 24일까지로 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만 적법화가 가능하다(환경부 2017).

반려동물생산업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반려동물생산업 신고 접수 또는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사육제한구역 여부, 민간인 거주시설과의 거리제한 등 제약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지만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반려동물 사육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결과 반려동물 생산업체 708개소 중 33.3%인 236개소만 신고된 상황이다.

### 1.8.4. 어린 반려동물 유통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와 소비자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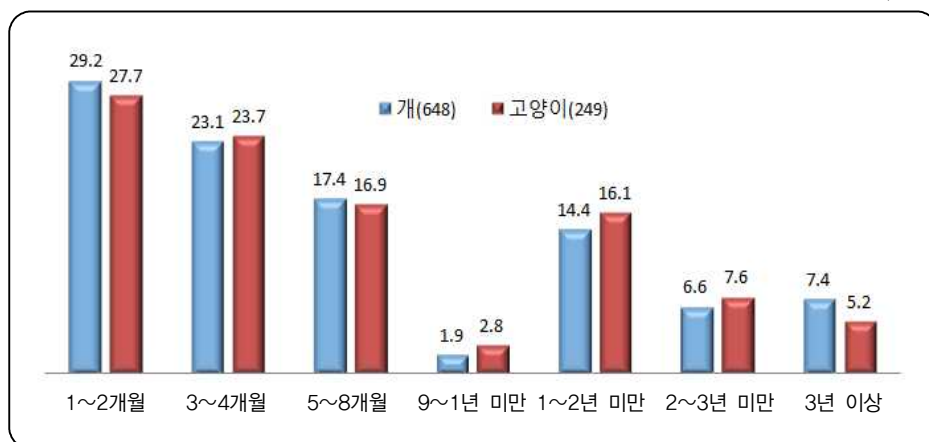
전문 브리더들은 강아지를 약 3개월 양육한 후 판매하지만, 일부 애견숍은 1달 내외의 미성숙한 새끼를 판매하므로 유전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모견의 보호아래 면역력 증강, 사회성 습득 등 건강한 발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질병 발생 애견에 대한 병원비 부담 등으로

유기견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입양비율이 8.2%나 차지하고 있는데,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 배달과정에서 폐사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다.

소비자 조사결과, 개는 29.2%, 고양이는 27.7%가 2개월 이하의 나이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할 경우 질병에 걸렸거나 폐사할 경우 환불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이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6〉 개와 고양이의 입양 시기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2017. 8.).

### 1.8.5. 반려동물의 식육견으로 이용

대부분의 반려동물 생산자들은 반려동물의 혈통보존보다는 반려동물 생산을 통한 수익 증대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반려동물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경매장에 출하하면 현금화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매장이 반려동물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위축 시 또는 과잉생산으로 판매가 부진하면 경매가 유찰되고, 유찰된 반려견이 식육견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1.8.6. 낮은 동물등록 현황

동물등록제는 동물 분실 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또는 동물의 유기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보험가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 등록에 따른 비용, 내장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동물등록은 2016년 기준 전체 약 540만 마리의 개 중 약 19.8%인 107만 마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 1.8.7. 반려동물 공격 등 펫티켓 갈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와 반려동물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펫티켓의 부족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연평균 33.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는 1,488건이나 발생하였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에 불과하여 다른 맹견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동아일보 2017).

〈표 2-12〉 연도별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 건수

단위: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245	560	616	676	1,488	1,019	33.0%

자료: 한국소비자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ciss.go.kr/www/index.do>: 2017. 7. 17.).

## 2. 반려동물 사료산업 현황

### 2.1. 반려동물 사료 생산 현황

펫사료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수분이 10% 미만이며 1년간 보관이 가능한 건사료, 둘째, 수분함량이 75%인 페이스트 형태로 주로 캔에 포장되어 있는 습식사료, 셋째, 간식류 등 트릿이 있다. 건사료와 캔사료는 대형회사에서 주로 생산되며 트릿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주 생산자이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업체 수는 2005년 650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320여 개, 2015년에는 2,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황명철 외 2013, 한국펫사료협회 홈페이지).

국내 펫사료 생산현황 통계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수집되고 있으나 양축용 사료와는 달리 펫사료협회 회원사들이 사료생산실적을 협회에 제공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펫사료 생산통계가 집계되지 않는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양축용 개 사료와 애완동물 사료 생산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실적은 2015년까지 애완동물 항목으로 통합된 사료 생산실적을 발표하다가 2016년 1월부터 애완동물 사료 생산실적을 애완견과 애완고양이로 분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표 2-13〉 반려동물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양축용 개	186,612	180,886	177,476	173,943	183,697	108,287
애완동물	5,132	5,955	7,188	9,874	22,737	67,690
개	-	-	-	-	17,662	47,293
고양이	-	-	-	-	5,051	20,366

주: 2017년은 1~9월 실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배합사료 생산 및 가격 통계』.

연간 식용으로 도축되는 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양축용 개 사료 생산실적을 오로지 식육견만을 위한 사료 생산실적으로 분류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 또한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역시 한국펫푸드협회 추정치 및 여러 연구소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sup>10</sup>

한편 동물용 사료생산과 관련한 통계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애완동물사료 사업체 중 10인 이상 사업체는 2011년 16개에서 2014년 24개로 연평균 14.5%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해당 사업체 전체의 생산액은 1,763억 원에서 2,213억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다.

〈표 2-14〉 애완동물사료 사업체 수 및 생산액과 연말 재고액(10명 이상)

단위: 개, 백만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사업체수	16	21	22	24	14.5%
생산액	176,349	166,841	179,464	221,297	7.9%
연말 재고액	3,215	5,387	3,099	2,909	-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국내에서 생산된 펫사료의 최종 판매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며, 사료공장에서 5,000원/kg에 대형유통업체 또는 대리점으로 납품하면 펫숍이나 대형유통업체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00원/kg 이상으로 제조원가의 2배 수준의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다.

〈표 2-15〉 유통단계별 사료가격

원재료비	제조원가 (공장도가격)	대리점 판매가격	펫숍, 대형유통업체 판매가격
2,000원/kg	4,000~5,000원/kg	7,000~8,000원/kg	10,000~12,000원/kg

자료: 사료생산업체 담당자 면접조사.

<sup>10</sup> 한국펫푸드협회에서 추정한 2015년 기준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량은 140,600톤이다.

## 2.2. 반려동물 사료 수출입 현황

### 2.2.1. 반려동물 사료 수출 현황

반려동물용 사료 수출량은 2011년 5,094톤에서 2016년 6,613톤으로 연평균 5.4% 증가하였으며, 사료 수출액은 2011년 1,257만 달러에서 2016년 1,352만 달러로 연평균 1.5%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며, 2015년 이후 인도네시아, 홍콩, 가나, 베트남, 미국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개 사료 수출량은 2011년 1,241톤에서 2016년 1,367톤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으며, 수출단가 상승으로 사료 수출액은 2011년 314만 달러에서 2016년 386만 달러로 연평균 4.2%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사료 수출량에서 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4.4%에서 2016년 20.7%로 감소하였으나, 반려동물 사료 수출액에서 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5.0%에서 2016년 28.6%로 증가하였다.

〈표 2-16〉 반려동물 사료 수출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	수출량(톤)	1,241	1,064	1,445	1,745	1,493	1,367
	금액(천 달러)	3,144	3,465	3,633	4,526	4,198	3,860
	단가(달러)	2.53	3.26	2.52	2.59	2.81	2.82
고양이	수출량(톤)	3,853	5,047	3,198	4,676	4,994	5,246
	금액(천 달러)	9,421	12,341	6,845	8,779	8,738	9,625
	단가(달러)	2.44	2.44	2.14	1.88	1.75	1.84
반려동물 합 계	총량(톤)	5,094	6,111	4,642	6,421	6,488	6,613
	금액(천 달러)	12,565	15,806	10,478	13,305	12,936	13,518
	단가(달러)	2.47	2.59	2.26	2.07	1.99	2.04

자료: 관세청(각 연도). 『수출입 무역통계』.

고양이 사료 수출량은 2011년 3,853톤에서 2016년 5,246톤으로 연평균 6.4%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 하락으로 사료 수출액은 2011년 942만 달러

에서 2016년 966만 달러로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사료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고양이 사료 비중은 2011년 75.6%에서 2016년 79.3%로 증가하였으나, 반려동물 사료 수출액에서 고양이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5.0%에서 2016년 71.4%로 감소하였다.

## 2.2.2. 반려동물 사료 수입 현황

반려동물용 사료 수입량은 2011년 3만 6,308톤에서 2016년 5만 3,292톤으로 연평균 8.0% 증가하였으며, 사료 수입액은 2011년 1억 113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7,133만 달러로 연평균 11.1% 증가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호주, 중국, 프랑스, 태국 등이며, 최근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에서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 사료 수입량은 2011년 2만 2,978톤에서 2016년 3만 7,756톤으로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사료 수입액은 2011년 8,633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2,529만 달러로 연평균 7.7% 증가하였다. 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 수입량에서 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2.6%에서 2016년 70.8%로 감소하였으며,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개 사료 비중 역시 2011년 85.4%에서 2016년 73.1%로

〈표 2-17〉 반려동물 사료 수입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	수입량(톤)	29,978	29,318	29,750	30,109	34,092	37,756
	금액(천 달러)	86,332	92,036	98,665	100,697	110,323	125,292
	단가(달러)	2.88	3.14	3.32	3.34	3.24	3.32
고양이	수입량(톤)	6,330	8,243	9,728	11,845	13,773	15,537
	금액(천 달러)	14,800	20,656	25,754	32,169	37,622	46,035
	단가(달러)	2.38	2.51	2.65	2.72	2.73	2.96
반려동물 합 계	총량(톤)	36,308	37,561	39,478	41,954	47,865	53,292
	금액(천 달러)	101,132	112,692	124,419	132,866	147,945	174,327
	단가(달러)	2.76	3.00	3.15	3.17	3.09	3.21

자료: 관세청(각 연도). 『수출입 무역통계』.

감소하였다.

고양이 사료 수입량은 2011년 6,330톤에서 2016년 1만 5,537톤으로 연평균 19.7% 증가하였으며, 수입단가 상승으로 사료 수입액 역시 2011년 1,480만 달러에서 2016년 4,604만 달러로 연평균 25.5%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량에서 고양이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7.4%에서 2016년 29.2%로 증가하였으며,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에서 고양이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4.6%에서 2016년 26.9%로 증가하였다.

### 2.3.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최근 동향<sup>11</sup>

최근 세계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트렌드는 사료(feed)에서 식품(Pet food)으로, 반려동물의 인간화(Pet Humanization),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 시장 세분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의 인간화로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의 음식을 사료가 아닌 식품으로 인식하여 반려동물에게 보다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의 고급화 및 원료의 다양화, 굵기, 찌기, 조리기 등 조리법의 다양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반려동물 사료에도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유산균 등 기능성 원료가 첨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능성 원료가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하여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동물성 원료 비율의 증가 및 유기농 원료 함량 증가와 더불어 곡물 미첨가(Grain free)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곡물사료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

<sup>11</sup>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홍석 외 2017)의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협력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는 반려동물의 보호자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곡물 미첨가 사료와 더불어 동물성 원료 및 유기농 원료 비중이 높은 사료가 반려동물에게 더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 확산에 따라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동결 건조 또는 원물 형태의 생식 가능한 냉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소비자의 시장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습성, 훈련방법, 수제간식 제조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의 라벨을 통해 사용원료의 종류와 특성, 영양성분의 적합성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사용원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시장에서 검사 및 위생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증가와 함께 생활수준 향상,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밀리(Petmily) 확산 등으로 반려동물에게 단순히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아닌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는 펫푸드(Pet Food)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펫푸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펫푸드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4.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문제점

### 2.4.1.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사료 관리의 한계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에 적용되는 「사료관리법」은 축산업용 가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려동물용 사료산업의 특징과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 고급사료의 경우 영양분 비중은 표시하고 있으나 원료의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아 소비자가 실제 사용된 원료의 함유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 2.4.2. 국내산 펫푸드의 경쟁력 열위

미국 등 선진국의 펫사료는 매년 신형 원료, 신형 사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펫사료는 국내법 규정상 식품으로 제조·등록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국내 펫푸드 시장은 로열캐넌, 시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Mars, 네슬레, 텍사스 팜 등 해외 브랜드업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는 대부분 중저가품으로 최근의 반려동물 사료 고급화 추세에 뒤쳐진 상태이다(박완주 의원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 2.4.3. 국내산 원료 확보의 한계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고급화를 위해 품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 원료 사용이 필요하지만 국내산 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역상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료용 원료육을 수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 2.4.4. 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의 미흡

반려동물용 사료 생산량 및 생산액 통계가 미흡하여 연구자별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 추정치가 서로 달라 산업현황 분석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2.4.5. 국내산 반려동물 사료의 제도적 역차별

반려동물용 사료의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병행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산 사료는 한자나 외국어가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없는 반면, 수입사료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3. 반려동물 수의 및 보험 서비스 시장 현황

#### 3.1.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시장 현황

수의업의 사업체 수는 2007년 2,945개소에서 2014년 3,640개소로 연평균 3.1%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5,992명에서 10,534명으로 연평균 17.9%씩 증가하였다. 사업체(동물병원)당 종사자 수가 2007년 2.0명에서 2014년 2.9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동물병원의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수의업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종사자 수(명)	5,992	6,368	6,884	7,901	8,598	9,832	10,534	8.4
매출액(억 원)	2,484	3,289	3,422	4,645	5,942	6,976	7,855	17.9
사업체 수(개)	2,945	2,970	3,018	3,208	3,323	3,521	3,640	3.1

자료: 통계청(kosis.kr: 2017. 6. 15.)-도소매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수의업의 매출액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은 2007년 2,484억 원에서 연평균 17.9%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7,855억 원이었다. 수의업 사업체당 매출액은 2007년 8,436만 원에서 2014년 2억 1,57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수의업 매출액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6.4%에서 2014년 83.4%로 증가하였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의업 중 반려동물 부분의 매출액은 2011년 3,549억 원에서 2014년 6,55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19〉 수의업 매출액의 분야별 비중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반려동물	76.4	80.9	83.0	83.4
산업동물	23.6	19.1	17.0	16.6

주: 통계청 자료는 애완동물로 표기됨.

자료: 통계청(kosis.kr: 2017. 6. 15.)-도소매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우리나라 수의사 면허 보유자는 총 19,001명인데, 비근로자와 미신고(사망 포함) 등을 제외하면 1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임상수의사가 6,50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2,035명, 수의 관련 산업 종사자가 809명, 학계가 731명, 공중방역수의사가 471명이다. 전국의 10개 수의과대학 정원은 3,006명(학년별 501명)이며, 2016년 1월 현재 3,373명이 재학 중이다.<sup>12</sup> 연간 수의사는 545명(최근 3년 평균)<sup>13</sup>이 배출되고 있다.

〈표 2-20〉 수의사 현황(2017년 7월 기준)

구분	총 면허자	임상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수의관 련산업	학계	축산물 위생	유관 기관	비 근로자	타 업종	기타
인원(명)	19,001	6,508	2,035	471	809	731	272	380	2,457	296	5,042
비율(%)	100.0	34.3	10.7	2.5	4.3	3.8	1.4	2.0	12.9	1.6	26.5

주: 기타에는 농장, 군진, 재외거주, 미신고(사망 포함) 등이 포함됨.

자료: 우연철(2017. 7. 13.).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 말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수는 4,174개소이며, 이 중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이 71.7%를 차지하고, 산업 동물병원은 16.8%,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을 동시에 진료하는 동물병원은 11.5%를 차지한다.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는 6,184명으로, 이 중 74.5%가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14.0%는 산업동물을 진료하고, 11.5%는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을 함께 진료한다.

〈표 2-21〉 전국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2016년 말 기준)

구분	동물병원		수의사	
	개소	비중(%)	명	비중(%)
반려	2,991	71.7	4,609	74.5
산업	702	16.8	864	14.0
혼합	481	11.5	711	11.5
합계	4,174	100.0	6,184	100.0

자료: 우연철(2017. 7. 13.).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up>12</sup> 대한수의사회(2016). “수의업 현황 및 정책과제 제안.” 기획재정부 TF 회의자료

<sup>13</sup> 데일리벳(2017. 1. 4.). “들쭉날쭉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이번에는 어떨까.”

## 3.2. 수의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 3.2.1.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과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 과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sup>14</sup>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병원 진료비 수준에 대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91.4%가 “비싸다” 또는 “매우 비싸다”라고 응답하였다.

수의계는 동물병원 진료비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환자가 개인부담금(진료비의 약 15%)만을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의료비와 단순 비교에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sup>15</sup> 소비자교육중앙회<sup>16</sup>의 동물병원(25곳) 비용 조사에 의하면, 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5.3~6.7배, 접종비는 5~8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마다 비용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3.2.2. 동물진료 수요에 대응한 수의보조 전문 인력 부족<sup>17</sup>

수의업의 매출액 신장 속도가 매우 빠르는데 비해 수의업 종사자 수의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현재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를 고려하면, 동물진료 업무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향후 늘어나는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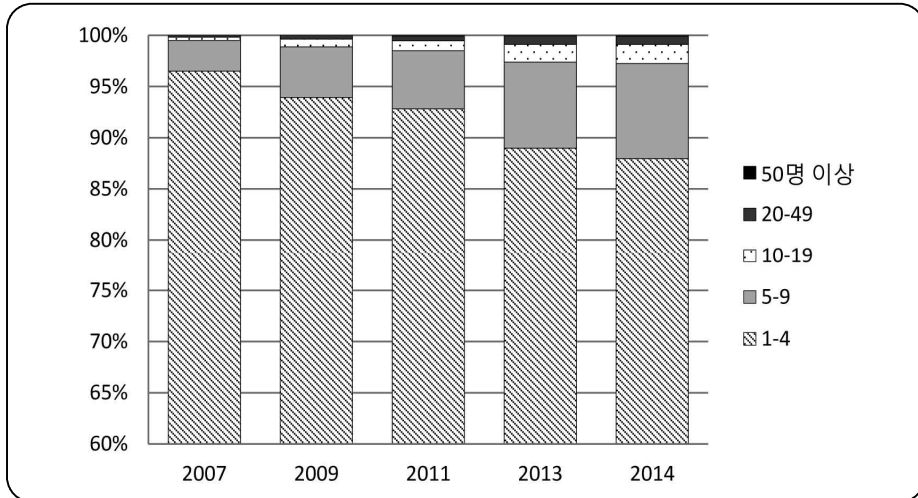
<sup>14</sup> 데일리벳(2017. 1. 10.).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필요성 설문조사, 79% ‘진료비 조사 필요해’.”

<sup>15</sup>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 대한수의사회(2016. 1.). “동물의료체계 및 동물진료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TF 회의자료

<sup>16</sup>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2017. 1. 5.). “반려동물판매가격 최고가와 최저가 5.8배 가격차이나, 동물병원비용 가격 천차만별.”

<sup>17</sup> 김현중 외(2016).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2-7〉 수의업 종사자 수 비중



자료: 김현중 외(2016) 재인용(통계청-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동물의 혈액 검사, 전해질 검사, 심전도 검사, 호르몬 검사, 내시경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일괄 진행하는 반려동물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물병원이 존재하고, 반려동물 스케일링, 보철, 치아교정 등의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 등 다양한 동물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동물병원이 규모화되는 추세에 따라 동물간호복지사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 수 5인 이상의 비율이 2007년 3%에서 2014년 12%로 증가하였다. 수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물 진료 업무를 동물간호사에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면 수의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동물 진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동물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 동물 간호 인력으로는 일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애완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과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 인력들은 주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 진료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 의료 분야의 간호사처럼 채혈, 접종, 검사 등의 실질적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일부 대학의 동물간호학과, 수의간호전공, 애완동물

관리과, 특수동물학과 등에서는 동물 간호학, 동물기초간호, 반려동물 간호학, 동물해부학 및 실습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운영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12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기준 2,368명이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국동물복지학회는 동물간호복지사의 국가자격제도 논의로 2016년부터 자격시험을 중단한 상황이다.

### 3.2.3. 동물의료 체계 미비로 과잉 진료 및 과다 진료비 책정 가능성

「수의사법」에는 과잉진료 행위 허가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면허의 취소나 면허효력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수의사법」 제32조). 현재 동물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동물병원에 따라 병원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 후반 대한수의사회 주도로 표준진료비 지침을 만들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제제한 바 있다.<sup>18</sup>

### 3.2.4. 동물 의료 사고 발생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의 진료 행위로 인하여 동물이 죽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동물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는 사람의 의료분쟁과 달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하므로 동물 의료 사고에 의한 피해 구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사람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수수료를 납부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sup>19</sup>

<sup>18</sup> 대한수의사회(2016. 1.). “동물의료체계 및 동물진료비 등에 대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

### 32.5. 자가진료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및 동물 건강 위협 우려

2016년 5월 강아지 번식장에서의 제왕절개 등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당시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정부는 동물학대와 동물 건강 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령을 2016년 12월 30일 개정하였다.

2017년 7월 1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었다.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시행 이후,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가축 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으로 조정하였다. 즉 자가진료의 허용을 산업동물로 한정하였다. 다만,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자라도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예방 목적의 동물약품 투약하는 행위, 수의사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투약하는 행위, 그밖에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 행위는 가능하다.<sup>20</sup>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백신 등의 주사 투약은 가능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주사 투약 행위로 인해 자칫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 중 13.1%가 반려동물에게 주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반려동물에게 직접 주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7.6%를 차지하였다.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수의업계에서는 피하주사 허용은 동물학대 및 동물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동물약품업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 증가를 들어 수의업계의 밥그릇 챙기기라

<sup>19</sup> 대한수의사회. 2016. 1. “동물의료체계 및 동물진료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

<sup>20</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6. 26.).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17. 7.1.).”



고 비난하는 등 수의업계와 동물약품업계 간 갈등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 사례집을 통해, 주사 투약 행위는 수의사 진료 후 수의사가 직접 행할 것을 권고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6. 26.).

### 3.3. 반려동물 보험서비스 시장 현황

#### 3.3.1. 반려동물 보험상품 판매회사

현재(2017년 5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이다. 과거 LIG손해보험(현재 KB손해보험), AIG 손해보험에서도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였으나 손해를 악화로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였다.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다.

〈그림 2-8〉 반려동물 보험 판매 회사



주: LIG손해보험은 2015년 6월 KB금융그룹에 인수되면서 KB손해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진영운(2017. 5. 30.). “애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3.2. 보험 상품 내용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보험은 기본 1년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하며, 주로 강아지가 대상이다(롯데 보험은 고양이도 포함). 가입 가능한 연령은 6세 또는 7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치료비를 주로 보장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배상책임(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타인의 동물 상해), 장례비까지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 예방접종, 선천적 질병,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 슬개골 탈구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상 비율은 상품 내용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의 50~80% 수준이며, 치료비 보장 한도 금액은 500만~740만 원이다.

롯데손해보험의 펫보험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입 대상이고, 1년 동안 보장되는 상품으로 만 6세를 초과하면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강아지의 경

〈표 2-22〉 회사별 반려동물 보험 상품

구분	보험 상품 판매 회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상품명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	하이펫보험	롯데 마이펫보험
보험기간	1년(매년 갱신가능)	1년(매년 갱신가능)	1년(매년 갱신가능)
가입대상	강아지(반려동물 등록)	강아지(반려동물 등록)	강아지(반려동물 등록), 고양이
가입가능연령	만 6세까지	만 7세까지	만 6세까지
주요보장	상해, 질병 치료비 (수술, 입원, 통원)	애견 치료비	상해, 질병 치료비 (수술, 입원, 통원)
	법률상 배상 책임	배상 책임, 장례비	
보상비율	70%	60%, 70%, 80%	50%, 70%
주요면책사유	예방접종, 선천적 질병, 기왕증, 슬개골 탈구(소형견), 중성화 등	예방접종, 선천적 질병, 기왕증, 슬개골 탈구(소형견), 중성화 등	예방접종, 선천적 질병, 기왕증, 슬개골 탈구(소형견), 중성화 등
보장금액	보상한도 500만 원	보상한도 500만 원	보상한도 740만 원
	배상책임 100만 원	배상책임 500만 원 장례비 15만 원	

자료: 진영운(2017. 5. 30.). “애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상품으로는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의 7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종합형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의 7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수술입원형이 있다.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종류(강아지, 고양이)와 연령에 따라, 강아지의 크기 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반려동물이 “미디엄 푸들” 중형견(2015년 1월 1일 생)이고, 종합형의 최소 가입 금액(수술 50만 원/1회, 입원 5만 원/1일, 통원 5만 원/1일)을 선택할 경우의 보험료는 연간 535,080원이다. 종합형의 최고 가입금액을 선택할 경우(수술 150만 원/1회, 입원 10만 원/1일, 통원 10만 원/1일)의 보험료는 연간 857,150원이다. 동일한 대상으로 수술입원형의 최소 가입 금액과 최고 가입 금액을 선택할 경우의 보험료는 연간 130,260~221,530원이다.

〈표 2-23〉 반려동물 보험 상품 예시(롯데 마이펫 보험)

보장 내용	종합형		수술입원형	
	보장한도	가입금액	보장한도	가입금액
수술치료비 (1회당)	2회 한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회 한도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입원치료비 (1일당)	22일까지	5만 원, 10만 원	22일까지	5만 원, 10만 원
통원치료비 (1일당)	22일까지	5만 원, 10만 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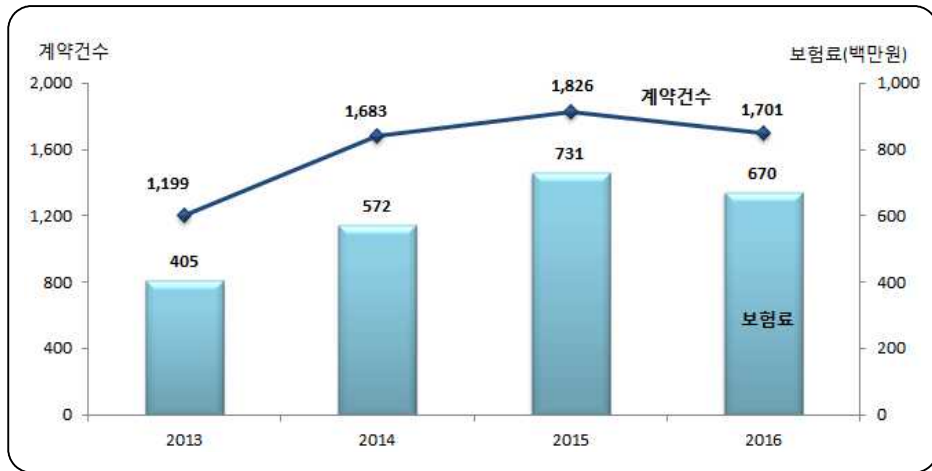
자료: 롯데하우머치(<http://www.lottehowmuch.com>-2017. 6.12.)에서 인용.

### 3.3.3. 반려동물 보험 가입 현황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2013년 1,199건에서 2015년 1,826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1,701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보험료 총액은 2013년 4억 500만 원에서 2015년 7억 3,1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 6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건당 보험료는 39만 원(2016년 기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보험 계약 건수의 가입률은 동물등록제 등록 건수 (107만 마리) 대비 0.16%에 불과하다.

〈그림 2-9〉 반려동물 보험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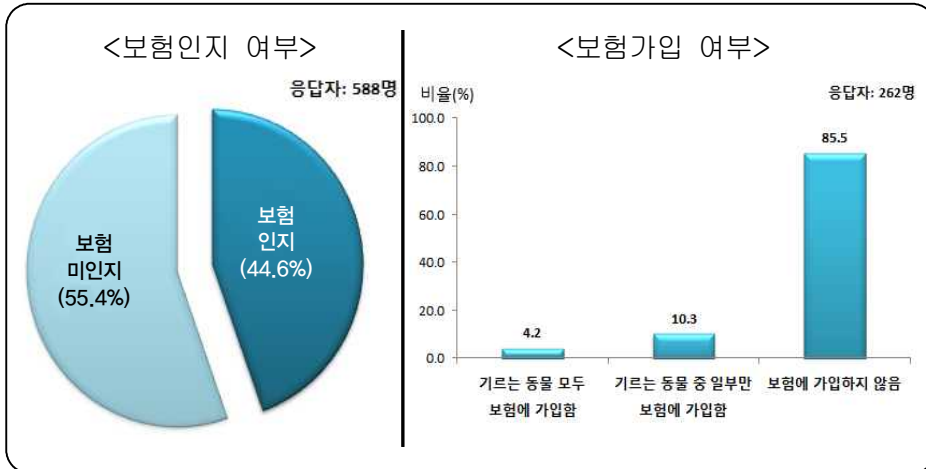
자료: 지연구(2017. 7. 13.).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4. 반려동물 보험서비스 시장의 문제점

#### 3.4.1.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저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전반에 걸쳐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려동물 보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 중인 세 개 회사의 보험 가입률은 반려동물 등록 마릿수의 0.16%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 588명 중 44.6%인 262명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동물 보호자 비율이 85.5%에 달한다. 연간 마리당 보험료는 개의 경우 187,878원, 고양이의 경우 20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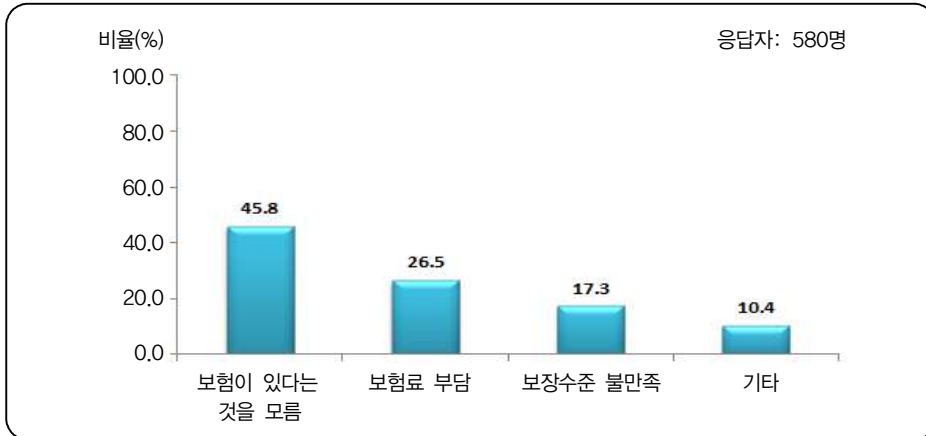
〈그림 2-10〉 반려동물 보험 인지 여부 및 보험가입 여부



자료: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2017. 8.).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지극히 저조한 이유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보험 상품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 상품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며, 보장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조사 결과, 반려동물 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5.8%는 “보험을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26.5%, “보장 수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7.3%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연령, 동물의 크기, 품종, 보장내용에 따라 적게는 1년에 10만 원 수준에서 많게는 80만 원을 초과하였다. 현행 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 만기에 환급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사고시 보험료 소멸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보험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도 있다. 보장 비율이 50~80% 수준으로 낮고, 선천적 질병, 예방접종, 치아 진료, 중성화 수술 등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 반려동물 보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림 2-11〉 반려동물 보험 미가입 이유



자료: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2017. 8.).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수요는 반려동물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반려동물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보니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고, 보험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비자조사 결과, 7세 이상의 반려견을 사육하는 비율이 27.6%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낮아, 보험 판매자들이 보험 상품 판매나 홍보에 소극적인 것도 보험 시장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건수와 가입률을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일본에서의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106만 여 건(5%)이고, 영국과 미국의 보험 가입률은 각각 20%, 10%를 차지한다.<sup>21</sup>

### 3.4.2. 반려동물 보험 상품 판매사의 높은 손해율

그동안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했던 회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고, 현재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인

<sup>21</sup> 농림축산식품부(2016. 1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3개사도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롯데손해보험의 2014년과 2015년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1억 7,775만 원과 1억 5,500만 원인데, 지급 보험금은 원수보험료보다 훨씬 높아 손해율이 195~2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롯데 마이펫보험 판매실적과 손해율

구분	판매건수(건)	원수보험료(만 원)	건당보험료(만 원)	손해율(%)
2014년	761	17,775	23	194.9
2015년	697	15,500	22	241.7

자료: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롯데손해보험, 2016. 3. “반려동물 보험산업의 활성화 방안”).

이와 같이 보험사에서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동물병원의 의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동물병원에 따른 진료비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도덕적 해이도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려동물의 등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하나의 보험으로 외모가 비슷한 반려동물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령을 속이고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김세중 2015).

동물병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과다한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의료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세중 2015).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가 어렵게 되어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4.3. 동물등록제도 개선 필요

2014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다(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동물등록 건수가 2013년 48만 건에서 2016년 말 10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반려견 사육 마리수 632만 마리(추정치)를 가정하면 등록률이 17%에 불과하다. 최근 반려묘(243만 마리 추정)를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 고양이는 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대상을 고양이로 확대하고 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보험 대상의 식별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장형과 인식표 부착을 통한 동물 등록은 피보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신규 등록 비율이 2013년 30.6%에서 2016년 65.5%<sup>22</sup>로 높아지고 있지만, 개체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내장형 등록 비율 확대와 더불어 DNA 등 등록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4.4.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곤란과 적극적인 보험 상품 개발 미흡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반려동물이 얼마나 자주 병원을 방문하고, 얼마나 비용을 지출하는지에 대한 기초 통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보험가입 반려동물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보험 가입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빈도 예측이 곤란하고 사전에 예측한 발생 빈도와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진료항목별 비용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물 진료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병원마다 진료 금액이 큰 차이가 있어 보험상품 개발이 미흡하며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물 의료분야에는 진료항목별 표준수가제, 진료코드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sup>22</sup>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6. 12.). “16년 유실·유기동물 9만마리 구조·보호, 지난 해 대비 9.3% 증가.”



## 4. 반려동물 기타 서비스 시장 현황

### 4.1. 반려동물 관련 기타 서비스업 현황

「동물보호법」 제32조에는 반려동물 장묘업, 반려동물 판매업, 반려동물 수입업, 반려동물 생산업, 반려동물 전시업,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반려동물 미용업, 반려동물 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기타서비스업에는 반려동물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등이 해당된다.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에 의하면 2014년 국내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14년 4,099개, 종사자 수는 6,974명, 매출액은 3,849억 원으로 각각 연평균 12.3%, 14.6%, 10.2%씩 증가하였다.

〈표 2-25〉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와 매출액

단위: 개, 명, 백만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감률
사업체수	2,898	3,195	3,582	4,099	12.3%
종사자수	4,629	5,301	6,054	6,974	14.6%
매출액	287,408	309,876	358,210	384,855	10.2%

자료: 통계청(각 연도). 『도소매업조사』.

### 4.2.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자격취득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은 총 111건으로 (사)한국애견연맹, (사)한국애견협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 자체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쳐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은 없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유형은 크게 미용, 아로마, 관리·지도, 장례, 애견용품, 의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26〉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현황

자격명	자격관리기관(공동발급기관)
고양이반려전문가	반려동물문화교육원
그루머(애견미용사)	한국반려동물총연합, 한국그루머협회, ((사)한국애견연맹)
반려견미용사	(사)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반려견스타일리스트(심사위원)	(사)한국애견협회
반려견아로마D.I.Y전문가	글로벌아트협회
반려견종합관리사	(재)한국삼살개재단
반려견지도사(훈련사)	(사)한국애견협회, ((재)한국삼살개재단)
반려동물건강지도사	한국통합교육지원센터
반려동물관리사	(사)한국수공예협회, 한국반려동물자격협회, 한국반려동물산업진흥원, (주)한국원격교육진흥원, 한국인재사회교육협회, (사)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주)한국교육진흥협회, (주)한국사이버진흥원, 한국전문지도사협회, 한국자격개발협회,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주)한국자격교육협회, 한국자격총연합, (주)휴넷, 한국자격검정진흥원, 민간자격인증원, 해전 수의테크니션 반려동물관리학원,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 한국전통힐링문화협회, (주)한국인재개발원, (주)한국자격개발원, (주)한국자격관리협회, 대한반려동물관리협회, (주)한국자격평가원,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노인복지사협회, (주)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상담사	한국심리상담복지교육개발원
반려동물관리애견미용사	대한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지도사	한국직업능력자격협회
반려동물교감사	한국인재사회교육협회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한국반려동물산업진흥원,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
반려동물목욕관리사	(사)한국애견협회
반려동물미용사(미용관리사)	민간자격인증원, ((주)한국자격교육협회)
반려동물산업기술자	(주)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상담사	한국동물매개치료견협회
반려동물수제간식전문가	한국동물매개치료교육원, 한국펫푸드협회
반려동물식품관리사	한국반려동물산업진흥원
반려동물심리상담사	한국심리문화교육개발원
반려동물아로마	국제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아로마강사(기초강사)	국제아로마테라피협회
반려동물아로마스페셜리스트	한국반려동물자연주의협회
반려동물아로마전문가	(주)한국아로마테라피인증학회

(계속)

자격명	자격관리기관(공동발급기관)
반려동물아로마전문강사	국제반려동물아로마테라피협회
반려동물아로마조향사	한국반려동물자연주의협회
반려동물아로마지도사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
반려동물아로마지도전문가	한국아로마디자인전문협회
반려동물아로마프랙티셔너	별사랑공방, 한국반려동물홀리스틱협회
반려동물아로마힐링터치 전문강사	국제반려동물아로마테라피협회
반려동물애견미용사	한국자격검정진흥원, 한국자격관리평가원, 대한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유치원강사	국제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장례관리사(장례플래너)	(주)한국자격개발원, (주)한국반려동물협회
반려동물장례사	(사)한국노인복지사협회, 한국자격총연합, 한국지식자원개발원,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내추럴문화평생교육원, 대한반려동물관리협회, 한국인재사회교육협회, (주)한국자격관리협회 한국심리상담복지교육개발원, (주)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장례코디네이터	한국반려동물산업진흥원
반려동물전문가	(주)웹플래너
반려동물천연비누지도사	별사랑공방
반려동물체험교육지도사	(사)한국기술경제연구원
반려동물품종심사원	민간자격인증원
반려동물행동교정사	한국반려동물자격협회,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한국반려동물산업진흥원, 한국인재사회교육협회,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주)동물과사람, 한국지식자원개발원, (주)한국자격관리협회, (주)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홀리스틱 아로마관리사	한국반려동물자연주의협회
반려동물훈련사(훈련지도사)	민간자격인증원, ((사)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반려동물힐링터치전문가	한국반려동물자연주의협회
애견브리더	(사)한국애견협회
애견용품디자이너	(사)한국애견협회, (주)코리아아츠에듀서비스
애견옷(제작지도강사)	풀입문화연합회, 대한반려동물관리협회
애견의류디자이너	한국자격관리평가원, (사)평생교육공예진흥회
애견용품지도사(제작지도강사)	(사)대한공예협회, (대한반려동물관리협회)
애견코칭지도사	(사)문화예술진흥회
KKF애견미용심사위원	(사)한국애견연맹
프로애견미용사(KTC트리머)	한국프로애견미용협회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2017. 6. 15.).

#### 4.2.1. 애견미용사

애견미용사는 반려견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목욕, 브러싱, 클리핑 등 견종별 전문 미용기술을 가진 자로서, 관련 자격증은 반려동물 관련 학과의 학부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학원에서 자격증 응시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다.

반려견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견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보호자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반려견의 청결과 건강, 아름다움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4.2.2. 훈련사

훈련사는 반려동물이 사람의 동반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사회화 과정을 교육하기 위한 훈련기술 및 기타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명구조견, 맹인안내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매개치료견, 도그쇼 출진견, 연기견 등을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훈련기술을 습득한 자이다.

훈련사 자격증은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개설한 고교 및 대학에서 양성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 훈련소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다. 반려견 중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을 초래하고 공공장소에서 배변, 공격성 표출 등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견 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문제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스타 훈련사의 등장으로 훈련사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 4.2.3. 핸들러

핸들러는 도그쇼에서 출진견과 호흡을 맞춰 견종이 최대한 표준에 가깝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기술을 취득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으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개설한 고교 및 대학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 견사나 훈련소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다.

미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도그쇼가 매주 열릴 정도로 대중화, 활성화되어있고, 전체 등록견종의 80% 이상이 순종견으로 유기견 방지 및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그쇼 개최 수와 출진견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 핸들러가 높은 소득을 올리는 신규 직업군으로 각광 받고 있다.

### 4.3. 도그쇼 관련 현황

#### 4.3.1. 도그쇼 개요

애견의 견종 표준과 순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개최되는 도그쇼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7년 7월 FCI(세계애견연맹)는 우리나라의 진도견을 포함한 총 344견종을 공인하고 있다.

도그쇼는 각 견종 특성의 기준이 되는 견종 표준을 가장 잘 갖춘 개를 선발하는 대회로, 견종별 골격 크기, 균형, 털의 상태, 걸음걸이, 성격 등 견종의 우수한 특성을 가진 개를 선발하여 혈통을 유지하고 애견 문화의 질적 향상과 각종 애견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견종 표준에 부합되는 개는 혈통 유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야 도그쇼에 참가할 수 있다(한국애견연맹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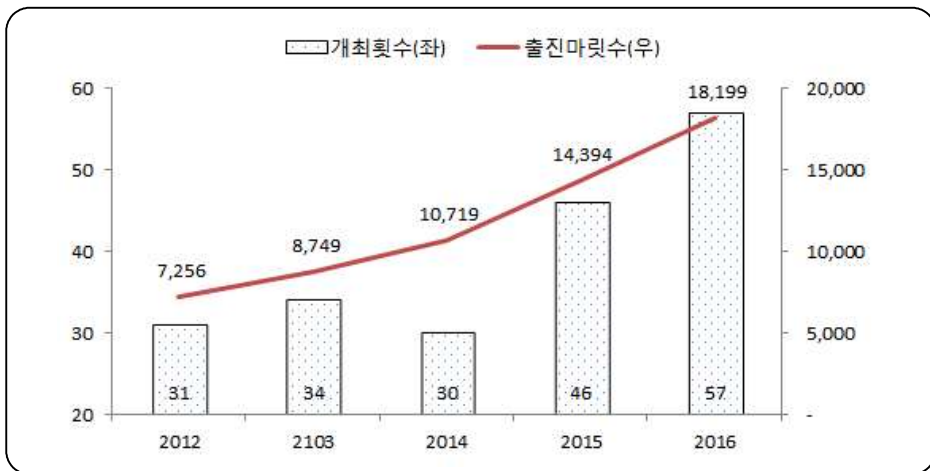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도그쇼는 영국 켄넬클럽(The-Kennel Club)이 주최하는 크러프츠(Crufts) 도그쇼, 미국 웨스트민스터 켄넬 클럽(Westminster Kennel Club)이 주최하는 웨스트민스터 도그쇼 등이 있다. 크러프츠(Crufts) 도그쇼의 경우 매년 3만 마리가 대회에 참여하며, 이 도그쇼에 삼성은 연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는 출진 마릿수와 출진자격의 엄격한 제한으로 2,000~3,000마리만 출진할 수 있으며,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등 매우 인기 있는 대회이다.

도그쇼는 반려동물 산업의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출진견을 위한 프

리미엄 맞춤 사료, 각 견종별 특성에 따른 의류, 간식, 가구, 애견 카페, 펜션 등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독일은 셰퍼드, 도베르만 등 원산지가 독일인 순종견의 수출로 매년 20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도그쇼는 전문 브리더, 전문 애견미용사, 전문 훈련사, 전문 관리사, 전문 핸들러, 고품질 사료 등 관련 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매년 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애견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 도그쇼는 2012년 31회에서 2016년 57회로 증가하였으며, 출진견 마릿수도 2012년 7,256마리에서 2016년 1만 8,199마리로 151% 증가하였다.

〈그림 2-12〉 도그쇼 개최 현황



자료: 한국애견연맹(www.thekcc.or.kr: 2017. 10. 10.).

#### 4.3.2. 도그쇼 관련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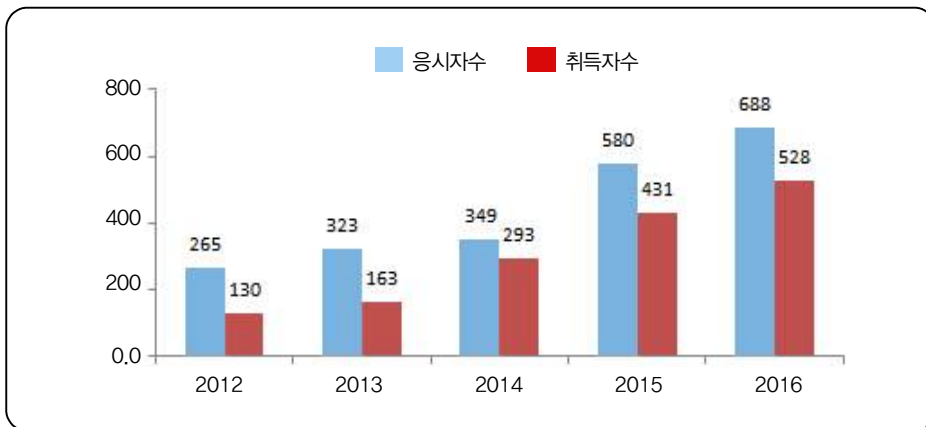
도그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1두당 5만 원의 출진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도그쇼 마니아들은 대체로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을 고객으로 하는 핸들러의 수입도 점차 증가 추세이다. 경력 및 수상 실적에 따라 미숙련 단계인 초·중급 핸들러의 월 소득은 100만~150

만 원, 출진견 위탁이나 본인견을 출진시키는 고급 핸들러는 200만~300만 원, 핸들러 전문 강사, 도그쇼 수상실적, 전문 브리더 등의 최고 전문가는 300만~1,000만 원의 월 소득이 가능하다.

도그쇼에서 출진견의 특성을 돋보이도록 컨트롤하는 애견 핸들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애견 핸들러 자격 취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한국애견연맹에서 연간 5~7회 실시하고 있는 애견 핸들러 자격검정 응시자 수는 2012년 265명에서 2016년 68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격 취득자 수 역시 2012년 130명에서 2016년 52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13〉 애견 핸들러 자격검정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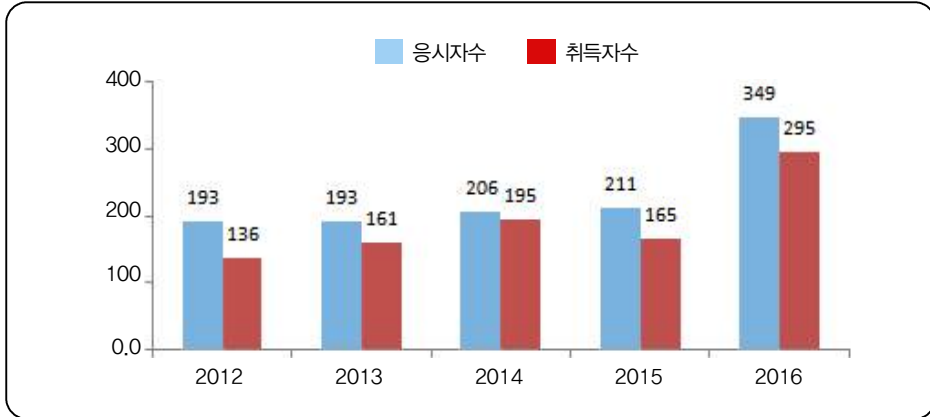
자료: 한국애견연맹([www.thekcc.or.kr](http://www.thekcc.or.kr): 2017. 10. 10.).

도그쇼 출진견을 훈련하고 일반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애견 훈련사 자격 취득자 수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정에 방문하여 문제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출장 훈련 분야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견 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해 훈련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한국애견연맹에서 연간 2회 실시하고 있는 애견 훈련사 자격검정 응시자 수는 2012년 193명에서 2016년 34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격 취득자 수 역시 2012년 136명에서 2016년 29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14〉 한국애견연맹의 애견 훈련사 자격검정 추이

단위: 명



자료: 한국애견연맹(www.thekcc.or.kr: 2017. 10. 10.).

#### 4.4.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현황

소형견을 선호하는 국내 애견문화에 의해 반려견이 실내에서 생활함에 따라 목욕과 미용관련 서비스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경력단절녀의 재취업 프로그램, 고교생의 특성화 교육 등으로 인기가 높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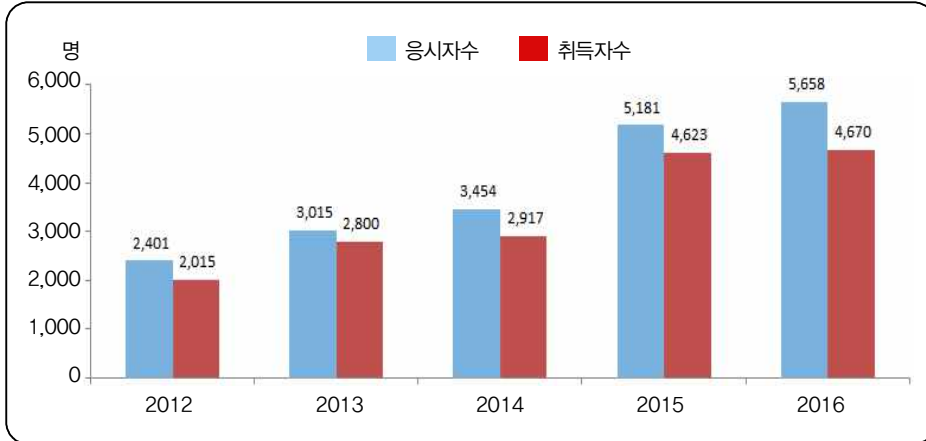
국내 반려동물 관련 미용서비스 자격증은 발급 기관에 따라 애견미용사, 반려동물미용사, 반려견미용사, 반려동물애견미용사, 그루머, 프로애견미용사 등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발행기관의 자격기준 및 숙련도에 따라 3급, 2급, 1급, 사범(강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취득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대표적인 반려견 관련 민간단체의 애견미용자격증시험에 응시한 1만 9,709명 중 1만 7,0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83%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림 2-15〉 애견미용서비스 자격증 취득 현황

단위: 명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2017. 6. 15.).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6만 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견의 무게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이용요금 책정이 가능하여 기본미용(발톱 손질, 귀청소, 얼굴 정리)의 경우 2만~5만 원, 대형견 베이싱(목욕, 샴푸, 브러싱)은 3만~30만 원, 펫 미용(클리핑 미용, 시저링 미용)은 5만~20만 원, 도그쇼 출진 견종 및 클립에 따라 쇼 미용은 20만~50만 원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한편, 반려견의 미용 서비스 항목에 아로마 테라피, 염색, 마사지 및 요가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는 추세이다.

애견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주로 동물병원에 취업하거나 애견전문 미용실, 학원에서 견습생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월 소득은 100만~150만 원 수준이며, 동물병원 애견미용사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애견미용실장의 소득은 월 700만 원 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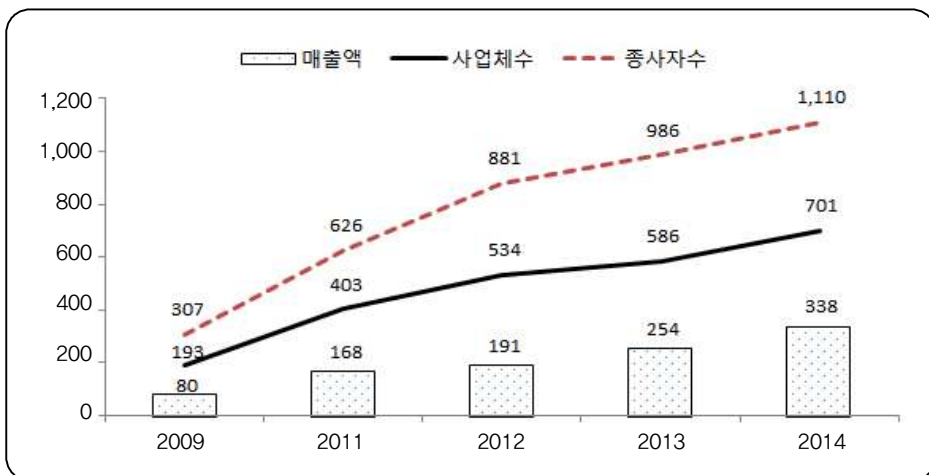
#### 4.5.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정된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체 처리 행위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 등 공중위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투기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친구로 여기는 반려문화 확산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기보다는 정중히 장례를 치르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6〉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추이

단위: 억 원, 개소, 명



자료: 통계청(각 연도). 『서비스업조사』.

통계청의 「서비스업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sup>23</sup> 사업체 수는 2009년 193개소에서 2014년 70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종사자 수 역시 2009년 307명에서 2014년 1,110명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2009년 80억 원에서 2014년 33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6년 1월 2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기준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승인기준이 적용되도록 완화되었다.

2017년 6월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 사업장 수는 24개로 경기도 10개, 부산광역시 2개, 대구광역시 1개, 광주광역시 1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등 주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장례비용은 2kg 15만 원, 5kg 20만 원, 40kg 이상 40만 원 등 사체의 무게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나 지역별, 서비스별 이용료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화장 이후 유골함에 안치하거나 메모 리얼스톤을 제작할 경우 평균 20만~40만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금전적인 부담으로 장묘업체 이용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 4.6. 반려동물 서비스시장의 문제점

### 4.6.1.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시장의 난무와 관리 부재

반려동물 관련 민간단체들은 반려동물산업에서의 영향력 행사 및 유지를 위해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sup>23</sup>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기타산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은 반려동물을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애견미용서비스, 애견미용실, 애견호텔, 애견훈련서, 반려견훈련소, 반려동물목욕서비스, 반려동물장례식장, 반려동물화장터운영, 유기견보호센터 등이 포함된다.

있으며, 발급기관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이수기준 등이 통일되지 않아 자격증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정기적인 교육 이수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수의 공신력 있는 대형 발급기관 이외에는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면 되는 민간자격증이므로 일부 발급기관에서는 수강료 할인을 조건으로 비슷한 유형의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도록 하는 등 자격증 장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017년 4월 14일, MBC 8시 뉴스).

#### 4.6.2. 도그쇼 활성화 미흡과 관련 전문가 부족

국내 애견산업 육성 및 세계화를 위해서는 견종별 혈통관리와 우수견종을 선발하는 도그쇼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그쇼는 회당 2만~3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도그쇼는 애견단체가 주최하고 국제애견단체가 후원하며 애견관련업체가 협찬하는 등 도그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반입된 혈통인증 견종은 약 140종으로 이들 견종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 전문 브리더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 4.6.3.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자격증 관리 미흡

애견미용사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나 민간자격증이라는 한계가 있다. 애견미용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애견단체의 교육을 이수한 후 필기, 실기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애견미용학원에서 자체 양성되는 방법이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교육 이수 후 관리가 미비하다.

#### 4.6.4.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신규 업종에 대한 관리기준 미흡

반려동물 미용서비스업에 대한 법적근거 및 기준이 없어 영업장 내 동물 학대가 발생하거나 애견미용사들이 부상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 미비로 반려동물 미용서비스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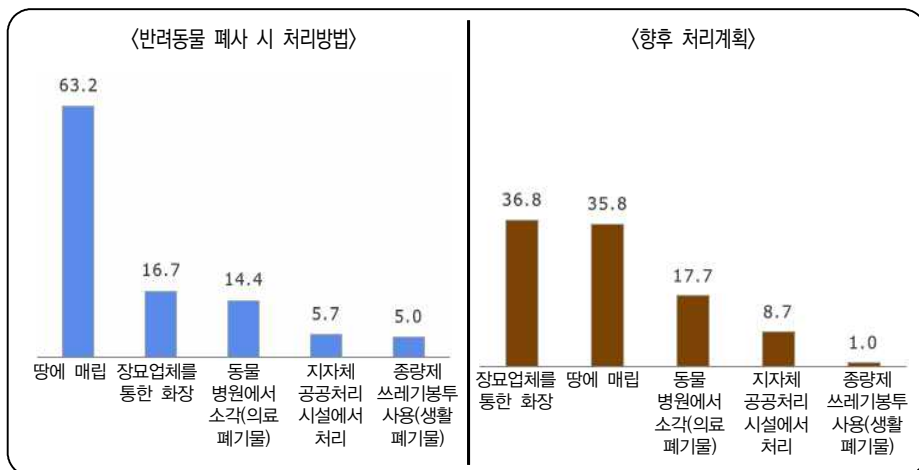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신규 서비스 업종이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애견 카페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동물 출입시설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

#### 4.6.5. 반려동물 장묘업의 문제점

##### 가. 폐사 시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사례 많아

반려동물 폐사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땅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그림 2-17〉 반려동물 폐사 시 처리방법 및 향후 처리계획



자료: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2017. 8.).

폐사 시 땅에 매립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땅에 매립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보여 법과 현실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 나. 반려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

대부분의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묘시설 설치 강행 시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sup>24</sup>

#### 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장묘시설 운영과 환경오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을 갖춘 업체가 부족하여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매립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로 버리고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동물사체 화장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동물화장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화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냄새, 먼지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수단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라. 동물병원과 장묘시설의 유착으로 소비자 피해

일부 반려동물 장례업체와 일부 동물병원이 유착하여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일정한 수수료에 거래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소비자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 불법장묘업체들이 난립하여 장례절차별로 구분되어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 있는 장례

---

<sup>24</sup> ‘개 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전국 곳곳 들어서 주민과 마찰(뉴스 2017년 5월 29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6\\_0014922132&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6_0014922132&cID=10201&pID=10200): 2017. 5. 30.)

비용을 패키지형태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마.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

가족처럼 돌보던 반려동물의 장례 이후 슬픔 또는 정신적 장애인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추정

본 장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산업별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를 전망한다. 이를 위해 앞장에서 살펴본 반려동물 사료 산업, 수의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산업, 장묘 및 보호 서비스 산업, 보험 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입액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정리하였다.<sup>26</sup>

반려동물 연관산업 각 산업별 산업규모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1>과 같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산업규모는 2011년 1조 443억 원에서 2014년 1조 5,684억 원으로 연평균 14.5%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각 산업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의 서비스가 4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료 31.5%, 동물 및 관련 용품 24.5%, 장묘 및 보호 서비스 2.2%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사료와 동물 및 관련 용품 산업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수의 서비스와 장묘 및 보호 서비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up>25</sup> 본 장은 위탁연구로 추진된 조재성(충남대학교 교수)의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및 연관산업 전망”의 원고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sup>26</sup> 도그쇼는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산업규모 추정에서 제외시켰다.

〈표 3-1〉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정치

단위: 백만 원,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사료	385,204	375,753	422,807	494,089	8.7%
	(36.9)	(31.7)	(30.5)	(31.5)	
수의 서비스	354,914	480,696	579,046	655,077	22.7%
	(34.0)	(40.6)	(41.8)	(41.8)	
동물 및 관련 용품	287,408	309,876	358,210	384,855	10.2%
	(27.5)	(26.1)	(25.9)	(24.5)	
장묘 및 보호서비스	16,761	19,075	25,396	33,848	26.4%
	(1.6)	(1.6)	(1.8)	(2.2)	
보험	-	-	405	572	-
	(0.0)	(0.0)	(0.1)	(0.1)	
합계	1,044,287	1,185,400	1,385,865	1,568,441	14.5%
	(100.0)	(100.0)	(100.0)	(100.0)	

주: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2011년과 2012년 보험 시장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지연구. (2017. 7. 13.).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반려동물 사육 규모 및 연관산업 시장 규모 전망

### 2.1. 예측 방법

시장 규모 및 수요 등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정성적, 정량적, 시스템적 접근법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정성적 접근법은 통계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활용도가 높은 예측 방법으로, 정성적 접근법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델파이 기법,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컨조인트 및 계층화 분석, 대안을 수립하고 다면 비교를 수행하는 인덱스 분석 등이 있다.

정량적 접근법은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및 수리모형을 통해 미래

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확산모형, 기하평균을 이용한 연평균 성장률 등이 주로 사용된다. 시스템적 접근법에는 정보 예측 시장,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공신경망 등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이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같이 관련 산업에 대한 통계의 종류 및 시계열이 제한적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은 정성적 접근법과 정량적 접근법 중 자료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확산모형과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자료 제약 하에서도 편리하고 빠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및 단기 시장 전망에서 미래 시장 규모나 수요를 예측할 때 많이 사용된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면 미래 시장 규모는 복리로 지속해서 증가하며, 확장되는 시장 규모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한 미래 시장 규모 및 수요 예측은 중장기 전망 시에는 적합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통계의 제약으로 황명철 외(2013)도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2013년 이후의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를 전망하였으나, 전망 결과를 실측치와 비교하면 과대 전망된 것으로 판단된다.<sup>27</sup>

확산모형은 시장 규모가 산업 초기에는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한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 이후에는 더디게 성장해, 결국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장 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확산모형은 시장의 성장 규모에 제한이 있고, 시장 포화점에 근접할수록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점에서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보다 중장기 전망에 적합하다.

<sup>27</sup> 황명철 외(2013)는 2013년 1.1조 원, 2014년 1.4조 원, 2015년 1.8조 원, 2016년 2.3조 원을 전망하였다. 하지만 황명철 외(2013)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세대수’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를 산출하면 2013년 1조 원, 2014년 1.1조 원, 2015년 1.3조 원, 2016년 1.4조 원이 산출된다.

특히, 대표적인 확산모형인 Bass 확산모형의 경우 기존 시장 참여자(기존 구매자)가 신규 시장 참여자(신규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장 규모 확대 과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 주변인으로부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 예측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자료의 제약, 향후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 수의 증가세 둔화 및 감소 가능성, 반려동물 입양 시 주변인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Bass 확산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 규모 및 시장 규모를 전망하였다.

## 2.2. Bass 확산모형의 개념

Bass 모형은 신규 상품, 기술, 정보 등이 특정 집단 또는 잠재 시장 내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모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t$  시점까지 잠재 시장 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누적확률을 나타내는 누적분포 함수를  $F(t)$ 라고 하면,  $f(t) = dF(t)/dt$ 는  $t$ 시점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밀도 함수이다. Bass(1969)는  $t$  시점까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가  $t$  시점에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L(t) = \frac{f(t)}{1 - F(t)} = p + qF(t) \quad (3-1)$$

여기서,  $p$ 는 혁신계수(또는 외적 영향 계수)로 광고나 그 밖의 외부요인이 잠재적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q$ 는 모방계수(또는 내적 영향 계수)로 주변인의 권유나 평가 등 기존 구매자가 잠재적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식 (1)을  $f(t)$ 에 대해 정리하면,

$$f(t) = [p + qF(t)][1 - F(t)] = p + (q - p)F(t) - q[F(t)]^2 \quad (3-2)$$

이고  $f(t) = dF(t)/dt$ 이므로,

$$p + (q-p)F(t) - q[F(t)]^2 = dF(t)/dt \quad (3-3)$$

를 만족시키는 누적분포 함수  $F(t)$ 는 다음과 같다.

$$F(t) = \frac{1 - e^{-(p+q)t}}{1 + \frac{q}{p}e^{-(p+q)t}} \quad (3-4)$$

$F(t)$ 의 변곡점은  $\frac{d^2F(t)}{dt^2} = \frac{df(t)}{dt} = 0$ 을 만족하는

$$t^* = \frac{\ln\left(\frac{q}{p}\right)}{p+q} \quad (3-5)$$

이며,  $t$  시점의 판매량을  $n(t)$ 라고 하고, 잠재적 시장 규모(잠재 소비자 수 또는 판매량)를  $m$ 이라고 가정하면,  $n(t) = mf(t)$ 이므로  $n(t)$ 는  $t^*$ 에서 최대가 된다.  $n(t)$ 와 유사하게,  $t$ 시점까지 누적 판매량을  $N(t)$ 라고 하면,  $N(t) = mF(t)$  이므로 식 (2)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 일반적인 형태의 Bass 확산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n(t) = mp + (q-p)N(t) - \left(\frac{q}{m}\right)[N(t)]^2 \quad (3-6)$$

모수  $m, p, q$ 를 추정하기 위해 Bass(1969)는 다음의 선형모형을 회귀분석하였다.

$$\begin{aligned} n(t) &= mp + (q-p)N(t-1) - \left(\frac{q}{m}\right)[N(t-1)]^2 \\ &= a + bN(t-1) + c[N(t-1)]^2 \end{aligned} \quad (3-7)$$

여기서  $a = mp$ ,  $b = (q-p)$ ,  $c = -(q/m)$ 이므로,  $p = (a/m)$ ,  $q = -mc$ 이며,  $b$

를 다시  $p$ 와  $q$ 로 정리하면,  $b = -mc - (a/m)$ 이므로  $a + bm + cm^2 = 0$ 을 만족하는  $m$ 의 값은 근의 공식에 의해  $m = (-b \pm \sqrt{b^2 - 4ac})/2c$ 이다.

Bass 모형은 1969년에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수요 예측, 시장 규모 설정, 새로운 조직의 진입·탈퇴 과정 분석 등 시장 분석 및 전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2007).

### 2.3. 분석 자료 및 추정방법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사육 규모 전망을 위해 사용한 기초 자료는 <표 2-1>에 제시한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추정치이다. 표본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사육 마릿수는 결측치 직전과 직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연평균 성장률을 결측치 직전 사육 마릿수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사육 마릿수는 2010년 사육 마릿수에 2010년과 2012년 사육 마릿수로 산출한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여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전망을 위해 통계청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애완동물 관련 물품”과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소비 지출액 기준 자료를 이용한 <표 3-2>의 반려동물 시장 규모 추정치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자료의 제약<sup>28</sup>으로,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Bass 모형으로 직접 추정 및 전망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2015년 이후 소비 지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정치 및 전망치의 연간 증감률을 2014년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에 적용하여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를 유사추론하였다.

<sup>28</sup>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전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간 동안의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수익업 매출액 중 반려동물에 대한 매출 비중 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만 가용하였다.

〈표 3-2〉 소비 지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정치

단위: 억 원

	애완동물 관련 물품	화훼 및 애완동물 서비스	합계	가구 수	반려동물 시장 규모
2006년	1,194	802	1,996	16,322	3,909
2007년	1,201	996	2,197	16,602	4,377
2008년	1,280	1,042	2,322	16,883	4,704
2009년	1,502	1,041	2,543	17,168	5,239
2010년	1,658	1,186	2,844	17,495	5,971
2011년	1,911	1,245	3,156	17,879	6,771
2012년	2,226	1,209	3,435	18,119	7,468
2013년	2,258	1,579	3,837	18,388	8,467
2014년	2,561	1,509	4,070	18,705	9,136
2015년	2,920	1,929	4,849	19,013	11,063
2016년	3,120	2,280	5,400	19,285	12,496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장래가구추계』.

Bass 모형은 기본적으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확산 과정을 추정하는 모형이므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과 같이 이미 오랜 시간 규모의 확산이 이루어진 산업에 직접 적용할 경우 추정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육 규모와 시장 규모 자료의 가장 초기 연도인 2010년과 2006년을 사육 규모와 시장 규모에 대한 기준연도로 설정하고,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시장을 이미 포화된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으로 분리한 후 신규 시장에 대해 Bass 모형을 추정하였다. 신규 시장 자료는 기준연도 이후의 연도별 자료 값에서 기준연도의 자료 값을 차감한 값이다. Bass 모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m$ ,  $p$ ,  $q$  중  $m$ 은 신규 시장에 대한 잠재 규모이므로, 기존 시장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잠재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또는 시장 규모는 Bass 모형 추정을 통해 산출된  $m$  값에 기준연도의 사육 마릿수 또는 시장 규모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표 3-3〉 Bass 모형 추정을 위한 사육 규모 자료

단위: 마리

연도	사육 마리수 추정치(원자료)	사육 마리수 추정치(신규 시장)
2010년	4,762,982	-
2011년	4,903,332	140,350
2012년	5,047,818	284,836
2013년	5,454,432	691,450
2014년	5,893,799	1,130,817
2015년	6,368,559	1,605,577
2016년	7,461,988	2,699,006
2017년	8,743,150	3,980,168

주: 결측치(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는 결측치 직전과 직후의 사육 마리수를 이용하여 도출한 연평균 성장률을 결측치 직전 사육 마리수에 적용하여 생성함.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2015. 1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본 연구(2017. 7.). 『반려동물 국민 인식 조사』. 통계청(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표 3-4〉 Bass 모형 추정을 위한 시장 규모 자료

단위: 억 원

연도	시장 규모(원자료)	시장 규모(신규 시장)
2006년	3,909	-
2007년	4,377	467
2008년	4,704	328
2009년	5,239	535
2010년	5,971	732
2011년	6,771	801
2012년	7,468	697
2013년	8,467	998
2014년	9,136	669
2015년	11,063	1,928
2016년	12,496	1,433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장래가구추계』.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에 대한 Bass 모형 식 (7)은 최소선형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OLS)으로 STATA 14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반



면, 사육 규모에 대한 Bass 모형은 잠재 사육 규모(포화점)에 대한 가정을 도입한 후 추정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와 본 연구의 ‘반려동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2010년 17.4%, 2012년 17.9%, 2015년 21.8%, 2017년 29.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보유 가구 비율은 이미 30%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0년 후인 2027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2,129만 가구)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을 40%로 가정한 후 모형을 추정하였다.<sup>29</sup> 반려동물 보유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본 연구에서 시행한 총 4차례 조사 결과의 평균인 1.55마리로 가정하였다. 즉, 반려동물 잠재 사육 규모는 잠재 사육 규모 1,320만 마리이다.

잠재적 사육 규모(포화점)의 가정을 Bass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식 (7)을 다음의 식으로 변형하였다.

$$\begin{aligned} n(t) &= \bar{m}p + (q-p)N(t-1) - \left(\frac{q}{\bar{m}}\right)[\bar{N}(t-1)]^2 \\ &= a + bN(t-1) + c[\bar{N}(t-1)]^2 \end{aligned} \quad (8)$$

여기서  $\bar{m}$ 는 사전에 가정한 잠재적 사육 마릿수로, 사육 마릿수 포화점에 대한 가정이고,  $\bar{N}$ 는  $N^2/\bar{m}$ 이며,  $a = \bar{m}p$ ,  $b = (q-p)$ ,  $c = -q$ 이므로,  $p = (a/\bar{m})$ ,  $q = -c$ 이고,  $b = -c - (a/\bar{m})$ 이다. 따라서,  $\bar{m}$ 은  $a + b\bar{m} + c\bar{m} = 0$ 의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식 (8)은  $a + b\bar{m} + c\bar{m} = 0$ 의 제약 조건 하에서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14의 Constraint Linear Regression으로 식 (8)을 추정하였다.

<sup>29</sup> 황원경(2017)은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에서 국내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39.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사육가구비율이 현재 약 25%에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약 60%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 40%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2.4. BASS 확산모형을 이용한 반려동물 사육 규모 전망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자료를 이용하여 Bass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5>에, 추정된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시나리오별 Bass 모형의  $m$ ,  $p$ ,  $q$ 는 <표 3-6>에 제시하였다.

〈표 3-5〉 시나리오별 사육 마릿수에 대한 Bass 모형 회귀분석 결과

연도	계수 추정치	t 값	표준오차
상수항	79,011	118,926	0.660
$N(t-1)$	0.654	0.111	5.890
$N(t-1)^2$	-0.663	0.100	-6.630

주: \*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사육가구 비율을 40%로 가정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55로 가정함.

〈표 3-6〉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의 잠재 규모 및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단위: 만 마리

혁신계수( $p$ )	모방계수( $q$ )	신규 시장 잠재 규모( $\bar{m}$ )	전체 시장 잠재 규모
0.009	0.663	844	1,320

주: 전체 시장 잠재 규모는 신규 시장의 잠재 규모( $\bar{m}$ )에 2010년 사육 마릿수를 합한 값으로, 신규 시장 잠재 규모( $\bar{m}$ )는 앞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사육할 반려동물의 최대 마릿수를 나타내며, 전체 시장 잠재 규모는 2010년까지 사육되고 있는 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대 사육할 반려동물 마릿수로 사전에 가정한 잠재 사육 규모임.

2027년까지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전망 결과, 연도별 신규 사육 마릿수는 2019년 143만 마리를 정점으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26년에는 1만 마리 정도만 신규 사육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Bass 모형 개념상 신규 사육 마릿수에는 기존에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체되는 동물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는 2018년 932만 마리에서 2022년에는 1,300만 마리까지 증가한 후 2026년 포화상태(1,32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7〉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전망치(2018~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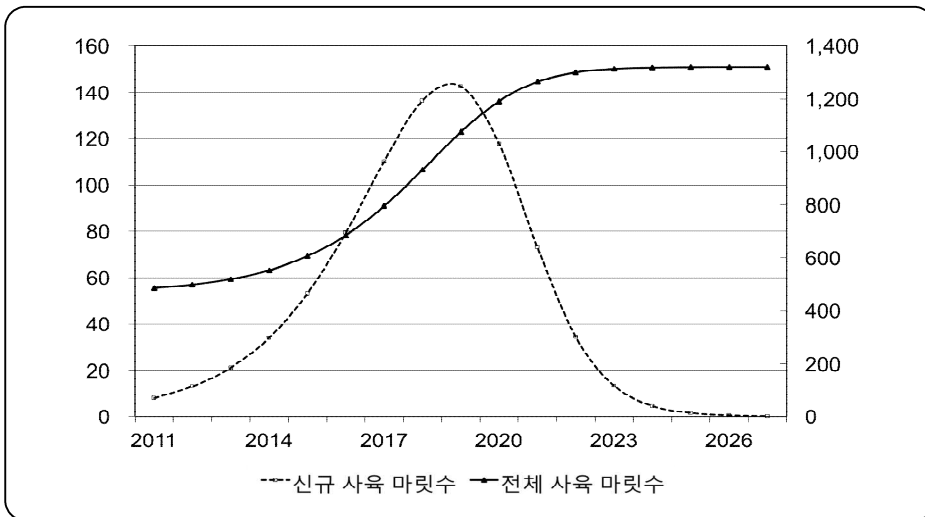
단위: 만 마리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신규 마릿수	136	143	118	73	34	13	5	2	1	0
전체 마릿수	932	1,074	1,192	1,265	1,300	1,313	1,318	1,319	1,320	1,320

주: 사육가구 비율을 40%로 가정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55로 가정함.

〈그림 3-1〉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전망 그래프

단위: 만 마리



## 2.5.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 전망

Bass 모형 추정 결과를 기초로 산출한  $m$ ,  $p$ ,  $q$ 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 값과 Bass 모형에서 도출된 추정치를 MAPE로 비교한 결과, Bass 모형 추정치의 10년 평균 MAPE 값은 4.04%로, 추정된 모형은 매우 높은 표본 내 예측력을 보였다.

〈표 3-8〉 소비 지출액 기준 시장 규모에 대한 Bass 모형 회귀분석 결과

연도	계수 추정치	t 값	표준오차
상수항	3.20E+10	1.010	3.17E+10
$N(t-1)$	0.212	1.010	0.210
$N(t-1)^2$	-5.50E-14	(0.200)	2.79E-13

주: Adjust  $R^2=0.61$ 임.

〈표 3-9〉 소비 지출액 기준 시장 규모의 잠재 규모 및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단위: 억 원

혁신계수( $p$ )	모방계수( $q$ )	신규 시장 잠재 규모( $m$ )	전체 시장 잠재 규모
0.0080	0.2201	40,012	43,921

주: 전체 시장 잠재 규모는 신규 시장의 잠재 규모( $m$ )에 2006년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를 합한 값으로, 신규 시장 잠재 규모( $m$ )는 2006년 이후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전체 시장 잠재 규모는 국내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최대 성장 가능 규모를 의미함.

2015년 이후 소비 지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 추정치 및 전망치의 연간 증감률을 2014년 산업 매출액 기준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1조 5,684억 원)에 적용하여 유사추론한 결과, 2015년 산업 매출액 기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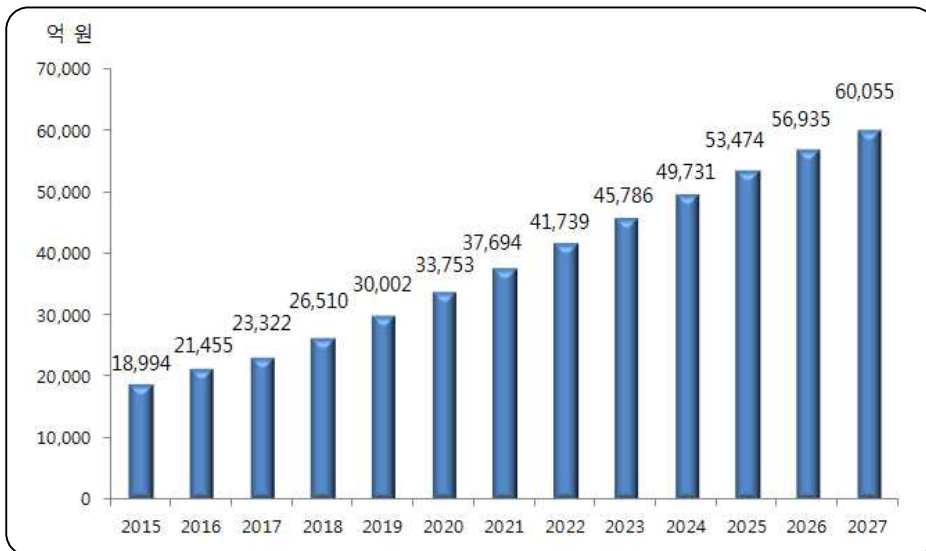
〈표 3-10〉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 추정치

단위: %, 억 원

연도	소비 지출액 기준 시장 규모 증가율	산업 매출액 기준 전체 시장 규모
2015년	21.1%	18,994
2016년	13.0%	21,455
2017년	8.7%	23,322
2018년	13.7%	26,510
2019년	13.2%	30,002
2020년	12.5%	33,753
2021년	11.7%	37,694
2022년	10.7%	41,739
2023년	9.7%	45,786
2024년	8.6%	49,731
2025년	7.5%	53,474
2026년	6.5%	56,935
2027년	5.5%	60,055

장 규모는 1조 8,994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 3,322억 원에서 2027년 6조 5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장 규모는 2032년 7조 원에 도달한 후 서서히 시장 포화점(7조 6천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 1.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소비 실태 조사<sup>30</sup>

#### 1.1.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사육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 조사결과를 정리·분석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반려동물 사육 관련 실태 파악, 사육 관련 애로사항 등이다. 조사 문항은 본 연구의 범위에 맞추어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는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12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전문업체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의 만 20~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2015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인구비례로 배분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4%,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반려동물을 길러본 적이 있는 경우’는 47.5%, ‘길러본 적 없음’은 23.1%로 나타났다. 그 밖의 표본 특성은 <표 4-1>과 같다.

<sup>30</sup> 본 장의 분석 내용은 본 연구가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수행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 국민인식조사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연령		가족 구성원 수		월평균 소득(만 원)	
20대	367(18.4)	1인	194(9.7)	300 미만	504(25.2)
30대	420(21.0)	2인	330(16.5)	300~400 미만	343(17.2)
40대	479(24.0)	3인	507(25.4)	400~500 미만	364(18.2)
50대	456(22.8)	4인	769(38.5)	500~600 미만	274(13.7)
60대 이상	278(13.9)	5인 이상	200(10.0)	600 이상	515(25.8)
합계	2,000(100.0)	합계	2,000(100.0)	합계	2,000(100.0)

주: 응답자 2,000명의 주요 정보로 괄호 내용은 비율을 나타냄.

## 1.2.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1.2.1. 반려동물의 상업적 대량 생산에 대한 의견

반려동물 사육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상업적 대량생산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반대(82.1%) 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반대 의사 비율은 특히, 반려동물을 길러본 적이 없는 응답자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대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 1.2.2.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유기·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의견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유기 및 학대 관련 법적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은 찬성이 각각 95.4%,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은 응답자 층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응답자의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관련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동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 반면, 유기 및 학대 관련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동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표 4-2〉 반려동물 관련 제도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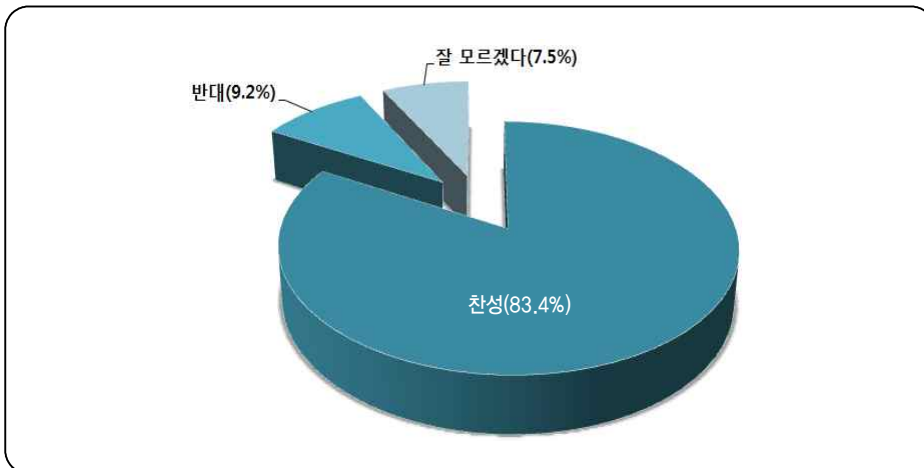
구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음	계
반려동물 상업적 대량 생산	7.3	82.1	10.7	100.0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관련 처벌수위 강화	95.4	2.7	2.0	100.0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관련 처벌수위 강화	93.5	3.1	3.5	100.0

주: 응답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 12.3. 반려동물 소유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일정 수준의 교육이수 의무화(예: 입양 전 5시간 교육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83.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 의사를 내비친 응답자는 9.2%로 이 가운데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15.0%)와 60대 이상 연령층(13.7%)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이수 의무화에 대한 찬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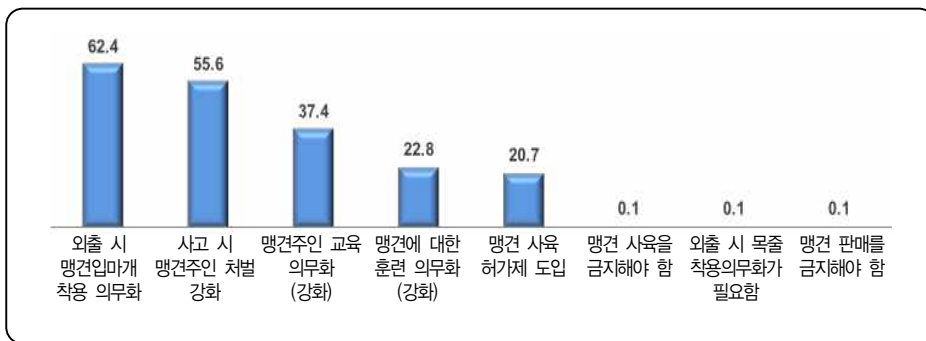
주: 응답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 12.4. 맹견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

최근 개에게 물리는 등 공격을 받아 다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되는 사항으로 ‘외출 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62.4%)’, ‘사고 시 맹견주인 처벌 강화(55.6%)’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외출 시 맹견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인 응답자의 경우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54.5%)보다는, 사고 시 맹견주인 처벌을 강화(71.5%)하는 것을 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그림 4-2〉 맹견의 공격 피해 해결 방안

단위: %



주: 응답자 2,000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 반려동물 사육 현황과 소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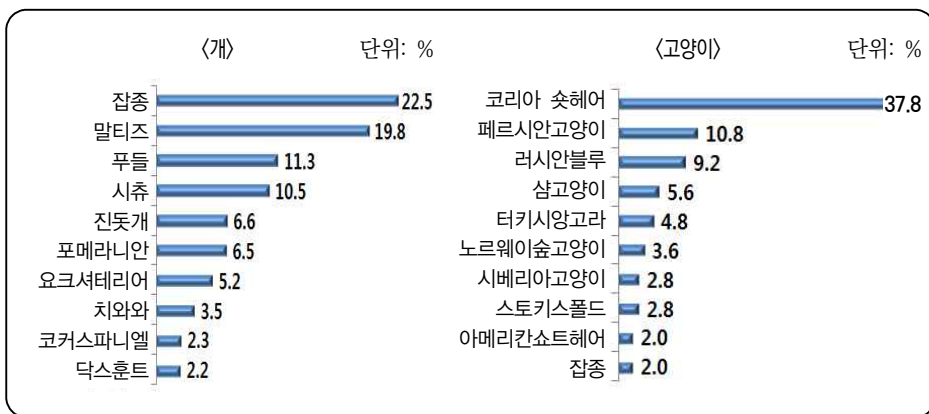
### 1.3.1.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및 품종 현황

반려동물 중 개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 588명 가운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7.0%,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는 17.4%였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 169명 중에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9.2%,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응답자는 20.1%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1~2마리의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개 1.34마리, 고양이 1.47마리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주로 키우고 있는 품종은, 개는 잡종견(22.5%), 말티즈(19.8%), 푸들(11.3%) 등이었으며, 고양이는 코리아 숏헤어(37.8%), 페르시아고양이(10.8%), 러시안블루(9.2%) 등이었다. 개와 고양이 상위 10개 품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개는 90.4%, 고양이는 81.4%였다. 코리아 숏헤어는 키우고 싶은 고양이의 상위 10개 품종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었으며, 20대 연령층, 1인 가구,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낮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상위 10개 품종



주: 키우고 있는 개 648마리와 고양이 249마리에 대한 결과임.

### 13.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동기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동물을 키우게 된 동기는 주로 동물을 좋아하거나 (61.1%), 가족이 원해서(43.2%)였다. 이 중 사육 동기가 ‘가족이 원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가족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26.7%, 3인일 때는 41.3%, 그리고 5인 이상일 경우 54.1%로 나타났다.

〈그림 4-4〉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동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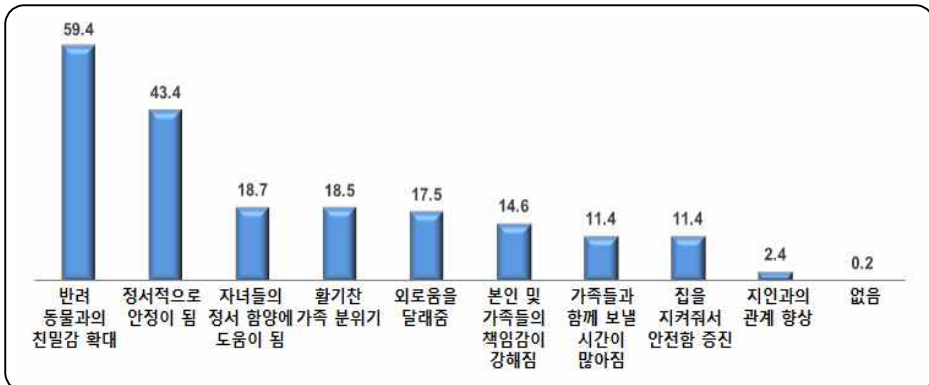
주: 응답자 588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동기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3.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긴 긍정적 변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긴 주된 긍정적인 변화는 반려동물과의 친밀감 확대(59.4%)와 정서적 안정(43.4%)이었다. 정서적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20~30대 미혼 응답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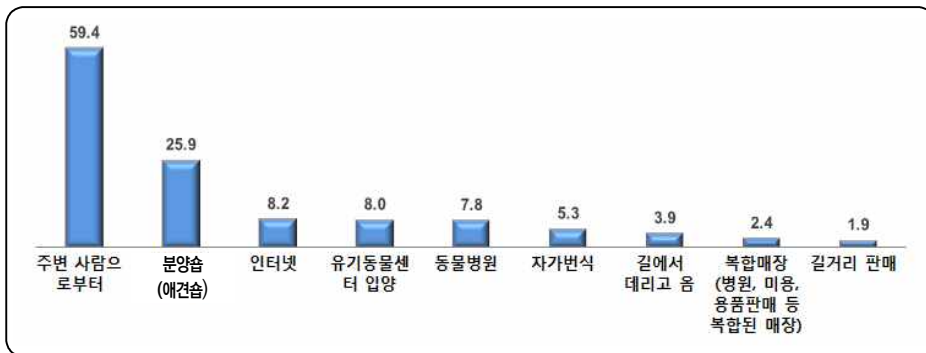
주: 응답자 588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4. 반려동물의 입양 경로

반려동물의 주요 입양 경로로는 주변 사람(59.4%)이나 분양숍(25.9%)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른 경로에 비해 주변 사람을 통해 입양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연령대별 주변 사람을 통해 입양하는 비율은 20대가 52.8%, 40대가 63.0%, 그리고 60대 이상은 73.0%로 나타났다.

〈그림 4-6〉 반려동물 입양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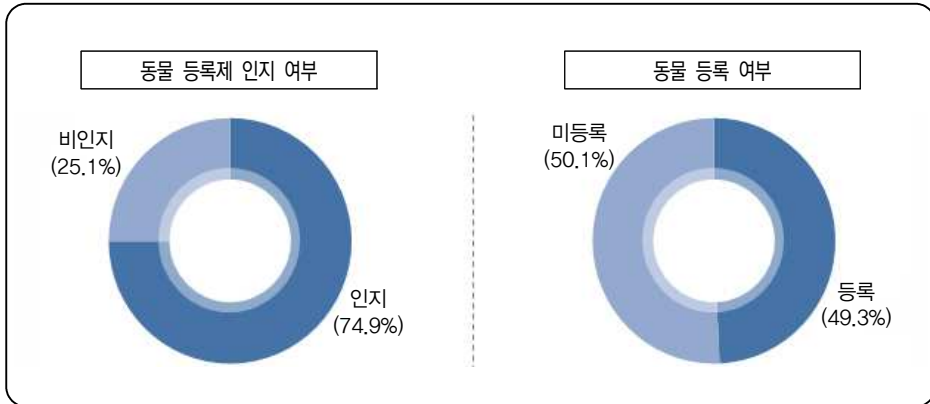
주: 응답자 588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 입양 경로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5. 동물등록제 인지 여부 및 등록 여부,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반려견 소유자 대상의 응답자 가운데 동물등록제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74.9%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에 비해 개를 등록한 비율은 49.3%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르고 있는 개가 3개월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으나, 그보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할 때 동물에 발생할 피해가 우려되어서’ 그리고 ‘의무와 제재만 있고 혜택은 없어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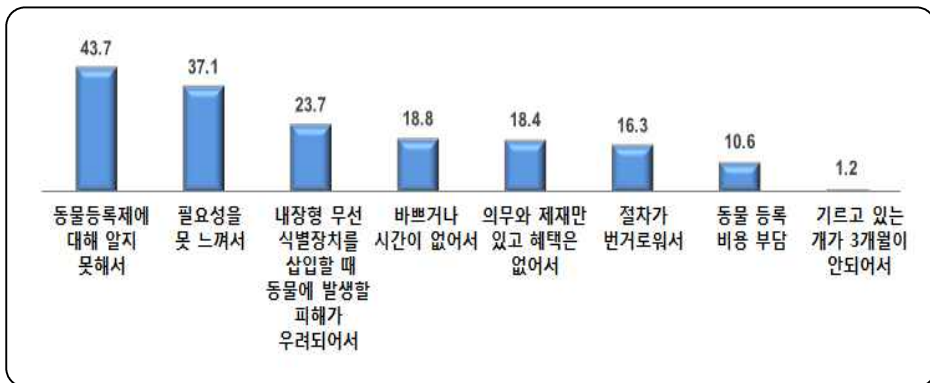
〈그림 4-7〉 동물 등록제 인지 여부 및 동물 등록 여부



주: 개를 키우는 응답자 4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그림 4-8〉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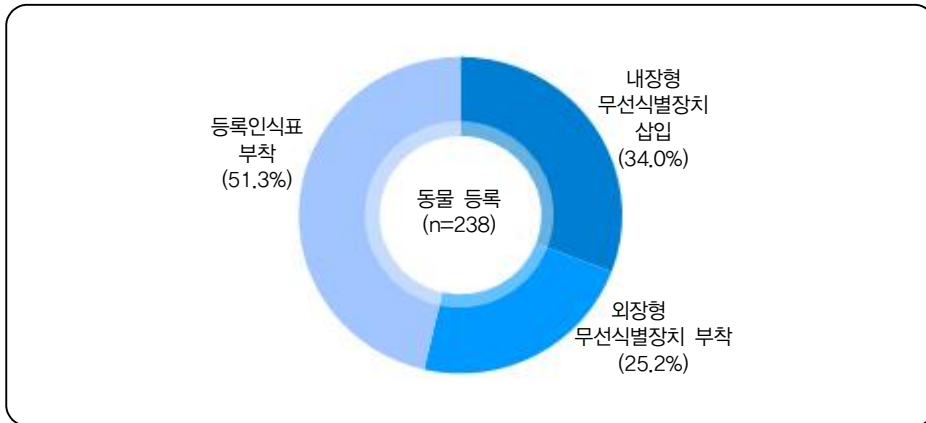
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응답자 245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6. 동물 등록 방법 및 등록 시 불편한 점

동물 등록을 한 238명 응답자의 동물 등록 방법(중복 가능)은 ‘등록인식표 부착(51.3%)’,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34.0%)’,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25.2%)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 방법별 평균 비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9,383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8,583원, 등록인식표 부착

13,121원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 장치 선택폭 제한 등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이 주로 추천되고 있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반려견 소유자들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할 때 동물에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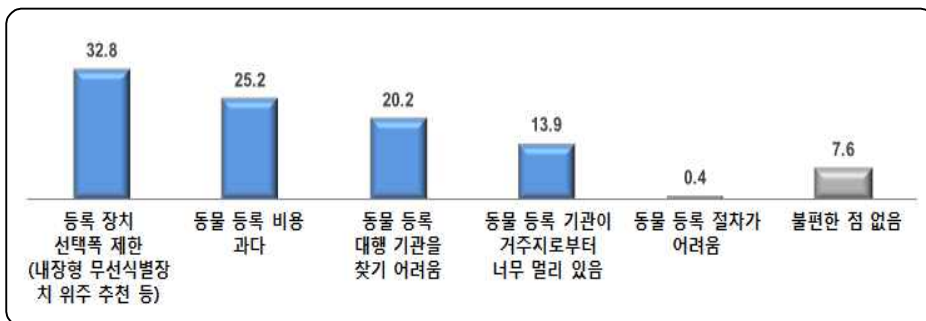
〈그림 4-9〉 동물 등록 방법



동물 등록 시 불편한 점으로는 반려견 소유자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위주의 등록 장치(32.8%)를 가장 높게 꼽았다. 연령대별로 볼 때,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등 불편함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림 4-10〉 동물 등록 시 불편한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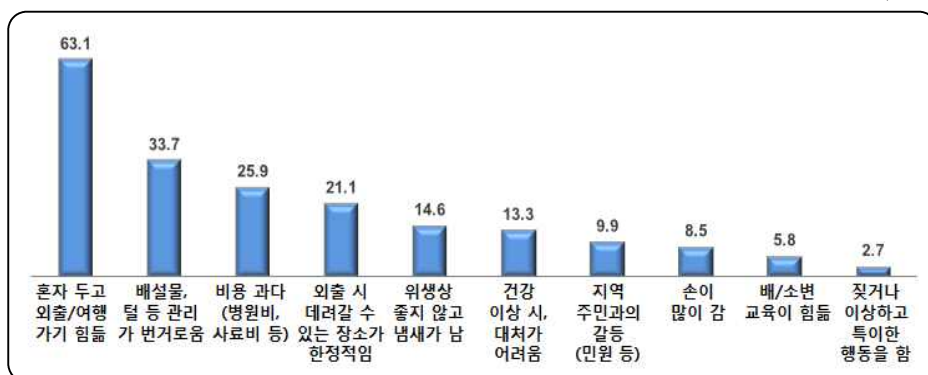
주: 개를 등록한 응답자 2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 13.7.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반려동물 사육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들(63.1%)’,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 등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동물을 혼자 두고 외출하거나 여행가는 것에 비해 배설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더욱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4-11〉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588명에 따른 결과 값(중복 응답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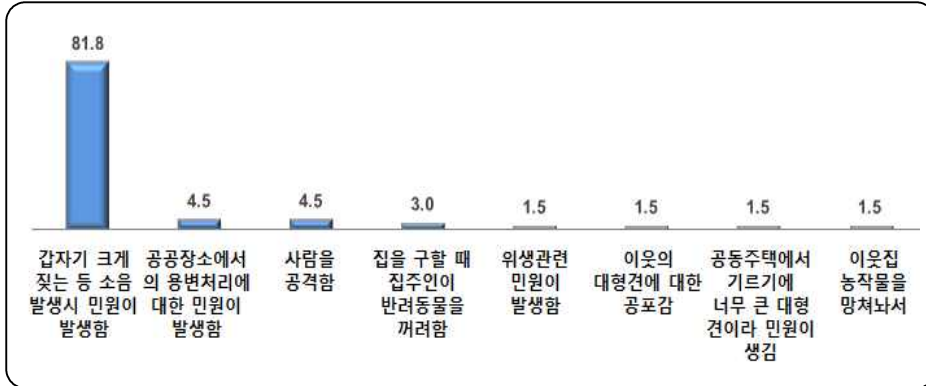
### 13.8. 반려동물 사육 시 민원 경험

반려동물 관련 주요 민원은 개가 갑자기 크게 짖는 등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경우(81.8%)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음 관련 민원 사례를 경험한 비율은 낮았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용변처리에 대한 민원 경험 비율은 높았다.



〈그림 4-12〉 반려동물 관련 민원 경험 내용

단위: %



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66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 관련 민원 경험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9. 반려동물 사육 관련 정부 건의 사항

반려동물 사육 시 불편한 사항 또는 정부에 건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도 개선(40.1%)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32.8%에 달했다.

〈그림 4-13〉 반려동물 사육 관련 정부 건의 사항

단위: %



주 1) '기타'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 수의사에 대한 검증 필요, 맹견에 대한 관리 필요 등의 내용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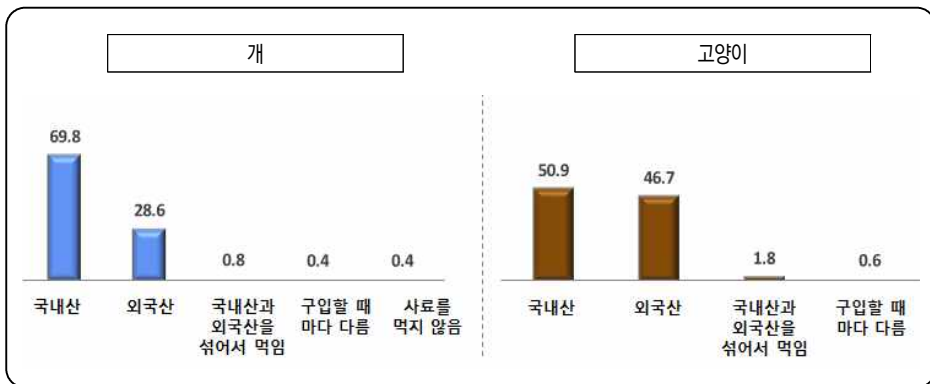
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588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 사육 관련 정부 건의 사항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10. 반려동물 사료 이용 현황

급여하는 개 사료는 국내산 비중이 69.8%, 외국산이 28.6%로 나타났으며, 고양이 사료는 국내산이 50.9%, 외국산이 46.7%로 나타났다. 개의 경우 국내산 비중이 높은 반면, 고양이는 국내산과 외국산 사료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대의 국내산 사료 사용 비율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국내산 사료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4〉 급여하는 사료 원산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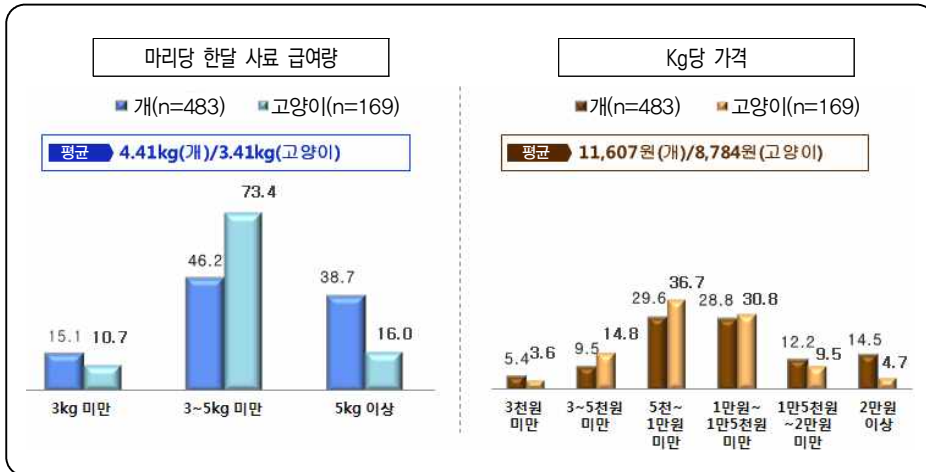


주: 개를 키우는 응답자 483명, 고양이를 키우는 응답자 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반려동물 마리당 한 달 평균 사료 급여량의 경우 개는 4.41kg, 고양이는 3.41kg으로 나타났으며, 3~5kg 범위에서 사료를 급여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중, 고양이는 3~5kg 범위에서 사료를 급여하는 비율이 73.4%로 개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고양이가 비교적 적은 사료를 먹는 동시에 급여량의 절반 이상이 3kg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15〉 반려동물 마리당 한 달 사료 급여량 및 kg당 사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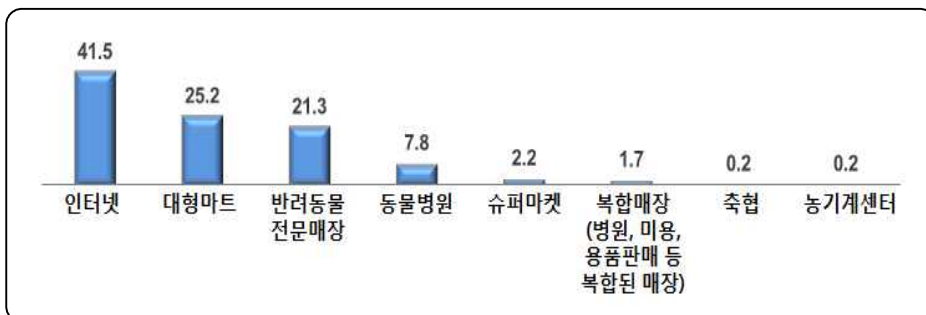
단위: %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사료를 구매할 때 인터넷이 41.5%, 대형마트 25.2%, 반려동물 전문매장 21.3%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일 경우 인터넷에 비해 반려동물 전문매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전문매장 평균 이용 비율은 16.5%로 나타난 반면, 4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그림 4-16〉 반려동물 사료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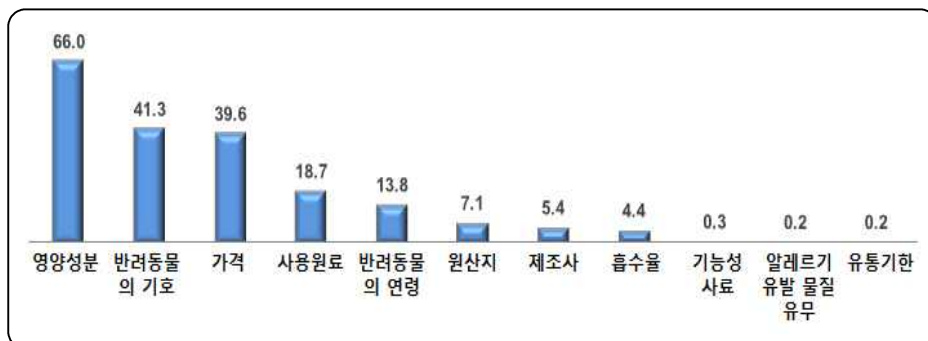
단위: %



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5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사료 구입 시 영양성분(66.0%), 반려동물의 기호(41.3%), 가격(39.6%)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어질수록 영양성분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성원 수가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4-17〉 반려동물 사료 구입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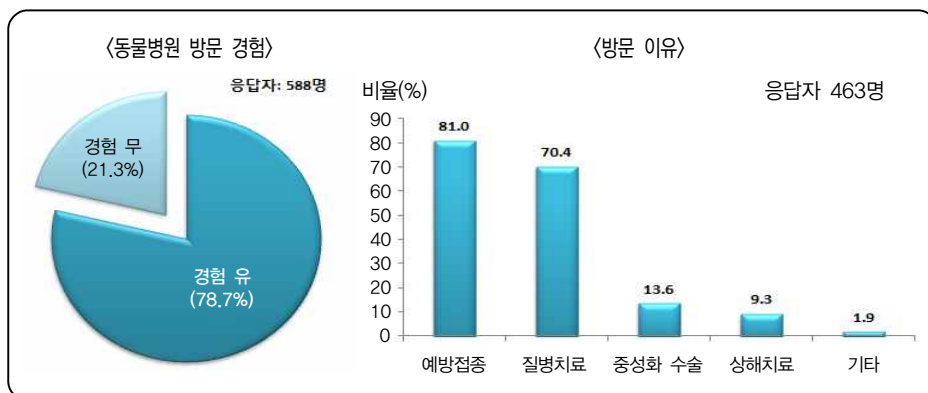


주: 응답자 588명이며, 반려동물 사료 구입 시 고려사항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11. 동물병원 이용 경험과 진료비

반려동물 보호자 588명 중 78.7%인 463명이 지난 1년 동안 예방접종과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그림 4-18〉 동물병원 방문 경험 및 방문 이유



주: 중복응답 허용. 기타에는 검진, 치아관리, 영양제 및 처방식 구입이 포함됨.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용 항목에 대해, 질병치료비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상해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동물병원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용 항목(1순위)



주: 기타에는 검진, 치아관리가 포함됨.

반려동물의 정기 예방접종 등 초기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강아지의 경우 평균 273,745원, 고양이는 306,129원으로 조사되어, 강아지보다 고양이의 초기 1년 동안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용은 암컷이 수컷보다 높으며,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반려동물 사육 초기 1년간 진료비 및 중성화 수술 비용

구분			응답수 (명)	비용(원)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초기 1년 진료비	개		388	273,745	255,680	2,000,000	0
	고양이		124	306,129	322,522	1,800,000	0
중성화수술 비용	개	수컷	141	181,454	67,222	300,000	60,000
		암컷	68	280,882	107,311	700,000	150,000
	고양이	수컷	58	180,522	81,137	350,000	70,000
		암컷	45	306,889	94,384	650,000	160,000

자료: 본 연구의 소비자 조사 결과(2017. 8.).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진료비에 대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91.4%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질병치료비에 대해서는 90.9%, 상해치료비는 90.5%, 예방접종비는 86.2%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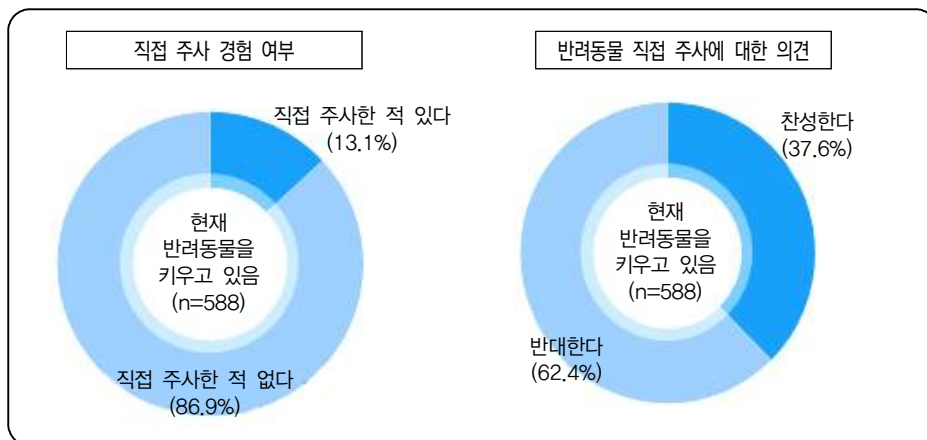
〈표 4-4〉 병원 진료비에 대한 의견

구분	① 매우 비싸다		② 비싼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저렴한 편이다		⑤ 매우 저렴하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예방접종비	112	24.2	287	62.0	61	13.2	3	0.6	0	0.0
질병치료비	193	41.7	228	49.2	36	7.8	6	1.3	0	0.0
상해치료비	196	42.3	223	48.2	36	7.8	7	1.5	1	0.2
전반적인 병원진료비	174	37.6	249	53.8	32	6.9	7	1.5	1	0.2

주: 응답자 수 463명.

반려동물 치료 등을 위한 직접 주사 경험에 대해 13.1%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직접 반려동물에게 주사하는 행위(자가진료)에 대해 37.6%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0〉 반려동물 주사 경험 및 직접 주사에 대한 의견



연간 마리당 평균 병원 진료비는 개의 경우 267,143원, 고양이의 경우 194,633원으로 조사되었다. 진료 횟수는 개의 경우 3.4회, 고양이의 경우 2.9회로 조사되었다. 반려견 보호자 483명 중 9.5%, 반려묘 보호자 169명 중 14.8%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반려동물 마리당 병원 진료비와 진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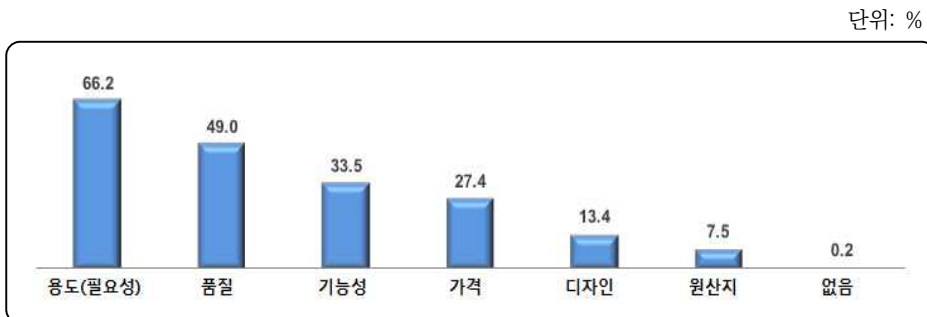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개	병원진료비(원/1년)	267,143	406,077	3,000,000	0
	진료횟수(회/1년)	3.4	3.2	20	0
고양이	병원진료비(원/1년)	194,633	214,133	1,000,000	0
	진료횟수(회/1년)	2.9	3.1	19	0

주: 개에 대한 응답자 수는 483명이고, 고양이에 대한 응답자 수는 169명임.

### 1.3.12. 반려동물 용품 구입 현황

반려동물 용품 구입 시 주된 고려사항으로는 용도(66.2%), 품질(49.0%), 기능성(33.5%) 등이 있었다.

〈그림 4-21〉 반려동물 용품 구입 시 고려사항



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응답자 588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 용품 구입 시 고려사항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3.13. 미용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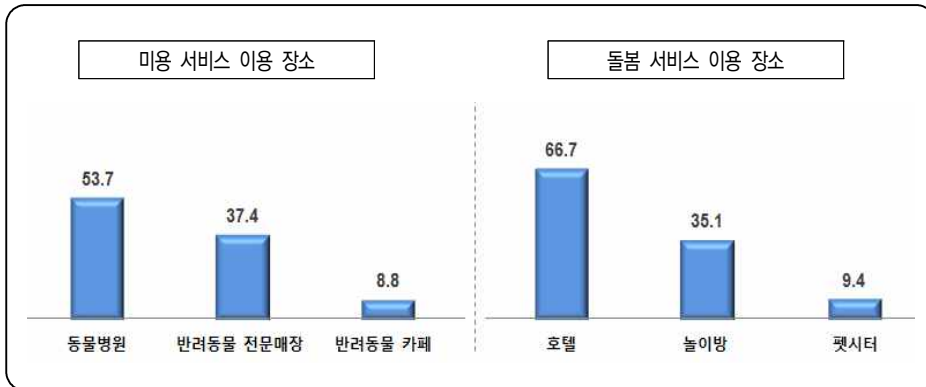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비율과 관련하여, 미용 서비스는 동물병원이 53.7%로 가장 높았고, 돌봄 서비스 장소는 호텔이 35.1%로 가장 높았다.

미용 서비스 이용<sup>31</sup>에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물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소유자의 연령대가 20~30대 일 경우 반려동물 카페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다. 미용 서비스를 위해 반려동물 카페를 이용하는 비율은 20대는 10.8%, 30대는 18.2%를 보였으나, 40대 이상 연령층은 평균 5% 이내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돌봄 서비스 이용 장소는 호텔 (66.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호텔 이용 비율은 가족 구성원 수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었다. 1인 가구의 호텔 이용 비율은 64.3%로 조사된 반면, 5인 이상 가구의 호텔 이용 비율은 37.5%로 조사되었다.

〈그림 4-22〉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비율

단위: %



주: 미용 서비스 이용 응답자 294명, 돌봄 서비스 이용 응답자 171명에 대한 결과임.

<sup>31</sup> 응답자 588명 중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였다. 나머지 50%는 미용을 집에서 직접 하는 등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동일한 응답자 588명 중 29.1%가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3.14. 반려동물 관련 지출 금액

반려동물을 소유자들은 개의 경우 마리당 1년에 약 106만 원을 지출하고, 고양이는 약 77만 5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반려동물 마리당 총 지출 금액(1년 기준)

단위: 원

구분	식품	의료	미용	용품	돌봄	보험	합계
개	569,244	267,144	96,300	92,724	16,800	12,840	1,055,052
고양이	420,852	194,628	40,716	90,468	7,668	20,616	774,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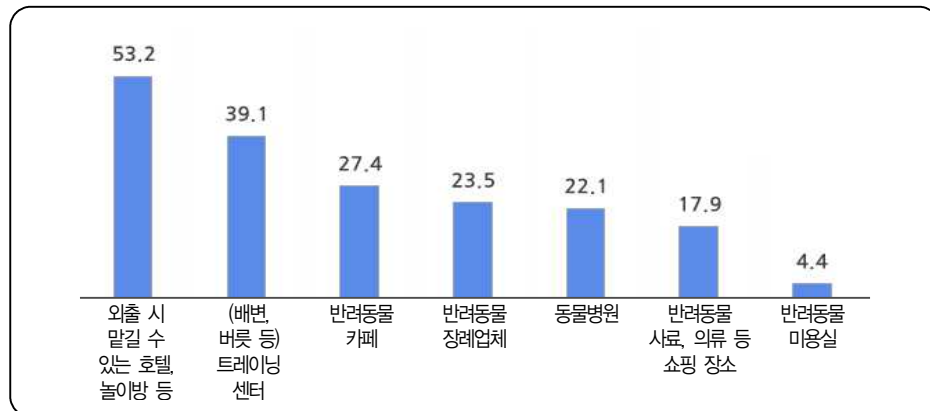
주: 개에 대한 응답자 수는 483명이고, 고양이에 대한 응답자 수는 169명임.

### 13.15. 향후 늘어났으면 하는 반려동물 시설

반려동물과 관련해 향후 늘어났으면 하는 시설은 외출 시 맡길 수 있는 호텔, 놀이방 등 돌봄 서비스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 훈련센터, 반려동물 카페, 장례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향후 늘어났으면 하는 반려동물 시설

단위: %



주: 응답자 588명의 응답이며, 중복응답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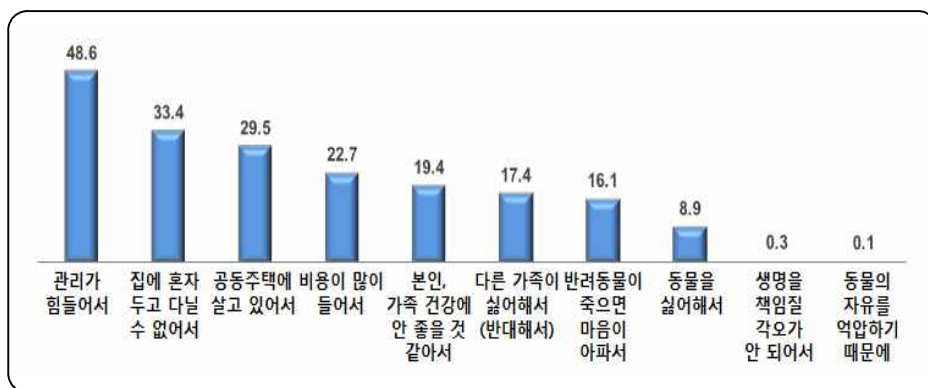
## 1.4. 반려동물 미소유 이유와 향후 사육 의향

### 14.1.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된 이유로 ‘관리가 힘들어서(48.6%)’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자녀가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 중일 경우 관리가 힘들다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4〉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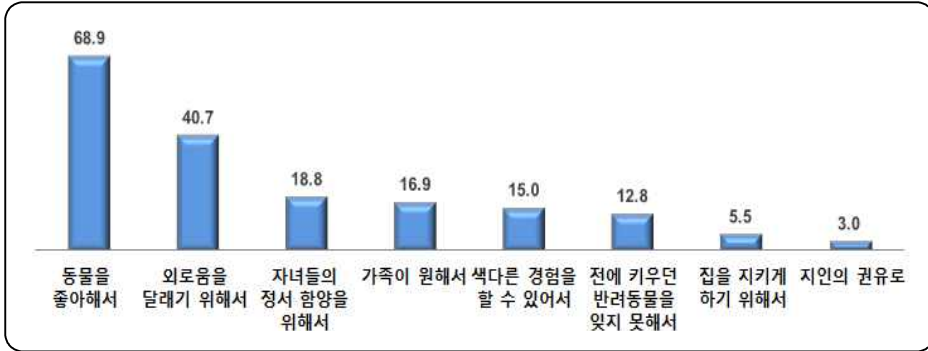
주: 응답자 1,412명의 응답으로 중복응답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4.2.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과 이유, 품종, 입양 시 고려사항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의향에 대해, 응답자 42.6%가 키우겠다고 응답하였다. 키우려는 이유로 ‘동물을 좋아해서(68.9%)’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40.7%)’가 다른 이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응답자들은 ‘동물을 좋아해서(54.8%)’라는 이유 외에도, ‘자녀의 정서 함양을 위해(71.8%)’ 기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5〉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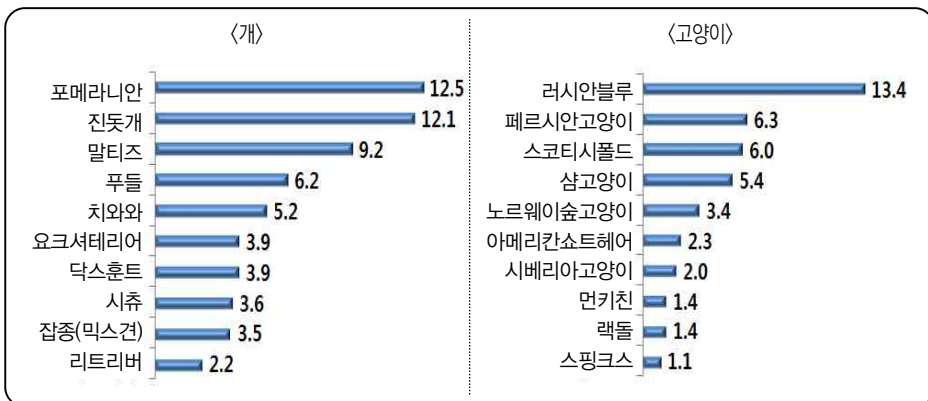


주: 응답자 602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이유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 상위 10개 품종은, 개의 경우 포메라니안, 진돗개, 말티즈 등이 높게 나타났고, 고양이는 러시안블루, 페르시아고양이, 스코티시폴드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개 품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가 62.3%, 고양이는 42.7%로, 특별히 원하는 품종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각각 25.9%, 52.2%에 달하였다.

〈그림 4-26〉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 상위 10개 품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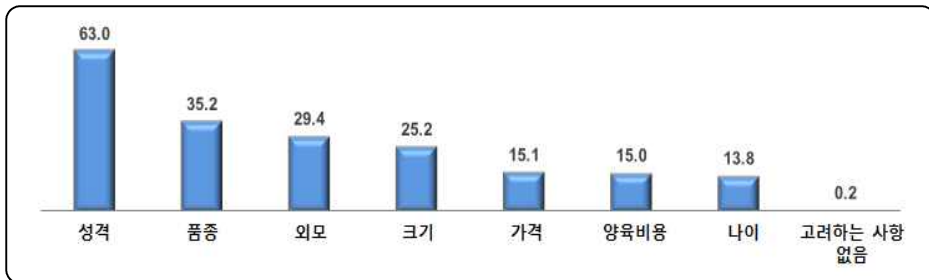


주: 개를 키우고 싶은 응답자 695명,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응답자 351명에 대한 결과임.

반려동물 구입 또는 입양 시 고려사항은 성격(63.0%), 품종(35.2%), 외모(2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이하의 자녀를 둔 응답자들은 품종이나 외모에 비해 성격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왔으며, 이는 앞서 ‘자녀의 정서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응답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그림 4-27〉 반려동물 입양 시 고려사항

단위: %



주: 응답자 602명에 따른 결과 값으로, 반려동물 입양 시 고려사항 1, 2순위 비율을 합한 것임.

## 1.5.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및 소비자 조사의 시사점

### 1.5.1.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강화 필요

반려동물의 상업적 대량생산에 대해 응답자들의 82.1%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위반과 유기 및 학대와 관련한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95.4%,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일정수준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83.4%의 높은 찬성을 나타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와 소유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15.2.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최근 맹견에게 공격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출 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62.4%)’와 ‘사고 시 맹견주인 처벌 강화(55.6%)’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맹견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3. 반려동물 등록 교육 강화와 방법 다양화 필요

반려견 소유주의 약 25.1%가 반려견을 등록해야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알고 있으면서도 등록을 안 한 사람은 50.7%나 되었다. 등록을 안 한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할 때 동물에 발생할 피해가 우려되어서’가 높게 나타났다. 동물 등록 시 불편한 점으로는 ‘등록 장치 선택폭 제한’과 ‘동물 등록비용 과다’가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등록 방법의 다양화, 등록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15.4. 반려동물을 맡기고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 확대 필요

반려동물을 사육하면서 어려운 부분으로 ‘혼자 두고 외출/여행 가기 힘들’이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설물, 털 등 관리의 번거로움’이 33.7%, ‘병원비, 사료비 등 비용 과다’가 25.9%로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사육 시 애로사항으로는 ‘갑자기 크게 짖는 등 소음 발생 시 민원 발생’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향후 늘어났으면 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로 ‘외출 시 맡길 수 있는 호텔, 놀이방 등’이 53.2%, ‘동물 트레이닝 센터’가 39.1%로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외출 시 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며, 배변 교육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설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반려동물 및 관련 서비스 소비 성향 분석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한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는 사료, 수의서비스, 미용, 용품, 돌봄 서비스, 장례 등이 있다. 이중 소비자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에서 55%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표 서비스로 선정하여, 반려동물 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분석한다.

### 2.1.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McFadden(1974)의 확률효용 모형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다양한 속성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해 반려동물 사료의 속성별 소비자 선호를 규명하고,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였다. 응답자  $n$ 이  $j$ 번째 사료를 선택할 때 얻게 되는 효용함수는 식 (4-1)과 같다.

$$U_{nj} = V_{nj} + \epsilon_{nj} \quad (4-1)$$

여기서  $V_{nj}(Z_{nj}, S_n)$ 는 확정부분으로 선택 대안의 속성( $Z_{nj}$ )과 개별 응답자의 특성( $S_n$ )의 함수이며,  $\epsilon_{nj}$ 는 확률부분으로 관측할 수 없는 변수이다. 응답자  $n$ 이  $i$ 번째 대안 대신  $j$ 번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식 (4-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_{nj} = P(V_{nj} + \epsilon_{nj} \geq V_{nk} + \epsilon_{nk}; k \in C_i) = P(V_{nj} - V_{nk} \geq \epsilon_{nk} - \epsilon_{nj}) \quad (4-2)$$

여기서 확률변수  $\epsilon_{ij}$ 가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independent)이고 개별적(identical)인 제 I 극한치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조건부 로짓(Conditional Logit) 모형을 적용하면, 응답자  $n$

이  $j$ 번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은 식 (4-3)과 같이 표현된다.

$$P_{nj} = \frac{\exp(V_{nj})}{\sum_{k \in C_i} \exp(V_{nk})} \quad (4-3)$$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속성으로 구성된 선형함수  $V_{nj}$ 를 식 (4-4)와 같이 설정하였다. 효용함수의 계수들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V_{nj} = (1 - no_n) \times (\beta_1 price + \beta_2 organic + \beta_3 origin + \beta_4 function + \beta_5 allergy + \beta_6 marine + \beta_7 vegetable + \beta_8 mix) + \beta_{no} no_n \quad (4-4)$$

여기서 *price*는 반려동물 사료가격, *organic*는 유기농원료 사용 여부, *origin*는 국내산 여부, *function*은 기능성재료 포함 여부, *allergy*는 알레르기물질 첨가 여부를 의미하며, 원료 성분은 육류를 기준변수로 하여 *marine*(수산물 포함), *vegetable*(채소 포함), *mix*(원료의 혼합)는 더미변수이다.

선택실험법에서 추정된 모수를 활용하면 응답자들의 효용함수를 알 수 있고, 효용함수를 통해 속성 변화에 따른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즉, 한계지불의사(marginal willingness-to-pay, MWTP)를 구할 수 있다(식 4-4).

$$MWTP_i = \frac{dP}{dZ_i} = - \frac{\beta_i}{\beta_p} \quad (4-4)$$

단,  $Z_i$ :  $i$ 번째 속성,  $P$ : 가격,  $\beta_i$ :  $i$ 번째 속성의 계수,  $\beta_p$ : 가격 계수

또한, 추정된 계수와 속성의 값들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각 속성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RI)를 산출할 수 있다.

$$RI_m = \frac{|\beta_m| \cdot R_m}{\sum_{k=1}^M |\beta_k| \cdot R_k} \quad (4-5)$$

단,  $R_m$ :  $m$ 번째 속성 값의 범위이다.

## 2.2. 분석의 위한 조사 개요

조건부 로짓 모형은 제품이나 서비스 대안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로 부터 소비자가 각 속성(attribute)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와 각각 속성 수준의 효용(utility)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즉 여러 속성 수준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대안들의 프로파일(profile)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선택한 결과를 토대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만족도와 속성 수준의 가치를 측정한다(지인배 외 2015; 이학식 2013).

조건부 로짓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속성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사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kg당 가격, 유기농 원료 사용 여부, 원산지, 기능성 재료 첨가 여부, 알레르기 물질 첨가 여부, 원료의 주성분으로 구분하고, 속성별 수준을 아래 <표 4-7>과 같이 정하였다.

총 320개( $5 \times 2 \times 2 \times 2 \times 2 \times 4$ )의 대안 중 직교계획을 통해 30개의 대안을 선택하였으며, 각 선택 문항은 선택하지 않음을 포함하여 모두 세 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총 588명을 3개 그룹(약 180명씩)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당 5번의 질문을 반복 시행하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sup>32</sup> RI는 Halbrendt et al.(1995)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다(김창길 외 2016: 7).



〈표 4-7〉 반려동물 사료의 속성과 속성 수준

속성	속성수준	
kg당 가격	1) 5,000원, 2) 8,000원, 3) 10,000원, 4) 12,000원, 5) 15,000원	5가지
유기농 원료 사용 여부	1) 유기농, 2) 일반	2가지
원산지	1) 국산, 2) 수입	2가지
기능성 재료 첨가 여부	1) 첨가, 2) 무첨가	2가지
알레르기 물질 무첨가 여부	1) 첨가, 2) 무첨가	2가지
원료 주성분	1) 육류, 2) 수산물, 3) 채소, 4) 혼합	4가지

## 2.3. 분석 결과

### 2.3.1. 모형추정결과

조건부 로짓 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회귀 모형의  $R^2$ 와 유사한  $Pseudo R^2$ <sup>33</sup>를 이용한다.  $Pseudo R^2$ 이 0.1 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며, 0.2에서 0.4 사이에 있을 때 적합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sup>34</sup>  $Pseudo R^2$ 가 조건부 로짓모형에서 0.110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부 로짓 모형 추정 결과, 반려동물 사료원료의 주성분이 수산물인 계수 추정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다른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반려동물 사료의 기능성 재료 첨가 여부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반려동물 사료원료의 주성분이 혼합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sup>33</sup>  $Pseudo R^2 = 1 - \log L_1 / \log L_0$ 로서,  $L_0$ 는 상수항만을 포함한 모형의 Likelihood,  $L_1$ 은 속성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Likelihood이다(이성우 외 2005: 95; 재인용 McFadden 1974).

<sup>34</sup> 구자춘(2013: 75; 재인용 Louviere et al. 2000, Hensher and Johnson, 1981).

7개의 반려동물 사료 속성과 비선택으로 구성된 8가지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 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원료의 주성분, 유기농원료 사용 여부, 알레르기 물질 미첨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산지와 기능성재료 첨가 여부는 다른 속성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았다.

〈표 4-8〉 반려동물 사료 속성의 선택실험법 추정 결과

변수		추정계수	t값	상대적 중요도 (RI, %)
No(상수)		-1.4976	-12.37***	53.6
가격		-0.0001	-6.04***	12.8
유기농원료 사용 여부		0.3460	8.20***	9.3
원산지		0.1138	2.73***	3.1
기능성재료 첨가 여부		0.0696	1.67*	1.9
알레르기 물질 무첨가 여부		0.2799	6.67***	7.5
원료 주성분 (육류 기준)	수산물	-0.1715	-2.35**	4.6
	채소	-0.2359	-3.41***	6.3
	혼합	-0.0366	-0.49	1.0
Log likelihood		-2,876		
Pseudo R <sup>2</sup>		0.110		
관측치 개수		8,820		

주: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

### 2.3.2. 반려동물 사료 속성의 한계 지불의사

추정된 계수를 토대로 반려동물 사료의 속성별 한계 지불의사를 계측하였다. 한계 지불의사의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가 고안한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사료에 대해 7,438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등 알레르기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에 대해서는 6,058원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으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사료에 대하여 2,459원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던 기능성 원료 첨가사료에 대해서는 1,491원의 추가 지불의향을 보여 다른 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를 보이고 있다.

〈표 4-9〉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추정 결과

변수		지불의사금액(원)		
		평균(원)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유기농원료 사용		7,438	5,323	10,192
원산지(국산)		2,459	880	4,273
기능성재료 첨가		1,491	-18	3,155
알레르기 물질 미첨가		6,058	3,991	8,7041
원료 주성분(육류 기준)	수산물	-3,581	-5,979	-1,193
	채소	-5,039	-7,831	-2,528
	혼합	-682	-3,154	-2,002

주: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의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였음.

## 2.4. 분석의 시사점

반려동물 사료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사료와 알레르기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에 대하여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농원료를 사용하며 알레르기 물질은 첨가하지 않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육류 함유량이 높은 반려동물 사료는 고품질 사료로 인식되므로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 주성분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육류의 함유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특성과 선호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료를 제작·판매하는 등 시장 차별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반려동물 사료의 가격이 낮아질수록, 원료의 주성분이 육류일 경우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반려동물 사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서는 보다 좋은 원료를 이용한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고,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산 고급 육류 사료 원료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산 사료가 고가의 수입 사료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제도<sup>35</sup>

### 1.1. 일본의 반려동물 사육 현황

일본 반려동물사료협회는 2016년 전국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육실태조사를 조사하여 사육 마릿수를 추정하였다. 2016년 전국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987만 8천 마리, 반려묘 사육 마릿수는 984만 7천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묘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와 비슷하며, 반려견의 사육 마릿수는 약간 감소하였다(일본 반려동물사료협회<sup>36</sup> 2017).

〈표 5-1〉 일본의 2016년 반려동물 사육현황

구분	세대수 (천 가구)	사육세대율 (%)	사육세대수 (천 가구)	평균사육 마릿수(마리)	사육 마릿수 (천 마리)
반려견	55,812	14.16	7,902	1.25	9,878
반려묘	55,812	9.93	5,542	1.78	9,847

주: 반려묘의 사육 마릿수 조사결과에는 길고양이 마릿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일본 반려동물사료협회(2017. 1.). 『2016년 전국 반려견·반려묘 사육실태조사』.

<sup>35</sup> 본 절은 위탁연구로 추진된 이용건(일본 북해도대 박사과정)의 “일본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제도”의 원고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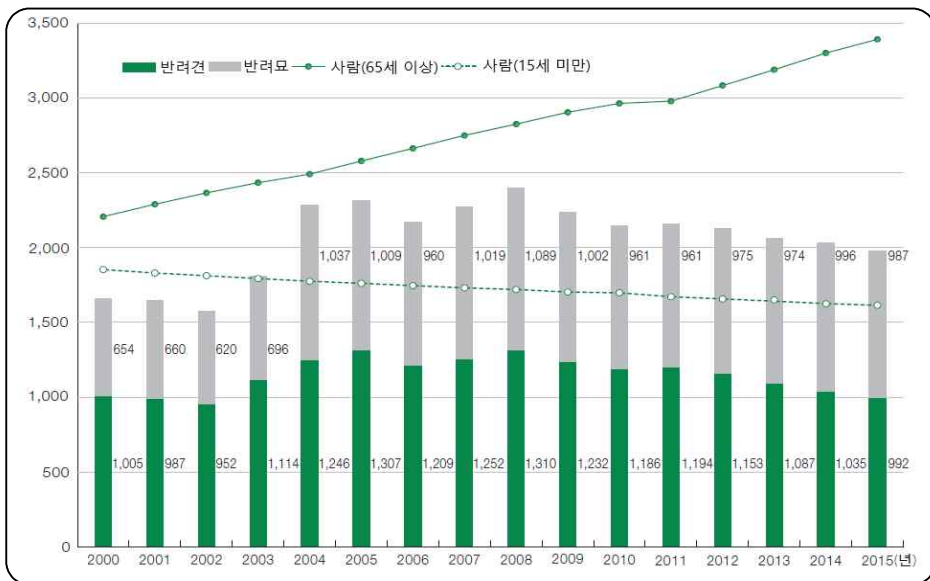
<sup>36</sup> 반려동물 사료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95개사(정규회원 60개사, 찬조회원 35개사)로 조직되어 있다.

한편, 의료비 등을 포함해 반려동물에 지출하는 총비용은 2016년 기준 반려견의 경우 8,136엔(2015년: 7,841엔), 반려묘는 5,435엔(2015년: 5,087엔)으로 나타났다(일본 반려동물사료협회 2017).

일본은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15세 미만의 인구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독신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2008년 1,310만 마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반려묘 사육 마릿수는 낮 시간에 집이 비어있는 세대에서도 사육하기 쉽다는 것 등의 이유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5-1〉 일본의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 및 사람 수 현황

단위: 한 마리, 만 명



주: 길고양이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원자료)일본 반려동물사료협회(2017. 1.). 『전국 반려견·반려묘 사육실태조사』. (재인용)아니름 홀딩스주식회사(2016. 12. 5.). 『가정동물백서 2016』.

## 1.2.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현황

### 1.2.1. 반려동물 사료 산업

일본 농림수산성이 반려동물사료협회를 통해 조사한 「반려동물 식품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5년 반려동물 사료의 판매액은 2,666억 엔으로 전년도 생산액의 95.2% 수준으로 4.8%p 감소하였다. 이 중 국내 생산품은 1,141억 엔, 수입품은 1,514억 엔으로 국내생산품이 총 판매액의 4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동물 사료의 판매량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판매량은 56만 4,907톤으로 전년 대비 5.4%p 감소하였다. 이 중 일본 국내 생산품은 28만 2,918톤, 수입품은 28만 1,989톤으로 일본 국내 생산품이 총 출하량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내생산품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며, 수입품의 판매량도 2.5%로 감소하였다.

〈표 5-2〉 일본 반려동물 사료의 판매액 및 판매량

단위: 백만 엔, 톤

구분	판매액(전년 대비 비중)			판매량(전년 대비 비중)		
		국내생산	수입		국내생산	수입
2010년	268,308 (98.5%)	102,457	165,851	685,806 (97.2%)	331,955	353,851
2011년	264,367 (98.2%)	101,963	162,404	667,302 (96.5%)	322,262	345,040
2012년	262,806 (99.3%)	101,333	161,473	644,219 (96.8%)	311,819	332,400
2013년	268,132 (102.0%)	103,754	164,378	655,082 (101.7%)	312,742	342,340
2014년	278,984 (104.0%)	107,666	171,317	596,870 (91.1%)	307,665	289,205
2015년	266,557 (95.2%)	114,135	151,422	564,907 (94.6%)	282,918 (92.0%)	281,989 (97.5%)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각 연도). 『반려동물식품산업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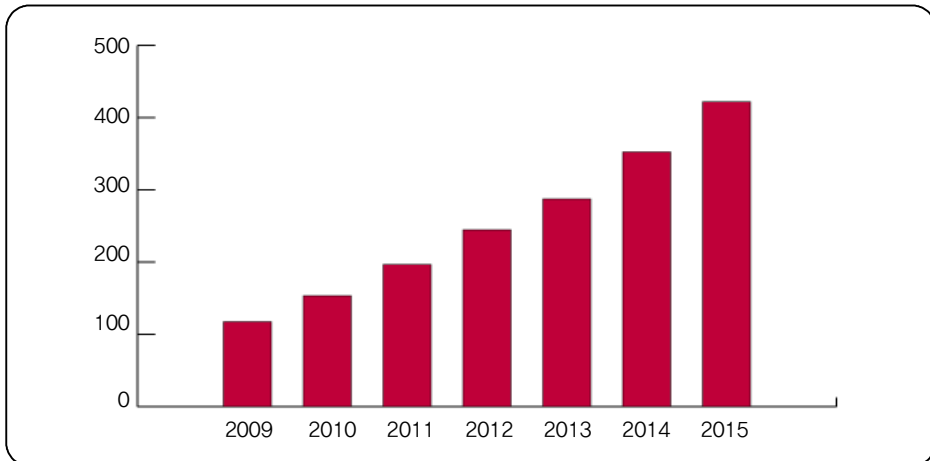
## 12.2. 반려동물 보험산업<sup>37)</sup>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은 1995년에 최초로 출시되었으며, 2017년 현재 반려동물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는 13개사가 있다. 일본의 반려견과 반려묘 약 2,000만 마리 중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려동물은 약 5% 정도인 약 100만 마리로 추정된다.<sup>38)</sup>

최근 “반려동물 보험의 인지도 향상”과 “반려동물의 가족화”, “동물 의료의 고도화”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의 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육 마릿수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반려동물 보험의 순수익보험료(Net Income Insurance Premium)의 연평균 성장률은 23.7%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순수익보험료의 점유율은 아이콤 손해보험과 아이펫 손해보험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과점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2〉 일본의 반려동물 순수익보험료의 추이

단위: 억 엔



자료: PEDGE(<http://pedge.jp>: 2017. 8. 27.). 애완동물 보험업계 동향.

<sup>37)</sup> PEDGE 홈페이지(<http://pedge.jp>: 2017. 8. 27.)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sup>38)</sup> 영국의 반려동물 보험의 가입률은 반려묘에 한정하면 약 45% 정도이다.



(주)일본동물고도의료센터(Japan Animal Referral Medical Center)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8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을 검토하고 싶다 또는 검토 중이다”로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51.6%로 나타났으며,<sup>39</sup> 반려동물 보험의 가입률은 약 5%대에 불과하다. 즉 필요성은 높지만 가입 의지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이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12.3. 반려동물 용품 산업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산업의 판매 동향 등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시행하고 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반려동물용품공업회에서 시행한 「반려동물 용품산업 실태조사(2014년, 2015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3〉 반려동물 용품의 판매액

구분	2014년 판매액 (백만 엔)	2015년 출하액 (백만 엔)	전년비 대비 (%)	응답회사수 (개소)
반려견 용품	92,946	97,611	105.0	75
반려묘 용품	30,699	32,732	106.6	54
관상어 용품	14,604	15,166	103.8	26
소동물 용품	6,726	7,135	106.1	27
조류 용품	3,225	3,355	104.0	13
곤충 용품	1,749	1,752	100.2	12
파충류 용품	1,315	1,278	97.2	13
합계	151,265	159,029	105.1	101

주: 일본반려동물용품공업회에 가입해 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101사의 조사결과임.

자료: 일본반려동물용품공업회(<http://www.jppma.or.jp>: 2017. 8. 23.). 반려동물 용품산업 실태조사(2014년, 2015년).

<sup>39</sup> (주)일본동물고도의료센터. 2015. 3. 26. “성장 가능성에 관한 설명자료.”

2015년 반려동물 용품의 판매액은 총 1,590억 엔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그 중 반려견 용품이 929억 엔으로 총 판매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반려묘 용품이 306억 엔으로 전체 판매액의 2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충류 용품을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 용품의 판매액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반려묘 용품이 전년 대비 6.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12.4. 반려동물 장례산업<sup>40</sup>

반려동물의 가족화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람과 같이 장례,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서비스 업종 및 반려동물 공원묘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반려동물 공원묘지에서의 매장은 사람의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 사십구제 등의 서비스가 준비된 곳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사업은 전용 화장터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공동 묘원 외에 자동차에 화장용 설비를 탑재한 프랜차이즈 사업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의 공원묘지 한구석에 반려동물을 매장했었지만, 수요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공원묘지도 등장하였다. 현재는 주인과 같은 무덤에 매장하는(납골 시설은 구분되어 있음) 공원묘지도 등장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운영방식도 다양하다. 길고양이의 사체 처리를 무료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 사체 처리를 위한 지정장소에 반입·회수하는 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료 ~ 3,000엔” 정도이다.

요코하마시와 같이 반려동물 전용 화장로에서 개별 화장을 하고 유골도

<sup>40</sup> 위키백과 반려동물공양(<https://ja.wikipedia.org/wiki/ペット供養>; 2017. 8.)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돌려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2~3kg 정도의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2만 엔 정도로, 반려동물 공원묘지의 화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보유한 반려동물 화장로에서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화장하는 경우가 많다. 요코하마시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코하마시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요코하마 시민에 한하며, 시외 거주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5-4〉 요코하마시의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이용 안내

화장의 종류	개별화장	합동화장
화장 방법	1마리씩 개별 화장로에서 화장함.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화장함.
유골의 취급	유골은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는 유골함(요금은 화장료에 포함)에 넣어서 돌아감.	유골을 받을 수 없음. 유골은 일반사단법인 요코하마 반려동물공동묘원 협회가 관리·운영하는 공동매장시설에 안장됨.
사전예약	사전 전화예약이 필요함. 예약은 화장일로부터 2일 전부터 접수함.	화장장에 직접 반입할 경우 사전예약은 불필요함. 출장 수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자원순환국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해야 함.
장례식장의 수용범위	9시·10시·11시·12시의 각 시간 2마리씩 총 8마리, 15kg 미만의 반려동물 개별화장 예약을 접수함. 13시에는 1마리 15kg~50kg의 반려동물의 개별 화장 예약을 접수함.	수용 마릿수의 제한은 없음.
크기제한	무게는 50kg 미만, 반려동물을 담은 상자의 외경이 길이 100cm×폭 60cm×높이 35cm 이내일 것	
반입시간	화장을 예약한 시간	9:00~15:00
반입방법	1. 골판지 상자를 준비하고, 방수를 위해 상자의 바닥에 비닐봉지를 깔아야 함. 2. 사체를 면수건 등에 싸서 상자에 담아 반입해야 함.	
유의사항	출장 수거는 없음. 화장시간은 30~80분으로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달라짐.	장례식장에 직접 반입하거나 출장 수거를 의뢰할 수 있음.
1마리당 화장요금	1kg 미만: 10,000엔 1kg~5kg: 20,000엔 5kg~25kg: 25,000엔 25kg~50kg: 30,000엔	직접반입: 3,000엔 출장수거: 6,500엔

자료: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2017. 8.). 『반려동물 화장 안내: 다운』.

### 1.3.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제도는 크게 3개 부처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견병의 관리를 위해 「광견병 예방법」으로 반려견의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성은 동물의 애호 및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으로 농림수산성과 환경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의 수출입은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환경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 1.3.1. 광견병 예방법(후생노동성)

1950년 이전 일본에서는 많은 반려견이 광견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사람도 광견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1950년에 「광견병 예방법」이 시행되어 반려견 등록, 광견병 예방주사, 들개 등의 억류로 7년이라는 단기간에 광견병을 퇴치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반려견 등을 포함하여 광견병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의 목적은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의 방지 및 이를 박멸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생후 91일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과 매년 광견병 예방주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반려견의 등록은 동물관리센터, 보건소, 위탁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광견병 예방 주사는 동물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등으로 예방 주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는 동물 병원에서의 유예절차가 필요하다.

## 가. 반려견의 등록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주인은 법률에 따라 반려견을 취득한 날(생후 90일 이내의 반려견은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즉 반려견이 태어났을 때는 120일 이내에 등록이 필요함). 또한, 등록 후 주소와 주인이 바뀌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은 각각 신고가 필요하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반려견 등록 대장에 기록되지 않으며, 이전 주인과 이전 주소로 통지·연락을 보낸다.

**감찰의 교부** : 거주하는 구의 보건복지센터 생활환경업무담당 또는 광견병 예방 주사업무 위탁동물병원(이하 위탁동물병원)에서 신청하여 감찰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감찰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구의 보건복지센터에서 재교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1년에 1회 광견병 예방 주사와 주사 제표도 받아야 한다.

**소유자 변경** : 반려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의 주인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교부된 감찰과 주사 제표를 지참하여 이사한 지역의 시구청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려견의 등록은 평생에 한 번만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의 변경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반려견 사망**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광견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시·구의 보건복지센터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 대상자는 반려견의 주인이며, 반려견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나. 광견병 예방주사(매년 1회)

「광견병 예방법」에 의해 생후 91일 이상의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 주사가 의무화되어 있다. 매년 1회 광견병 예방주사와 주사제표를 받아야 한다. 교부된 감찰과 광견병 예방 주사 제표는 반드시 강아지의 목걸이 등에 장착시켜야 한다. 각 시·구에서는 매년 1회(4월~6월)에 구내 보건소·출장소

등에서 반려견의 등록과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게 할 수 있는 “정기 집합 주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5-5〉 반려견 감찰과 광견병 주사제표의 요건

반려견 감찰		광견병 주사 제표	
내구성 있는 재료 - 목걸이, 몸통 등에 장착 가능 - “강아지 감찰”의 문자: 보기 쉬운 색상,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 등록번호 - 도도부현 또는 국가를 식별하는 후생노동 대신이 정하는 문자, 숫자 등 - 도시의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등		내구성 있는 재료 - 목걸이, 몸통, 감찰 등에 장착 가능 - 주사 시행 연도 - 도도부현 또는 국가를 식별하는 후생노동 대신이 정하는 문자, 숫자 등 - 도시의 이름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등 - 색상: 2010년 황색, 2011년 빨강, 2012년 파랑, 이후 반복	
디자인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위원장이 결정 또는 - 단경 15mm 이상으로 장단변비 5:7의 타원형 또는 짧은 변 15mm 이상으로 장단변비 3:4의 직사각형		디자인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 위원장이 결정 또는 - 지름 10mm 이상의 원형 또는 짧은 변 10mm 이상의 장단변비 1:2의 직사각형	
도쿄도 중앙구	홋카이도 삿포로시	도쿄도 중앙구	홋카이도 삿포로시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2017. 8.);

도쿄도 중앙구 홈페이지(<http://www.city.chuo.lg.jp/>: 2017. 8.);

홋카이도 삿포로시 홈페이지(<https://www.city.sapporo.jp>: 2017. 8.).

반려견의 등록수수료와 광견병 예방접종의 요금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한, 반려견 감찰과 광견병 예방 주사 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 수수료가 발생한다. 도쿄도와 북해도의 예시는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 반려견의 등록과 광견병 예방주사 요금

구분		도쿄도 중앙구	북해도 삿포로시
반려견 등록	등록수수료	3,000엔	3,200엔
	감찰의 재교부(분실했을 때)	1,600엔	1,800엔
광견병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접종 요금	31,000엔	2,560엔
	광견병 예방 주사 제표 교부수수료	550엔	700엔
	광견병 예방 주사 제표 재교부(분실했을 때)	340엔	400엔

주: 각 시·구마다 조금씩의 요금차이가 있음.

자료: 도쿄도 중앙구 홈페이지(<http://www.city.chuo.lg.jp/>: 2017. 8.);

삿포로시 홈페이지(<https://www.city.sapporo.jp>: 2017. 8.).

2015년 일본의 반려견 등록 마릿수는 652만 6,897마리이며, 예방접종 마릿수는 468만 8,240마리로 일본 전체의 접종률은 72%로 나타났다. 도도부현별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야마가타가 92.3%로 가장 높았으며, 오키나와가 48.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1995년까지의 접종률은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접종률이 높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는 72~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5-7〉 일본의 반려견 등록두수 및 광견병 예방 주사 두수

연도	등록두수(두)	예방접종두수(두)	접종률(%)
1990년	3,889,612	3,862,619	99%
1995년	4,223,830	4,303,566	102%
2000년	5,779,462	4,606,527	80%
2005년	6,479,977	4,796,585	74%
2010년	6,778,184	4,961,401	73%
2011년	6,852,235	4,985,930	73%
2012년	6,785,959	4,914,347	72%
2013년	6,747,201	4,899,484	73%
2014년	6,626,514	4,744,364	72%
2015년	6,526,897	4,688,240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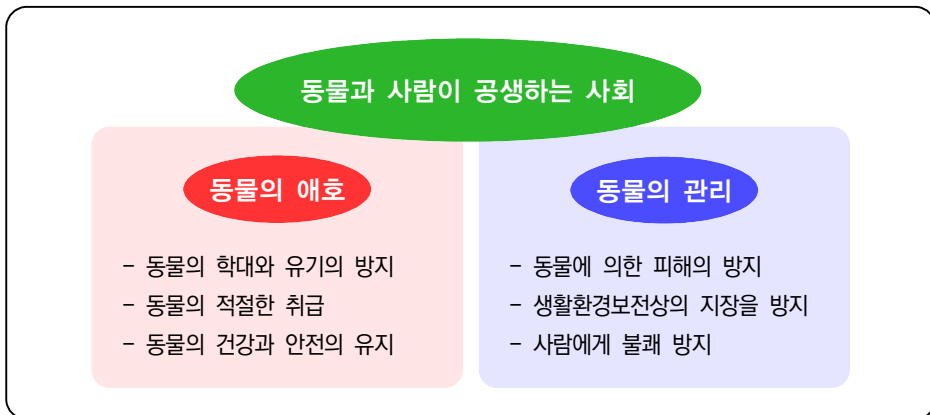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http://www.mhlw.go.jp>: 2017. 8.).

### 13.2.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 애호 관리법)<sup>41</sup>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후 동물애호관리법)은 1973년 9월에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1999년과 2005년, 2012년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의 학대나 유기를 막고 동물의 적절한 취급이나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으로써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과 함께 동물을 단순히 귀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키우고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나 소음과 악취 등 생활 환경상의 지장을 방지하고자 한다.

「동물애호관리법」의 목적은 동물의 애호 및 동물의 적절한 관리(위해 등의 방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상 동물은 가정동물, 전시동물, 산업동물(축산동물), 실험동물 등 사람이 사육하는 동물이다.

〈그림 5-3〉 동물 애호 관리법의 목적



자료: 일본 환경성(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

<sup>41</sup> 자료: 일본 환경성(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2012년 개정판)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가. 기본원칙

모든 사람은 “목숨 있는” 동물을 함부로 살상 또는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인간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도록 동물의 습성을 잘 알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동물을 다룰 때는 동물의 종류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히 먹이나 물을 줘 필요한 건강관리를 하고, 동물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른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 나.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

동물의 주인은 “목숨 있는” 동물들의 소유자로서 동물을 애호하며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동물의 종류와 습성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양해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주인은 최대한 그 동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적절하게 사육(평생 사양), 무분별한 번식방지를 위해 불임 거세 수술 등, 동물에서 동물로 또는 동물이 사람에게 옮는 질병(전염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방에 주의, 동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한 마이크로칩이나 미아방지 명찰 등의 표식을 달아야 한다.

## 다. 동물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가이드라인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을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적절하게 동물을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또한, 동물의 주인(소유자)은 키우고 있는 동물에 마이크로칩이나 미아방지 명찰 등을 달아 소유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 등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다(「동물이 자기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 및 「동물의 도살처분방법에 관한 지침」).

## 라.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과 대량사육에 의한 동물 학대의 방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를 초과하는 동물을 사육해 소음과 악취, 동물

털의 비산(飛散), 위생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변 생활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경우와 동물이 쇠약해지는 등의 학대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주인 등에게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하거나 명령한다.

#### 마. 동물취급업의 규제

애완동물 가게나 애완동물호텔 등 영리성이 있는 업종은 제1종 동물취급업이다. 동물보호시설 등 영리성이 없는 업종으로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 마릿수 이상의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2종 동물취급업이다.

이들 동물취급업을 운영할 때는 동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후 도도부현 지사 등에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 도도부현 등의 동물복지담당은 현장검사를 시행해, 시설이나 동물의 취급방법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한다. 또한, 악질업자에게는 등록의 거부나 취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바. 위험 동물의 사육규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로 국가에서 정한 위험 동물(특정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육자는 마이크로칩 등으로 동물의 개체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물이 도주할 수 없는 구조의 시설을 마련해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 사. 반려견과 반려묘의 반환과 부상동물의 수용

도도부현 등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소유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 동물을 원 소유자에게 인도한다. 그러나 동물취급업자로부터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반환이 반복해서 요구되는 경우, 번식제한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강아지나 새끼고양이를 여러 번 분만시킨 경우,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질병이나 고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 평생 사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의 장소에서 질병이나 상처를 입은 반려견이나 고양

이 등(부상동물) 또는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도도부현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도도부현 등은 부상동물이나 사체를 수용한다. 도도부현 등은 수용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원래의 사육자에게 돌려주거나 사육자를 모를 경우에는 새로운 사육자에게 양도하도록 한다.

#### 아. 동물 애호주간과 보급 계발

국가나 도도부현 등은 학교, 지역, 가정 등에 대한 교육활동, 홍보활동을 통해 동물의 애호와 적절한 사육의 보급계발을 시행한다. 또한, 매년 9월 20일부터 26일을 동물 애호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 자.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 및 추진 계획

국가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지침(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시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해 계획적이고 통일된 시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기본지침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을 결정한다. 이 추진계획은 10년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다.

〈표 5-8〉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 및 추진 계획

동물 애호관리 기본지침 (국가) (2013년 개정)	[구성] 제1 동물의 애호 및 관리의 기본적인 사고 제2 향후 시책전개의 방향 제3 동물 애호관리 추진계획의 책정에 관한 사항 제4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의 점검 및 검토
	[마련해야 할 시책] 도도부현 등의 반려견과 반려묘의 회수 마릿수는 2023년도까지 2004년 대비 75% 감소한 약 10만 마리를 목표로 함. 소유자에게의 반환과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를 추진해 도살 처분율의 한층 더 감소를 도모함. 등
동물 애호관리 추진계획 (도도부현)	[구성] 1) 시책의 기본 방침 2) 동물의 적절한 사양 및 보관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해 시의 시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체제정비에 관한 사항 5) 보급 계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 사항

자료: 일본 환경성(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2012년 개정판).

## 차. 동물 애호 추진원과 협의회

도도부현 지사 등은 동물애호와 적절한 사양을 위해 지역에 동물애호 추진에 열의와 식견이 있는 사람을 “동물 애호 추진원”으로 위촉해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동물 애호 추진원은 지역에서 사육자 등에 동물의 적절한 사양에 대한 조언, 번식방지에 대한 조언, 양도 알선, 국가나 도도부현 등의 시책에 대한 협력, 재해 시의 동물의 피난보호 등에 필요한 협력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 카. 벌칙

애호 동물을 함부로 살상한 자, 무관심 등의 학대를 저지른 자, 동물을 유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 동물(특정 동물)을 사육한 자, 등록하지 않고 제1종 동물취급업체를 운영한 자는 벌금이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법인소속의 종사자가 업무로 시행했을 때는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표 5-9〉 동물애호와 관련된 주요처벌

내 용	처벌
애호동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
애호동물을 함부로 학대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애호동물을 유기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동물을 사육·보관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록을 하지 않고 제1종 동물취급업을 영위한 자	100만 엔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제2종 동물취급업을 시행한 자	30만 엔 이하의 벌금
부적절하게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 자가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

자료: 일본 환경성(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2012년 개정판).

### 13.3. 동물취급업에 대한 규제

#### 가. 제1종 동물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 ① 규제를 받는 업종

제1종 동물취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해당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소·업종별로 도도부현 지사 등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규제대상은 실험동물과·산업동물을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판매, 보관, 훈련, 전시, 대여, 경매중개업, 양수(讓受)사육업 등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대리판매나 애완동물 도우미, 출장훈련 등과 같이 사육시설이 없는 경우도 규제의 대상이다.

〈표 5-10〉 제1종 동물취급업의 사업내용 해당업자

업종	사업내용	해당 업자의 예
판매	동물의 소매 및 도매 또는 그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및 수출입 행위(그의 중개 또는 대리 포함)	- 소매업자·도매업자 - 판매 목적의 번식 또는 수입업자 - 판매를 위한 동물의 사육업자 - 사육시설이 없는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보관	보관을 목적으로 고객의 동물을 맡는 업무	- 애완동물 호텔 업자 - 미용 업자(동물을 맡는 경우) - 애완동물 도우미
대여	애완, 촬영, 번식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업무	- 애완동물 대여업자 - 영화 등의 배우·촬영모델·번식용 등 동물 파견 업자
훈련	고객의 동물을 맡아 훈련을 담당하는 업무	- 동물의 훈련·조교 업자 - 출장 훈련업자
전시	동물을 보여주는 업무(동물과 만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 동물원, 수족관, 이동 동물원, 동물 서커스, 동물 접촉 테마파크 - 승마 시설 - 동물매개치료업자(「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매 알선	동물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알선, 장소를 마련해 경매하는 업무	- 동물경매시장의 운영업자
양수 사육업	유상으로 동물을 양도받아 사육하는 업무	- 고령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돌보는 “노견·노묘 Home”의 사업자

자료: 일본 환경성(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2012년 개정판).

## ② 제1종 동물취급업자의 의무

제1종 동물취급업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고, 주위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도도부현 등에 따라 지역 사정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표 5-11〉 동물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 사육시설 등의 구조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각각의 동물의 적절한 크기와 공간의 확보
- 급수·급이 시설과 기구 등 필요한 설비의 배치
2. 사육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일 1회 이상의 청소를 시행
- 동물의 도주를 방지
3. 동물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유령(幼齡, 어린 나이)동물의 판매 등의 제한
- 동물 상태의 사전확인
- 구매자에 대한 사전설명
- 적절한 사육 및 보관
- 광고의 표시규제
- 관계법령에 위반한 거래의 제한
4. 전반적인 사항
- 표시나 명찰(식별 표)의 개시
- 동물취급책임자의 배치

자료: 일본 환경성(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2012년 개정판).

동물취급책임자는 구매자에게 올바른 동물사육 방법이나 취급방법을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다. 사업자는 사업소별로, 전담의 동물취급책임자를 정규직원 중에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도도부현 등이 개최하는 연수회를 연 1회 이상 동물취급책임자에게 받도록 해야 한다.

**감염성 질병의 예방** : 매일 정기적으로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수의사에 의한 진찰을 받으며, 백신 등의 접종을 하여 사육하는 동물들 사이나 사람에게 감염성 질병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물을 취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양도하는 등** : 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양도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매 시의 현물확인**과 **대면설명** : 동물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그 개체별로 특징·버릇 등의 개성이 있어, 과거에 상처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다. 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물을 사려는 자에게 그 동물의 현재 상황을 직접 보여줌(현물확인)과 함께 그 동물의 특징과 적절한 사육 방법 등 18항목에 대해서 대면해서 설명해야 한다(대면설명). 따라서 인터넷상에서만 거래는 불가능하다.

### ③ 반려견과 반려묘를 판매하는 자의 의무

제1종 동물취급업 중 반려견과 반려묘를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자는 등록에 있어서 반려견과 반려묘 번식의 시행 여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려견과 반려묘 등 건강안전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반려견과 반려묘 등의 건강안전계획에 따른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육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육 상황을 장부에 기록·보존<sup>42</sup>하여 매년 1회 판매자 등이 등록하고 있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해야 한다. 더욱이 수의사와 연계해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함께 판매가 곤란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평생 사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sup>42</sup> 사육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품종 등 번식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유날짜, 구입처, 판매일, 판매처, 판매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확인 사항, 영업 담당자의 이름, 대면설명 등의 시행 상황,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날짜, 사망원인을 장부에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④ 강아지·어린 고양이(유령의 동물)의 판매규제

유령(幼齡, 어린 나이)의 동물, 특히 반려견과 반려묘를 생후 초기 단계에 부모 형제로부터 떼어 버리면, 충분한 사회화가 되지 않아 성장 후에는 짖거나 깨우는 버릇 등이 생기기 쉽다. 이로 인해 키울 수 없게 된 소유자로부터 도도부현 등의 회수요구나 유기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후 56일(2016년 8월 31일까지는 45일, 그 이후 법률이 정해지는 날까지는 49일)을 지나지 않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전시·인도는 금지되어 있다.

#### ⑤ 반려견과 반려묘의 전시 규제

판매업자, 대여업자, 전시업자에 의해 반려견 또는 반려묘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시는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고객과 접촉하거나, 양도하거나, 넘기는 것을 포함하여 금지되어 있다.<sup>43</sup>

#### ⑥ 현장검사, 처벌 등

도도부현 등의 동물 애호 담당직원의 현장검사결과 지켜야 할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동물의 관리와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개선권고 또는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악질적인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주요 처벌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나 개선 명령이나 업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등록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 반려견과 반려묘 등 판매업자가 정해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만 엔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sup>43</sup> 2014년 5월 31일까지는 성묘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전시하는 경우에만 오후 10시까지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나. 제2종 동물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 ① 신고의 대상

비영리 활동(동물 애호단체의 동물 보호 센터, 공원 등에서 전시 등)도 사람의 주거영역과 구분할 수 있는 사육 시설을 갖추고, 일정 마릿수 이상의 동물 취급(양도·전시·훈련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종 동물취급업으로서 미리 사육시설이 있는 도도부현 지사 등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표 5-12〉 제2종 동물취급업의 신고 대상 마릿수 및 사육시설

○ 신고 대상 사육예정 마릿수
- 말·소·타조 등의 대형 포유류 또는 조류 및 특정동물: 총 3마리 이상
- 반려견·반려묘·토끼 등의 중형 포유류 또는 조류 및 파충류: 총 10마리 이상
- 상기 이외의 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 총 50마리 이상
○ 신고 대상 사육시설(사람의 주거영역과 구분 가능한 사육시설)
- 전용의 사육시설이 있는 대상
- 사육을 위해 사람의 주거영역과 구분되는 영역(방 등)을 마련한 대상
- 케이지 등으로 사육장소가 사람의 주거영역과 구분되는 대상

자료: 일본 환경성(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2012년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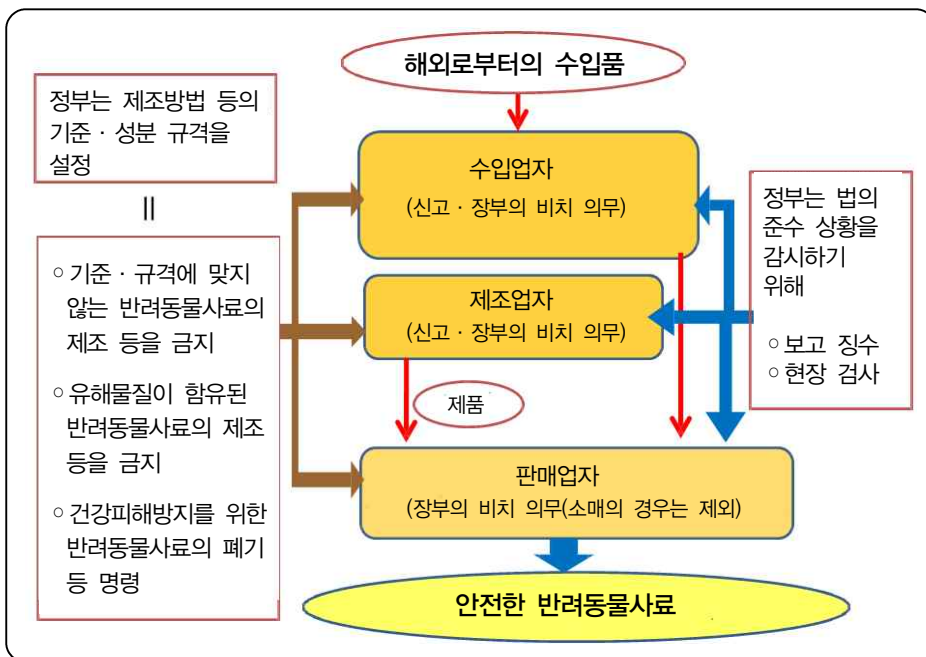
### ② 제2종 동물취급업자의 의무, 처벌 등

사육하는 동물의 적절한 사양을 확보하기 위해 급이 시설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함과 함께 도주의 방지, 깨끗한 사육환경의 확보, 소음 등의 방지 등이 의무화되어있다. 부적절한 경우는 도도부현지사 등으로부터 권고·명령의 대상이 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제2종 동물취급업을 영위한 경우는 30만 엔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 1.4. 반려동물 사료안전법(농림수산성·환경성)

2007년 미국에서 반려동물 사료에 의해 반려견과 반려묘가 잇달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도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은 2007년 8월에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이 연구회에서는 ① 동물 애호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확보는 시급히 시행해야 하며, ② 제조, 수입, 판매 등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③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법적 규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 제언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은 2008년 6월 18일에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인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을 공포하였다.

〈그림 5-4〉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2015. 2. 1.).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2009년 12월부터 농림수산 대신과 환경 대신이 정한 성분규격 및 제조 방법에 맞지 않는 반려견과 반려묘용 사료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되었다(단, 2009년 12월 1일 이전에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것은 제외함). 또한, 2010년 12월부터 판매되는 반려견과 반려묘용 사료는 “명칭”, “원재료명”, “유통기한”, “제조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원산지 국가”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었다(단,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것은 제외함).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판매에 해당하는 규격은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제5조에 의거 “반려동물용 사료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으로 정해져 있다.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기준·규격은 다음 <표 5-13>과 같으며, 대상은 반려견과 반려묘용 사료이다.

표시의 기준은 안전 확보 및 문제발생 시 원인 규명의 관점에서 이하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 명칭 : 반려동물 사료의 상품명은 반려견 또는 반려묘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 원재료명 : 원칙으로 사용한 원재료(첨가물 포함)를 모두 기재함. 첨가물 이외는 곡류, 어패류 등의 분류명에 의한 표시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 유통기한 : “연·월·일” 또는 “연·월”을 표시
-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자의 종별과 함께 기재
- 원산지 국명 : 내용물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최종 가공공정을 완료한 국가

〈표 5-13〉 반려동물사료의 성분규격

구분		성분 등	상한치 (μg/g)
첨가물 ( 2항목)		에톡시퀸(Ethoxyquin)·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150(합계량), 반려견용은 에톡시퀸 75이하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2015년2월20일부터 적용)	100
농약 ( 5항목)		Chlorpyrifosmethyl	10
		Pirimiphos-methyl	2
		Malathion	10
		Methamidophos	0.2
		Roundup	15
오염 물질	곰팡이 (2항목)	Aflatoxin B1	0.02
		Deoxynivalenol	2(반려견), 1(반려묘)
	중금속 등 (3항목)	카드뮴(Cadmium)	1
		납	3
		비소	15
	유기 염소계 화합물 (5항목)	BHC(α-BHC, β-BHC, γ-BHC 및 δ-BHC의 합계량)	0.01
		DDT(DDD 및 DDE을 포함)	0.1
		앨드린(Aldrin)·딜드린(dieldrin)(합계량)	0.01
		엔드린(Endrin)	0.01
		헵타클로르(Heptachlor)·헵타클로르 에폭시(Heptaclour Epoxy) (합계량)	0.01
기타(1항목)	멜라민(Melamine)(2015년 2월 20일부터 적용)	2.5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안전관리과(2015. 2. 1.).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표 5-14〉 반려동물사료 제조방법의 기준

구분	성분 등	기준
유해 미생물	유해미생물 전반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는 원자재 등에서 유래해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처리할 것
첨가물	프로필렌 글라이콜 (Propylene glycol)	반려묘용으로는 사용하면 안 됨.
원료전반	기타 유해물질 등	유해한 물질을 포함 또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의심되는 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됨.

주: 법률 제7종에 따라 필요한 규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안전관리과(2015. 2. 1.).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개요』.

〈그림 5-5〉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대상과 표시 의무사항

■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의 대상

● 주식 ● 종합영양식	● 간식 ● 간식, 스택 등	● 기타 ● 일반식, 간식 등
물과 함께 급여하면 반려동물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는 주식을 사료	기호성이 높고, 간식, 훈련 등의 보상으로 급여하는 식품	기호성이 높고, 식욕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ドライフード, ウェットフード, ソフトドライ(半生)フードなど	 ジャーキー、菓干し、スティック、クッキー、ポーク、ガムなど、形態はさまざま	 ● 注意 ● 特定の 질병에 대해 식이요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도한 식품 ※ 수의사의 처방에 근거하여 급여하는 식품 서플리먼트·영양보조식 영양소가 부족할 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영양보조식

■ 반려동물사료의 표시 의무사항



- 1 명칭**  
반려견용인지  
반려묘용인지를 알 수 있게 표시
- 2 유통기한**  
영양가와 맛을 보증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
- 3 원재료명**  
첨가물도 포함해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
- 4 원산지 국명**  
제조된 국가명을 표시
- 5 사업자명과 주소**  
사업자의 종별과 명칭, 주소를 표시

자료: 일본 환경성(2011. 2.). “알고 납득! 반려동물사료의 표시.”

## 2. 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제도

### 2.1.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2.1.1. 미국의 반려동물 사육 현황

미국 내 반려견 사육 마릿수는 2000년의 6,800만 마리에서 2017년 8,97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반려묘는 2000년 7,300만 마리에서 2017년 9,520만 마리로 각각 매년 평균 1.6% 증가하였다. 반려견 사육가구 수는 2000년의 4천만 가구에서 2017년 6,020만 가구로 매년 평균 2.4%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사육가구 수는 2000년의 3,470만 가구에서 2017년 4,710만 가구로 1.8% 증가하였다. 2017년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5마리, 반려묘는 2.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National Pet Owners Survey).

〈표 5-15〉 연도별 사육 마릿수 및 사육가구 수 현황

연도	사육 마릿수(만 마리)		사육가구 수(만 가구)		가구당 사육 마릿수(마리)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	반려묘	반려견	반려묘
2000년	6,800	7,300	4,000	3,470	1.7	2.1
2002년	6,500	7,737	4,060	3,530	1.6	2.2
2004년	7,390	9,050	4,350	3,770	1.7	2.4
2006년	7,408	8,830	4,480	3,840	1.7	2.3
2008년	7,750	9,360	4,560	3,820	1.7	2.5
2010년	7,820	8,640	4,630	3,890	1.7	2.2
2012년	7,820	8,640	5,670	4,530	1.4	1.9
2015년	7,780	8,580	5,440	4,290	1.4	2.0
2017년	8,970	9,520	6,020	4,710	1.5	2.0
증감률	1.6%	1.6%	2.4%	1.8%	-0.8%	-0.2%

주: 2017년은 전망치임.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2012~2017. *APPA national Pet Owner Survey*.

## 2.1.2. 반려동물 생산 및 분양 현황

반려견을 입양하는 방법으로는 브리더에게 구입하는 게 34%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이 23%, 친구 또는 친척에게서 구한 경우가 20%로 나타났다. 반려묘의 경우 주된 획득 방법이 동물 보호소 입양으로 약 31%에 달하였으며, 친구 또는 친척으로부터 입양이 28%, 유기동물 입양이 27%에 해당하였다(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National Pet Owners Survey 2017).

〈표 5-16〉 미국의 반려동물 입양 경로

단위 : %

입양 경로	반려견	반려묘
동물보호소	23	31
친구 및 친척	20	28
브리더	34	3
유기동물	6	27
선물	12	6
기타	32	39

주: 복수응답으로 전체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2012~2017. *APPA national Pet Owner Survey*.

2016년 미국 컨넬클럽(AKC)<sup>44</sup>에서 발표한 가장 인기 있는 브리딩 견종은 리버라도 리트리버,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순이었다. 미국 동물복지단체(AHA)에서 발표한 인기 브리딩 묘종은 페르시안, 메인쿤, 엑조틱 종이였다. 그러나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는 잡종견 및 토종 고양이(Domestic Shorthair)로 각각 전체 사육 마릿수의 53%와 95%를 차지하고 있다.

<sup>44</sup> American Kennel Club: 미국 애완동물단체로서 순수 혈통견 등록 및 표준 품종을 선정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표 5-17〉 미국 내 브리딩 선호 견종 및 묘종

순위	개 <sup>1)</sup>	고양이 <sup>2)</sup>
1	리버라도 리트리버	페르시안
2	저먼 셰퍼드	메인쿤
3	골든 리트리버	엑조틱
4	불독	래그돌
5	비글	스핑크스

자료 1) American Kennel Club(2017. 3.). *The Labrador Retriever Wins Top Breed for the 26th Year In a Row.*

2) American Humane Association(2013). *U.S. Pet Population Fact Sheet.*

미국 동물복지협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브리딩 업체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약 10,0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USDA의 Class A 및 B 면허를 가지고 있는 브리딩 업체는 1,90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브리딩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반려견은 165,474마리이며, 이 중 번식견은 107,558마리로 일 년에 평균 9.4마리의 강아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합법 브리딩 업체에서 생산하는 강아지는 101만 1,046마리였으며, 비허가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브리딩 업체의 전체 강아지 생산 마릿수는 202만 마리로 추정된다.

〈표 5-18〉 미국 내 브리딩 업체 현황

사 항	2012년	2014년	2016년
미국 내 브리딩 업체 (허가 및 비허가 업체 포함 추정치)	10,000업체 이상 추정	10,000업체 이상 추정	10,000업체 이상 추정
허가 업체 수	3,441	1,924	1,902
허가업체에서 보유한 반려견 총 마릿수	130,000	167,388	165,474
허가업체에서 보유한 번식견(암개) 마릿수	84,000	108,802	107,558
번식견 평균 강아지 생산 마릿수	9.4	9.4	9.4
허가업체에서 생산한 강아지 마릿수	847,000	1,022,740	1,011,046
전체 브리딩 업체에서 생산한 강아지 마릿수 (비허가 업체 물량을 포함한 추정치)	2,000,000	2,040,000	2,020,000

자료: 미국 동물보호협회(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2012, 2014, 2016). *Puppy Mills: Facts and Figures.*



### 2.1.3. 미국의 도그쇼 및 캣쇼 현황

#### 가. 현황

세계 애완동물협회(World Pet Association)에서는 미국 소매업자들을 위한 “Super Zoo” 및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를 위한 “Atlanta Pet Fair &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America’s Family Pet Expo”와 “Global Pet Show”는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반려동물 쇼이다.

〈표 5-19〉 미국의 반려동물 쇼 현황

대회 로고	대회 명	대상
	Super Zoo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펫쇼
	Atlanta Pet Fair & Conference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를 위한 경연대회
	America’s Family Pet Expo	일반인 대상 펫쇼 및 연관 산업 박람회
	Global Pet Show	반려동물 생산업체 주관으로 열리는 일반인 대상 펫쇼

자료: 세계애완동물협회 홈페이지([www.worldpetassociation.org](http://www.worldpetassociation.org); 2017. 8. 27.).

한국 애견연맹에서는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 도그쇼를 세계 3대 도그쇼<sup>45</sup>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본 도그쇼는 1877년부터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매년 2월에 이틀간 개최되고 있다. 이 쇼는 1948년부터 TV로 방송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인에게 도그쇼를 특별한 스포츠로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애묘인 협회인 국제 고양이 협회(CFA, Cat Fanciers' Association)에서는 미국 버펄로에서 1906년에 처음으로 캣쇼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캣쇼를 개최하고 있다. 캣쇼 참가 고양이를 크게 키튼(4~8개월령), 챔피언십(8개월 이상), 프리미엄십(중성화가 된 8개월령 이상), 베테랑(7세 이상), 하우스홀드펫(4개월령 이상 가정에서 양육된 고양이)등으로 분류하여 시상하고 있다(CFA 홈페이지).

〈그림 5-6〉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도그쇼와 CFA 캣쇼



자료: 1) 한국애견연맹([http://www.thekcc.or.kr/new\\_home/07\\_dogshow/01\\_about\\_dogshow\\_2.asp](http://www.thekcc.or.kr/new_home/07_dogshow/01_about_dogshow_2.asp): 2017. 10. 10.). 세계 3대 도그쇼.

2) 국제고양이협회(CFA)(<http://cfa.org/Shows/AwardWinningCats/TopCats,201617.aspx>: 2017. 8. 27.). CFA's Top Cats in Championship 2016-17.

<sup>45</sup> 3대 도그쇼에는 웨스터민스터 도그쇼와 함께 각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FCI 월드 도그쇼, 영국에서 개최되는 크러프트 도그쇼가 있다.

## 나. 반려동물쇼의 경제 파급 효과

미국 컨넬클럽은 앞에서 언급한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를 비롯하여 국제 도그쇼, AKC/유카누바 국제 챔피언십 등의 다양한 행사들을 주최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 클럽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회 참가자 중 8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14,00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그쇼에 참가하는 클럽은 대회 참가에 평균 8,000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약 15억 달러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회 참가 시 1인당 각종 부대비용을 합한 총 지출액은 1,249달러 수준이다. 대회 참가자의 주된 지출 항목은 숙박비 및 차량대여로 각각 209달러와 197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수의 진료 및 연료비, 식비 등으로 각각 153달러, 118달러, 121달러를 지출하였다(미국 컨넬클럽 2015).

〈표 5-20〉 도그쇼 참가자의 1인당 지출 항목 및 액수

단위: 달러

항목	지출 규모	항목	지출 규모
숙박비	209	애완동물 용품	68
차량 대여	197	유형비	55
수의진료	153	세탁비	30
연료비	118	인쇄비	24
기타 차량관련 지출	113	주차비	24
식비	121	기타비용	68
참가복 및 선물	69	합계	1,249

자료: American Kennel Club(2015. 8. 21.). "The Economic Benefits of AKC Dog Ev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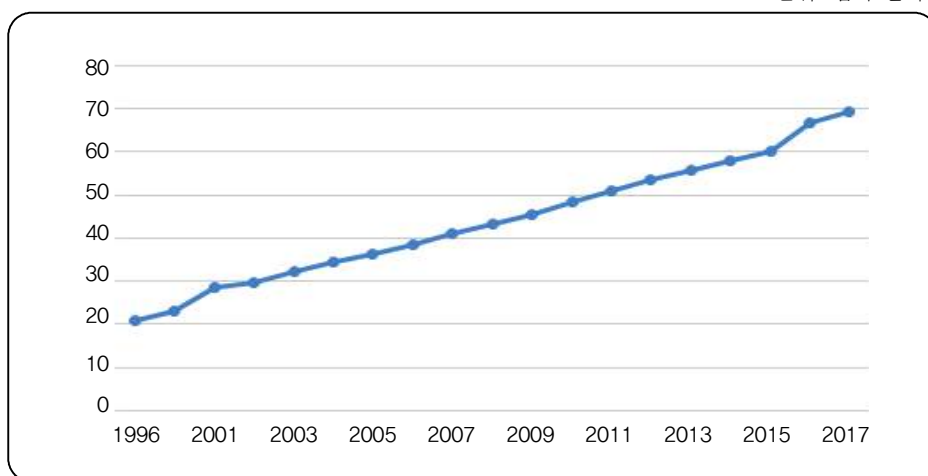
## 2.2. 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

### 2.2.1.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괄

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은 1996년 210억 달러에서 이후 매년 평균 6.4%씩 성장하여 2016년에는 667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매출액은 693억 6천만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2012~2017).

〈그림 5-7〉 미국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주: 2017년은 전망치임.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2012~2017. *APPA national Pet Owner Survey*.

이 중 2017년 전체 지출액 중에서 사료는 42.8%에 해당하는 296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비용으로 24%에 해당하는 166억 2천만 달러, 반려동물 용품 및 약품으로 21.5%에 해당하는 149억 3천만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2017).

반려견 사육가구의 경우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는 응급 진료료로써 연평균 474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임신 위탁비용으로 322달러, 정기검진으로 257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를 모두 합친 지출금액은 1,549달러로 조사되었다. 한편 반려묘의 경우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역시 응급 진료로 사육가구는 245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어서 사료로 235달러, 정기검진으로 182달러를 지출하였다. 고양이의 연평균 지출 비용은 988달러로 조사되었다.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2017).

〈표 5-21〉 미국의 반려동물 품목별 매출액 전망(2017)

단위: 십억 달러, %

	매출액 전망	비율
사료	29.69	42.8
반려동물 용품 및 약품	14.93	21.5
의료	16.62	24.0
반려동물 구입	2.01	2.9
기타	6.11	8.8
합계	69.36	100.0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2012~2017. *APPA national Pet Owner Survey*.

〈표 5-22〉 미국 내 반려견 및 반려묘 사육가구의 연평균 품목별 지출비용

단위: 달러

지출 품목	반려견	반려묘
응급 진료	474	245
정기 검진	257	182
사료	235	235
식이요법	72	56
임시 위탁	322	164
비타민제	58	46
털 손질	84	30
장난감	47	30
합계	1,549	988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2012~2017. *APPA national Pet Owner Survey*.

## 2.2.2. 반려동물 사료산업 현황

반려동물용 사료 판매액은 2016년에는 282억 3천만 달러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에는 <표 5-21>과 같이 296억 9천만 달러로 5.1% 증가가 예상된다(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2017). 또한 향후 소득 증가 및 1인 가구 수 증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반려동물 사료 매출액은 향후 2022년까지 매년 3.4%씩 꾸준히 전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Arenofsky 2017). 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커지면서 고품질 및 고가 제품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이지연 2017).

### 가. 사료산업 시장특징<sup>46</sup>

**고급화** :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판되던 무첨가 제품(예: gluten free)이 반려동물용으로 대상을 바꾸어서 판매되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무첨가 제품이 건강제품으로 인식되면서 반려동물 주들이 무첨가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비만문제가 제기되면서 체중조절용 사료가 선호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 증가** : 사료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유통채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대형 유통 업체 및 할인마트(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등) 이외에도 반려동물 전문업체(펫스마트, 펫코),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가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반려동물 제품 판매사이트인 츠이(chewy)가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신규기업이 온라인 유통망을 이용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의 진입 난이도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며, 다양한 업체들의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sup>46</sup> 이지연(201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사료산업 향후 전망** : 경기상승에 따른 소비증가로 반려동물 산업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PPA)에서는 미국 반려동물 숫자는 현재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료산업 매출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 회복세와 주택시장 및 증시 호전으로 기대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2.3. 수의 및 진료 현황

반려동물의 주요 질병으로 비만과 당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반려견의 54%, 반려묘의 58%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뇨는 2006년 이후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각각 32%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세 이상 반려견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으로 전체 반려견 중 50%에서 발병하였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2세 이하의 반려견 사망원인 1위는 안락사로 집계되었다. 반려묘의 경우 신장염 및 암과 감염증에 의한 폐사비율이 높으며, 안락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American Humane Association, 2013).

### 2.2.4. 반려동물 보험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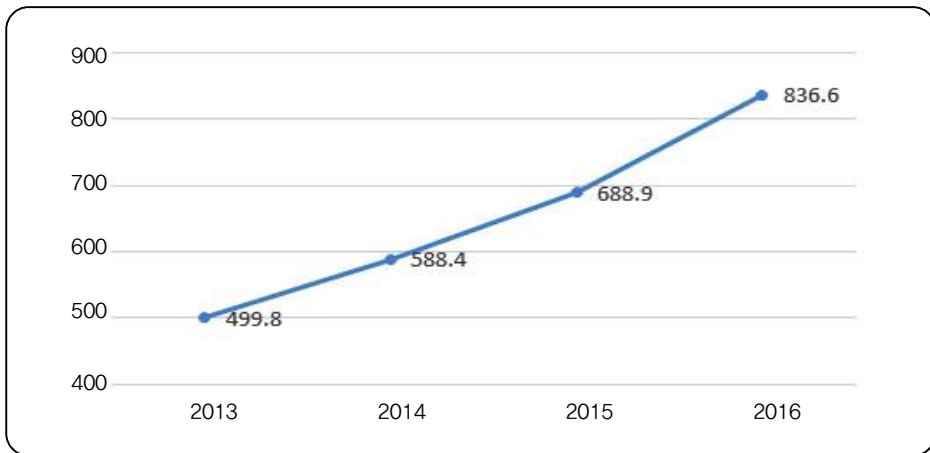
동물 보험은 1890년 Alliance에서 말과 가축을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반려견용 보험이 영국에서 1924년부터 판매되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반려견 대상 보험이 1982년부터 판매되었으며, 2007년 북미반려동물 보험사업협회(NAPHIA)가 설립되어 보험 회사 간 질서유지 및 반려동물 보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NAPHIA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업 규모는 2013년 4억 9,980만 달러에서 2017년 8억 3,660만 달러로 연평균 18.7%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북미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은 약 180만 마리였으며 가입 동물의 평균 연령은 4.86세였다. 보험가입 건수와 2015년

반려견 및 반려묘 사육 마릿수(각각 7,780만 마리와 8,580만 마리)를 비교해볼 때, 보험 가입률은 대략 10%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보험 판매건수 중 사고 및 질병 보장 보험이 전체의 98%로써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고 보장 보험은 2%에 불과하였다(NAPHIA 2017).

〈그림 5-8〉 미국의 반려동물 보험업 규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북미 반려동물보험사업협회(2017).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17."

사고 보험의 경우 반려견 평균 보험료는 2013년 156.6달러에서 2016년 168.4달러로 매년 평균 2.4% 증가한 반면 사고 및 질병 보험의 경우 2013년 431.5달러에서 2016년 517.6달러로 6.3%씩 증가하였다. 반려묘의 사고 보험은 2013년의 120.5달러에서 2016년 149.5달러로 연평균 7.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고 및 질병보험의 경우 2013년 268.8달러에서 2016년 321.3달러로 매년 6.1%씩 증가하였다(NAPHIA 2017).

애완견 관련 잡지인 Canine Journal에서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보험을 분석한 뒤 5개 보험 상품을 추천하였으며, 이중 Healthypaws사(社)가 판매하는 보험을 1순위로 추천하였다. 이 보험은 버지니아주 거주 4세 거세견의 경우 매월 보험료가 47.49달러로 산정되었으며, 진료를 받을 경우 개인 부담금은 250달러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



비는 무제한인 상품이다. 이외에도 Pet Best, Pet Plan, Trupanion, Embrace에서 판매하는 보험이 추천을 받았다.


〈표 5-23〉 미국의 반려동물별 평균 보험료

단위 : 달러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사고보험	반려견	156.6	159.3	164.2	168.4	2.4%
	반려묘	120.5	122.2	135.9	149.5	7.5%
사고 및 질병보험	반려견	431.5	457.7	465.0	517.6	6.3%
	반려묘	268.8	292.1	316.3	321.3	6.1%

자료: 북미 반려동물 보험사업 협회(2017).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17."

〈표 5-24〉 미국 내 반려동물 보험 인기 순위 및 보장 범위와 지출비용

인기순위	회사명	보험료	개인 부담금	최대 진료비 보장범위
1	 healthypaws <sup>®</sup> PET INSURANCE & FOUNDATION	47.49달러/월	250달러	무제한 보장
2	 PetsBest <sup>®</sup> PET HEALTH INSURANCE	57.11달러/월	250달러	무제한 보장
3	 Petplan <sup>®</sup> pet insurance	67.30달러/월	250달러	무제한 보장
4	 trupanion <sup>®</sup> Medical Insurance for your pet	68.28달러/월	250달러	무제한 보장
5	 EMBRACE <sup>®</sup> PET INSURANCE	58.70달러/월	200달러	\$ 1만 달러

주: 버지니아주 거주 4세 기준 중성화된 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임.

자료: Canine Journal(<https://www.caninejournal.com/pet-insurance-reviews/>: 2017. 8. 27.). "Pet Insurance Reviews 2017."

## 2.2.5. 반려동물 장례업 현황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식을 치루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위치한 장의사 사무실 중 반려동물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15%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2011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50여만 건의 반려동물 장례식이 치러진 것으로 추산되며, 장례비용은 동물의 크기 및 매장지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된다. 20파운드 이하의 반려동물을

나무관으로 매장 시 비용은 130달러에서 시작되며 연간 관리비용으로 30달러가 청구된다. 한편 고급관을 사용하면 비용은 340달러로 증가하며, 유명한 매장지를 선택할 경우 추가비용이 소모된다(Stone 2016). 예를 들어 휴스턴 소재 Bit of Heaven 묘지는 장소 제공료로 625달러를 받고 있으며 매년 관리비로 30달러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화장하여 납골함에 넣어주거나 묘비를 세우는 등의 추가 서비스도 제공된다(Bit of Heaven 홈페이지).

## 2.3. 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현황

### 2.3.1. 반려동물 관리부서

미국은 통합된 부서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담당 부분을 나눠 관리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연방 동물보호법」<sup>47</sup>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안에는 「군용동물 입양법」, 「동물피해 조정법」, 「동물 복지법」, 동물 싸움에 관한 사항, 「인도적 도살법」, 「28시간 법」<sup>48</sup> 등이 속해 있다. 「군용동물 입양법」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동물피해 조정법」, 「동물 복지법」 및 동물 싸움에 관한 사항, 「인도적 도살법」은 농무부에서, 「28시간 법」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 분양 및 사육 관련제도(브리딩 업체 관리) 등은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사료 및 동물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관리국(FDA)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해외를 여행하거나 특정 주(예: 하와이 등)를 방문할 경우 미국 동식물 검역소(APHIS)에서 제시하는 검역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각 주정부가 별도로 반려

<sup>47</sup> 황선훈(201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sup>48</sup> 미국 내 동물 운송시 음식과 물을 제공하며, 휴식 없이 28시간 이상 운송수단에 가둬두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다.

동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맹견 관리제도 및 동물보호소 운영 등은 각 주정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 2.3.2. 반려동물 관련 협회 현황

미국의 주요 반려동물 관련 협회중 하나로써 미국 동물애호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를 들 수 있다. 북미지역에서 처음 설립된 비영리 동물 보호단체로써 현재는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류 및 동물 연대 연구 재단(human animal bond research initiative foundation: HABRI)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는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생산하는 1,200여 개의 업체가 모여서 만든 생산자 중심 단체이며, 반려동물 산업유통협회(Pet Industry Distributors Association: PIDA)는 도매 유통업자들이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한편 세계 반려동물 협회(World Pet Association)는 상품 전시회, 컨퍼런스,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협회이다.

### 2.3.3. 반려동물 분양 및 사육관련제도<sup>49</sup>

미 농무부(USDA)에서는 딜러 및 번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용 분양 면허(Commercial Dog Breeder License)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딜러는 연구 및 수업, 사냥, 경비 및 번식을 이유로 개를 거래하는 이를 말하며, 일반적인 소매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기관 및 전람회 출품용, 타 소매점 납품의 경우는 일반 소매업자라도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연구용으로는 매년 25마리 이상의 개 및 고양이를 연구 목적으로

<sup>49</sup> 미 농무부 동식물 검역소(USDA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Regulatory Compliance for Commercial Dog Breeder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판매하는 경우이며, 번식업자는 5마리 이상의 번식견 및 번식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면허증은 크게 Class A, Class B, Class C로 구별된다.

**Class A** : 사육장에서 동물을 번식 및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대부분의 번식업자들이 해당된다.

**Class B** : 동물을 구입 및 재판매하거나 이를 위해 동물을 이송시키는 경우 및 동물 경매를 담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Class C** : 동물을 전시 및 출품할 경우에 해당되며, 서커스 공연, 동물원 전시, 동물극에 동물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이다. 하지만 소매상점 및 가축 품평회, 로테오경기, 사냥개 선발대회(Field Trial) 등은 제외된다.

Class A 및 B 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사육장 환경에 대한 수의사 검진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향후 수의검사에 대한 계획서 작성과 이에 대한 수의사의 확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 2.3.4. 맹견 관리 및 규제 사항

미국에서는 해마다 4~5백만 명의 사람이 개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이중 80만 여명의 사람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개의 공격으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39개 주 및 각 시에서는 사나운 개를 제재할 수 있는 법 및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안을 통틀어 「맹견 관리법(Dangerous Dog Law)」으로 부르고 있다(Walden, 2015).

### 가. 개의 분류

**맹견(vicious/dangerous dog)**: 맹견은 위험견 중에서도 위험도가 두드러지는 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힌 개를 말한다.

**준위험견(Potentially Dangerous dog):** 준위험견은 맹견보다 공격성은 떨어지나 위험성은 있는 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거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가까이 접근하는 개를 말한다.

**방해견(Nuisance dog):** 오하이오 및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주에서 규정한 분류로 맹견에 속하기는 하지만 주인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개를 말한다. 또한 야간에 30분 이상 짖거나 땅을 파고 쓰레기통을 쏟아버리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에게도 적용된다.

#### 나.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범죄 및 무단침입으로 개에게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당한 업무를 수행 중인 법집행 기관의 경비견 및 군견에게서 피해를 입은 경우
- 개를 학대하거나 새끼를 괴롭혀서 공격받은 경우
- 개가 고통 및 상처를 피하려고 공격한 경우
- 안내견, 경비견, 경찰견이 업무 수행 중에 공격한 경우
- 사냥견 및 양치기 개의 경우

#### 다. 맹견(vicious/dangerous dog) 지정 절차

각 주마다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으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공문발송
- 동물관리 기관 또는 법 집행기관의 조사
- 압수, 배상, 주의 관련 조항 전달
- 관련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결정사항 공고
- 견주의 이의 신청 접수 및 최종 선고 전달

맹견 지정을 위해서는 집행기관 또는 자치기구의 공청회,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 헌법상 개는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며, 개인의 재산은 법률로써 보장되기 때문에 견주의 이의 신청 및 판정불복에 따른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 라. 맹견(vicious/dangerous dog) 지정 결과

사육하는 개가 맹견 또는 준위험견으로 지정받을 경우 견주는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자신의 개를 맹견으로 등록하고 특정 자격증 취득
- 맹견주의 표지판 설치
- 개를 울타리를 친 장소에서 사육할 것
- 울타리에서 나올 경우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씌울 것
- 안락사 시행
- 중성화 및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통제가 안 되거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을 공격하였을 경우 동물관리 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 이사하거나 개가 사망한 경우 동물 관리기관에 통보할 것
- 책임보험(최소한도 10만 달러)에 가입할 것
-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목걸이를 부착할 것
- 주인이 바뀔 경우 전주인은 새로운 주인에게 맹견임을 문서로 전달할 것

#### 마. 처벌 조항

워싱턴 DC에서는 위 조항을 어겼을 경우 초범에 한해 경범죄를 적용하여 500달러 이하, 9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이후 재발될 시 1,000달러 이하 및 9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

뉴저지에서는 위반기간에 대해 1일당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플로리다에서는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3급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

### 2.3.5. 반려동물 사료산업 제도

미국 식품 의약품 관리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반려견 및 반려묘 사료에 대한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다. 「연방식품·약품·화장품관리법(FFDCA)」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에도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 및 위생조건, 위해물질 규제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라벨을 붙여 중요 정보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통조림은 반드시 살균 조리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 시 FDA에서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료에 첨가되는 비타민, 미네랄, 방항제, 보존제 등은 기타 법률(21 CFR 570, 571)에 의해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착색제 등은 별도규정에 따라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는 사료의 용도, 중량, 제품명, 제조사명, 영양제공량 등을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FDA에서는 미국 사료관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AAFCO)와 함께 동물용 사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AAFCO는 별도 규정을 통해 사료 원료에 대한 품질, 처리 및 운송 방법, 위험물질 관리기준, 첨가물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2.3.6. 반려동물 수의 및 진료 제도

#### 가. 반려동물 진료 시스템<sup>50</sup>

미국의 반려동물 수의시장이 점차 발달하면서 정형외과, 암을 비롯한 다양한 수술이 행해지고 있으며,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재활 의료서비스 관련 시장도 동반하여 성장하고 있다. 미국 내 수의용 의약품의 경우 FDA의 동물약품 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반려

<sup>50</sup> 이영대(2016) 및 AVMA, Veterinarian EDU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동물용 의약품은 처방전을 통해 구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약국 및 슈퍼마켓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동물의료 관계자는 크게 수의사(veterinarian), 수의 간호사(veterinary technician), 수의 간호조무사(veterinary assistant)로 분류되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veterinarian)는 질병의 진단, 판정, 병태 해석, 진단서 작성, 치료 및 수술 등 동물 의료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이후 수의과대학에서 4년간의 수의학 교육 이수 후 수의사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 주 수의사 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받게 된다.

수의 간호사(veterinary technician)는 임상검사 및 채혈, 치과 처치, 생검, 검사 및 문진, 진료기록카드 기재, 피부 봉합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진단, 예후판정, 처방 및 수술의 4가지 업무는 금지되어 있다. 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 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서 병리학, 생리학, 임상실습, 동물 행동학, 동물 약리학을 이수해야 한다. 수의 간호사의 연간 수입은 33,280달러~47,410달러에 달한다.

수의 간호조무사(veterinary assistant)는 수의사 및 수의간호사의 감독 하에서 동물 간호 및 간단한 진료보조 업무를 행한다. 수의 간호조무사는 주로 지역사회 대학(communitary college), 직업 교육원, 기술대학(technical institute) 등에서 교육 이수를 받으며 교육 과정은 약 6~12개월이다. 주요 학습내용은 의학용어 학습, 동물 보정법,<sup>51</sup> 품종 확인법, 약품 관리 방법 등이며, 수의 간호조무사의 평균 연봉은 약 24,360달러~38,000달러에 달한다.

## 나. 동물 안락사 규정<sup>52</sup>

미국의 동물 안락사 규정은 각 주별 법령으로 규정되어 세부사항은 주마다 상이하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동물 보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일정교육을 이수할 경우

<sup>51</sup> 동물의 실험이나 치료를 위해 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sup>52</sup> AVMA의 State Laws Governing Euthanasi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위급상황에 대한 안락사의 경우 또는 동물에 의해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 혹은 질병을 일으킬 상황에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 동물통제소 직원, 수의사 또는 기타 지정된 인원이 사살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한 안락사가 허용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의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는 인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증인을 동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육이완제 (펜토바비탈 나트륨) 주사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가스 중독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지만 질식사하기까지 시간이 길고 고통이 심해 일부 주(캘리포니아, 테네시,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 델러웨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일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전설 2013).

### 3. 외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관련 제도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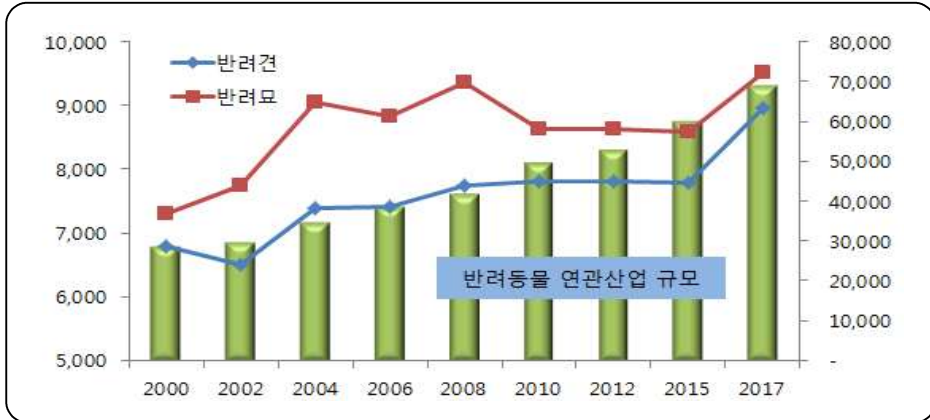
#### 3.1. 미국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하나 일본은 정체

미국은 반려동물 수요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다양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견과 반려묘 사육마릿수는 2017년 8,970만 마리와 9,520만 마리로 증가추세이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2000년 약 230억 달러에서 2017년 69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고령인구 증가(65세 이상)와 15세 미만 인구 감소로 인해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육 마릿수는 2008년 각각 1,310만 마리와 1,089만 마리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료산업은 정체인 반면 용품산업, 보험, 돌봄, 장례는 성장 중이다.

〈그림 5-9〉 미국의 반려동물 사육 추이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추이

단위: 만 마리, 백만 달러



자료: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2012~2017. APPA national Pet Owner Survey.

### 3.2. 일본과 미국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 등 제도 발달

우리나라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로 「동물보호법」만이 존재하는데 반해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광견병 예방법」, 환경성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와 농림수산업성의 「반려동물 사료안전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반려동물과 관련 산업을 관리·보호·육성하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은 1950년 이전 많은 사람이 광견병에 걸려 사망하면서, 동 법을 통해 광견병 퇴치에 성공하였다. 「광견병 예방법」을 통해 반려견의 등록과 예방 접종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마릿수는 2015년 기준 653만 마리 수준으로 전체 반려견의 약 66% 수준이며, 등록마릿수의 72%인 469만 마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법은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의 애호와 동물의 관리를 목표로 제정되었다. 본 법에서는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 동물을 적절히 취급하는 가이드라인, 주변 환경의 보전과 대량사육에 의한 동물 학대 방지, 동물취급업에 대한 규제, 위험동물의

사육규제, 유기동물의 관리, 동물 애호를 위한 교육·홍보와 적절한 사육 방식의 보급, 동물애호관리 기본지침(추진계획), 동물애호관리원과 협의회, 벌칙 등을 다루고 있다. 동물취급업과 관련하여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을 제1종으로 규정하고 판매, 보관, 대여, 훈련, 전시, 경매·알선, 양수·사육업 등 7개로 분류한다. 제1종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판매자의 의무, 어린 동물의 판매규제, 전시 규제, 현장검사 및 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였다. 제2종은 비영리 활동에 대한 규제이다.

일본은 2007년 미국에서 반려동물 사료에 의해 반려동물이 죽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7년 8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확보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8년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본 법에서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한 성분규격 및 제조방법에 맞지 않는 반려동물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시켰다. 사료의 명칭, 원재료명, 유통기한, 제조업자, 원산지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통합된 부서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담당 부분을 나눠 관리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연방 동물보호법」<sup>53</sup>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안에는 「군용 동물 입양법」, 「동물피해 조정법」, 「동물 복지법」, 동물 싸움에 관한 사항, 「인도적 도살법」, 「28시간 법」<sup>54</sup> 등이 속해 있다. 「군용동물 입양법」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며, 「동물피해 조정법」, 동물 복지법 및 동물 싸움에 관한 사항, 「인도적 도살법」은 농무부에서, 「28시간 법」은 법무부에서 관장한다.

반려동물 분양 및 사육 관련제도(브리딩 업체 관리) 등은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사료 및 동물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관리국(FDA)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주정부가 별도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맹견 관리제도 및 동물보호소 운영 등은 각 주정부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sup>53</sup> 황선훈(201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sup>54</sup> 미국 내 동물 운송시 음식과 물을 제공하며, 휴식 없이 28시간 이상 운송수단에 가둬두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다.

### 3.3. 반려동물 분양에 대한 관리

일본은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1종 반려동물판매업에 대해 사육시설, 동물의 등록, 예방접종, 2개월 이하 판매 금지, 전시규제, 입양희망자 교육 등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물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육성에 힘쓰고 있다.

미국 농무부도 딜러 및 번식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분양 면허(Commercial Dog Breeder License)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Class A(번식업자), Class B(유통업자), Class C(전시, 공연 등)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Class A와 Class B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육시설 환경에 대한 수의사 검사기록과 향후 수의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수의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 3.4. 철저한 맹견관리 체계

미국의 경우 맹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신고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맹견이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소 500달러, 이후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관리책임을 주인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동물 보호법령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며, 위반시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어 미국보다 맹견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sup>55</sup>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sup>55</sup> 2017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맹견 관리 대상 확대, 맹견 거래 시 거래내역 신고, 소유자의 책임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소유자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맹견관리 법령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3.5. 반려동물 유기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미국도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동물 유기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중 절반가량인 약 300만 마리가 안락사되고 있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을 상대로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하면 발정기에 들어간 동물들이 가출한 뒤 집을 찾지 못해 유기동물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인디애나 주의 경우 기준소득 이하의 주민에게 20달러의 비용으로 애완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제와 마이크로칩 삽입 기술을 병행하여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주인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소에서는 입양프로그램을 통해 주인이 포기한 반려 동물을 새로운 가정에 소개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있다.

### 3.6. 반려동물 사료 관리 체계 발달

미국 식품의약품관리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반려동물 사료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식품·약품·화장품관리법(FFDCA)」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에도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 및 위생조건, 위해물질 규제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라벨을 붙여 중요 정보를 표시하게 하고 있다.

### 3.7. 미국의 경우 수의 진료 시스템 발달

미국의 반려동물 병원의 인적구성은 수의사, 수의간호사, 수의보조사로 구성되어 있어 수의 업무에 따라 전문화·세분화되어 있다. 수의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 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서 병리학, 생리학,

임상실습, 동물 행동학, 동물 약리학을 이수해야 한다. 수의 간호조무사는 주로 지역대학(communitiy college), 직업 교육원, 기술대학(technical institiute) 등에서 약 6~12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의학용어 학습, 동물 고정법, 품종 확인법, 약품 관리 방법 등이다.

### 3.8. 반려동물 보험의 확대

일본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5%, 미국은 10%, 영국은 2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0.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반려동물 보험 가입 증가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시에 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애완견 치료유기 및 폐사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역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향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이유로는 동물 의료비 기준 책정의 어려움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 때문이므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및 합리적인 동물 의료비 기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 3.9. 도그쇼와 캣쇼를 통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세계 애완동물협회(World Pet Association)에서는 미국 소매업자들을 위한 “Super Zoo” 및 반려동물 스타일리스트를 위한 “Atlanta Pet Fair &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America’s Family Pet Expo”와 “Global Pet Show”는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는 반려동물 쇼로 다양한 반려동물 쇼가 개최되고 있다.

세계 3대 도그쇼<sup>56</sup>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

도그쇼는 1877년부터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매년 2월에 이틀간 개최되며, 1948년부터 TV로 방송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미국 컨넬클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를 비롯하여 국제 도그쇼, AKC/유카누바 국제 챔피언십 등의 다양한 행사들을 주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15억 7,5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도그쇼에 참가하는 클럽은 대회 참가에 평균 8,000달러를 지출하였으며, 1인당 1,249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10. 규모화에 따른 영세업체 감소와 인터넷 업체 성장

기업들의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한 거대화로 반려동물용품을 판매하는 영세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미국 내 유명 반려동물 체인점인 PetSmart와 Petco가 합병함으로써 반려동물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J.M.Smucker는 Big Heart Pet Brands를 2015년에 흡수하였으며,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는 Merrick Pet Care를, Outward Hound는 Petstage를 인수하였다.

한편 아마존([www.amazon.com](http://www.amazon.com)) 및 Chewy([www.chewy.com](http://www.chewy.com))에서는 무료 배송 및 다양한 상품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에게 무거운 사료를 사러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큰 폭의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sup>56</sup> 3대 도그쇼에는 웨스터민스터 도그쇼와 함께 각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FCI 월드 도그쇼, 영국에서 개최되는 크러프트 도그쇼가 있다.





### 1.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향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대인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정신적인 위로와 고독 해소 등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로 대우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부족 등 아직까지 반려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 관련 서비스의 부족, 관련 제도의 미흡으로 일부 반려동물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학대를 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주인들은 생활적인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관련 통계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통해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목표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건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의 생산, 분양, 사육과정에서 동물복지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다 성숙한 의식과 문화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

성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을 통해 관련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 산업과 연관산업은 반려인구의 행복을 증진하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시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건강한 반려동물 생산을 위해 생산과 분양, 유통의 관리 강화, 유기동물을 줄이고 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물등록제 확대,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펫티켓에 대한 교육,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료법 제정, 국산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국산사료의 경쟁력 강화, 수의업의 표준 의료수가제 도입과 동물간호복지사 도입, 보험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관리 강화, 도그쇼 활성화, 서비스 인력 양성 등이다.

〈그림 6-1〉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향



## 2.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방안

### 2.1. 건강한 반려동물 생산과 분양 및 유통, 관리

#### 2.1.1. 적극적인 행정과 미허가업체 제도권 편입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사육 허가제 운영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사육거리제한」,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동물복지를 고려한 건전한 사육환경에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허가 업체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허가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양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 2.1.2. 반려동물 분양 관리 규제 강화

반려동물의 분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분양자와 입양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판매를 통한 택배 배송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앞 장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 소유자의 교육이수 의무화에 대해 83.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반려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동물의 동물건강안전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육 상황을 기록·보존하여 매년 1회 도도부현 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회화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2개월 이하의 어린 반려동물의 분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2.1.3. 반려동물 경매업종의 관리기준 개선

전국에 20개의 경매장이 존재하며, 반려동물의 유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 업종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애견숍에서 2개월령 이상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경매장에서 2개월령 이하가 유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협회에서 요구하는 42일령 이상만이 거래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한 건전한 유통을 위해 농장의 개체정보카드를 반드시 구비하게 하고 경락받는 유통업자는 동물 등록과 동물에 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보관하여 관리기관에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 2.1.4. 전문브리더 등 제도 개선

정부에서 허가한 단체별 브리더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별 기준을 충족하는 브리더에게 전문 브리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입법 시 등록된 협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반려동물 비전문 생산자와 공인된 견종의 혈통을 관리하고 있거나 분양하고 있는 전문 브리더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2.2. 동물 등록 확대

### 2.2.1.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등록대상 확대

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 중 불편한 점으로 ‘등록 장치 선택폭 제한(32.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물등록 비용 과다(25.2%)’로 나타났다. 현재의 동물 등록방법은 ①내장형 무선식

별장치 개체 삽입,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등록인식표 부착의 3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외장형 또는 인식표는 유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칩 삽입 시 동물에 해를 가할 수 있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DNA, 비문,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체 인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에 대한 투자와 상품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양이의 유기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물 등록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광견병 관리차원에서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90일 이상의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매년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도록 한 뒤 이를 증명하는 감찰을 교부해 주고 있다.

## 2.2.2. 동물 등록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동물 등록에 대한 비용지원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내장칩 비용은 20,000원 수준이다. DNA 등록의 경우 한 업체에서 추정한 비용은 현재 85,000원 수준이지만 DNA 검사 등록 건수가 많아질 경우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장칩, DNA 등 동물 등록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기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 더 경제적인 수 있다.

## 2.3.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강화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등 관련 협회 등을 통한 오프라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동물보호와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

리와 유기·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95.4%와 9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BS 교육방송, 공영방송 등 공신력 있는 TV, 라디오, 온라인 콘텐츠를 지원하여 동물 등록 홍보 및 반려문화와 관련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동물등록제를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자들이 접속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육을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반려동물 관련 법령, 특징, 성향, 건강, 위생 등)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은 「동물보호법」의 이해,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수의학, 반려동물의 위생과 미용, 반려동물의 훈련 등이 될 수 있다.

## 2.4.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와 반려동물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맹견에 물리는 사고건수도 연평균 33.0%씩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 외의 품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맹견의 견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과 같이 인명사고 발생 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장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외출 시 맹견에 입마개 착용 의무화’ 62.4%, ‘사고 시 맹견주인 처벌 강화’ 55.6%, ‘맹견주인 교육 의무화’ 37.4% 순으로 대부분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영국에서는 1991년부터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도고 아르센티노와 필라브라질레이루 등은 특별통제견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영국에서 이들 특별통제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인배상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입마개 착용 등을 지켜야 하고 임의로 번식과 판매 교환 등도 할 수 없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대 14년의 징역에 처해진다(동아일보 2017. 7. 15.).

미국도 39개 주에서 「맹견 관리법 (Dangerous Dog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를 맹견(vicious/dangerous dog), 준위험견(Potentially Dangerous dog), 방해견(Nuisance dog)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정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과 3급 범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 3.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 3.1. 반려동물 사료산업 발전 방안

##### 3.1.1. 반려동물 사료법 제정 또는 사료법 개정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반려동물용 사료 관련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한 제도를 산업동물용 사료와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사료에도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 수준의 안전성 및 위생조건 등 법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본의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을 참고하여 정부에서 반려동물 사료용 성분규격과 제조방법, 표시사항 등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 표시에 있어 상대적으로 국산 반려동물 사료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한글 표시사항의 활자 크기를 원산지를 불문하고 외래어가 한글 활자

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 실태, 시장 규모 파악을 위해 (사)한국펫사료협회 등 관련협회에 사료생산실적 조사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에서 이를 관리하여 반려동물 사료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3.1.2. 국산 고급 원료 공급체계 구축

국산 반려동물 사료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원활한 국산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고급사료의 경우 식육가공품 또는 수산가공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여 관련 정책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원료의 정확한 정보 표시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장의 조건부 로짓 모형을 이용한 소비자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성향 분석결과, 소비자는 국내산 사료원료를 수입원료보다 2,459원/kg 더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 원료 사용에 대해서는 7,438원/kg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려동물 사료 원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실험이 가능하도록 관련분야 R&D 지원을 강화하여 임상적으로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3.2. 반려동물 수의 서비스 시장 개선 방안

### 3.2.1. 병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의료분야 제도 도입

반려동물 보호자의 병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어려운 점으로 병원비 등 비



용 과다가 25.9%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동물 진료 항목의 표준화와 진료항목별 표준의료수가 기준 마련 등 반려동물 의료수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시하는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동물병원 진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진료항목의 표준화와 항목별 적정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말에 종료되는 이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료비용 공시제도: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 고시, 게시 의무 부과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동물보험 개발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한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방안, 주요 국가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사례, 사람 의료분야 사례 조사 등
- 진료비용 수가제도: 진료비용 수가제도 도입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주요 국가의 동물진료비용 수가제도, 사람 의료 분야 사례조사 등
- 기타 효율적인 동물진료비 부담 개선방안 조사 등

현행 수의사법 상 과잉진료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수가제나 진료비 공시제가 도입되면,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 의료비 과잉 청구 등에 대한 법적인 기준 마련이 가능해지고, 진료비의 투명성이 높아지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수의사의 진단서 서식에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을 추가하고 각종 검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의료기관 간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중복 검사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병원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sup>57</sup>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법」, 관련세법

<sup>57</sup> 농림축산식품부. 2016. 12.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19쪽.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8</sup>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공급가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관련세법 개정을 통해 의료비와 같이 동물진료비도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3.2.2.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건강 증진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 개선

주사를 이용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행위는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동물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수의사 처방과 지도하에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반려동물 보호자도 주사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 건강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으로 동물이나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 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3년 8월에 도입되었다.<sup>59</sup>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의 유효 성분이 있다. 전문지식을 요하는 유효 성분에는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있다.<sup>60</sup>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는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 제7항). 현행 규정에 의하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를 구입할 수 있어 반려동물에게 주사 투약이 가능하다. 치료용 주사제 유효성분을 비롯하여 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약사법」 개정과 수의사 처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sup>58</sup> 대한수의사회. 2016. 1. “동물의료체계 및 동물진료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

<sup>59</sup>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

<sup>60</sup>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43호).

### 3.2.3.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sup>61</sup>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이외의 사람이 채혈,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접종 등 동물 진료와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 동물간호사가 진료 보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동물간호복지사가 수의사의 동물 진료 행위를 보조하고, 일반 의료 서비스의 간호사가 행하는 채혈, 접종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 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춰야 하고, 일반 의료분야의 간호사와 같이 동물간호복지사 자격과 면허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병원의 인적구성을 수의사, 수의간호사, 수의보조사로 구분하여 전문화,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의 수요에 맞추어 수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일환으로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동물간호사의 채혈, 스케일링 등 기초 진료행위 허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위해 2016년 12월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sup>62</sup>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의 이유로 「수의사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수의사법」 개정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간호복지사의 정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사항, 양성기관 지정 및 평가 사항, 양성기관의 취소사항, 자격시험 시행 근거, 수행 업무 근거, 그 밖의 동물간호복지사 준용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sup>61</sup> 김현중 외(2016)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sup>62</sup>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http://www.lawmaking.go.kr): 2017. 10. 13.)-정부입법현황.

### 3.2.4. 동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 도입

동물 의료사고의 발생은 사람 의료분야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전문의 제도 부재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동물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병원 형태의 규모화된 동물병원 설립이 늘어날수록 동물 진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물의료분쟁조정중재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동물 의료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 3.3.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할 경우, 수의 서비스의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는 수의 서비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관련 보험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가입률이 10%, 영국은 20%로 우리나라보다 매우 높으며, 가입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향후 반려동물 보험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3.3.1.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식 개선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주 접촉하는 동물병원, 애견숍, 애견미용실, 애견용품 판매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을 위험 회피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어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3.2.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

반려동물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은 치료비 담보 위주로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가입 연령 제한이 있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보험사는 반려동물의 고령화를 고려한 상품 개발, 여행 관련 보험 상품, 보장 수준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업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가입 희망자를 대량으로 모집하여, 보험사와 협상을 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보험판매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3.3. 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등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동물의 등록방법을 보완해야 하고, 반려동물 등록 대상을 고양이로 확대하는 등 동물등록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장형 또는 인식표는 유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체 식별을 위해 내장형 등록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때 부작용이 우려되어 동물 등록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DNA, 비문, 홍채 인식 등의 기술을 동물 등록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3.4. 동물병원 의료수가제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통한 보험시장 활성화

보험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동물의 진료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 동물병원의 의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예측이 어렵고, 정교한 보험료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고,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의료수가제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 동물 의료 분야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3.4. 반려동물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 3.4.1.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정비

반려동물 관련 민간단체들에 의해 난립되어 있는 민간자격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에 대하여 해당 협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증 갱신이 가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온라인강의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보수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자격에 대하여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와 전문학원, 대학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려동물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교육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단체별로 제각각인 미용사 자격증의 등급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미용업이 등록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미용서비스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병원, 애견카페, 애견숍 등에서도 업종에 상관없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미용서비스업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 관리 및 운영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3.4.2. 도그쇼 활성화

애견산업 육성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견종별 우수혈통을 선발하는 도그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도그쇼, 영국의 크러프츠(Crufts) 도그쇼 등 세계적 권위의 도그쇼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바, 국내에서 개최되는 도그쇼에 대해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도그쇼에 참가하는 출진견에는 애견미용사, 핸들러, 훈련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보조가 수반되고 있다. 도그쇼 출진견이 증가할수록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증가하고, 결국 소득증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컨넬클럽은 본 클럽이 주최하는 도그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15억 7,5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도그쇼에 참가하는 출진견은 견종별로 우수한 혈통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견종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할 전문 브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도그쇼를 통해 입상한 개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전문적인 번식을 통해 우수한 강아지들을 생산할 수 있다. 도그쇼 활성화는 애견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국제 도그쇼에서 입상한 출진견은 종견으로 활동하여 보호자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도그쇼 입상 핸들러 역시 해외 출진견 보호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므로, 국내 반려견의 해외 도그쇼 출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고유종이나 국내 생산 우수 종견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반려견의 수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독일은 저먼 셰퍼드를 수출하여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나무위키), 대만의 경우 포메라니안을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 3.4.3. 반려동물 장묘 문화 개선

일본과 중국은 반려동물 사체를 전용 공원묘지나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다. 그러나 소비자 조사 결과 63.2%가 땅에 매립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물장묘 관행에 비추어 부패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전제로 사유지에 한정하여 매장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동물병원과 동물장묘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려동물 사체 소개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장례업체들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동물장례협회 등으로 공동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4.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 4.1.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제정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로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이 법은 동물의 학대 금지, 등록, 동물의 구조·보호, 등록 등 동물의 보호와 관리와 영업의 종류와 등록 등 매우 제한적으로 반려동물을 다루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관련 연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연관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법은 반려동물의 정의, 종합계획 수립, 통계 및 실태조사, 육성전담기관, 번식, 사육 관리,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맹견 관리, 창업지원, 영업자 관리, 전문인력 양성, 우수업체 지원, 분쟁위원회 설치 등 반려동물의 사육과 연관산업의 관리·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73년에 제정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반려동물의 사육과 학대방지, 유기,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인 판매, 보관, 대여, 훈련, 전시, 경매·알선, 양수 사육업 등에 대해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연관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면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과 중복될 수 있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제연구원에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가 수시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가로 진행될 계획이다.

## 4.2. 반려동물 관련 통계 구축

한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기본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사육 마릿수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 수, 관련 종사자 수 등에 관한 기초통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 4.2.1. 사육 마릿수 통계 구축 방안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사육 마릿수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3년마다 실시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예정)」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4.2.2. 반려동물 사료산업 통계 구축 방안

반려동물 사료의 경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서 10인 이상 애완동물사료 생산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소규모 생산업체가 많은 시장구조에서 산업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료생산 관련 협회(대한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펫사료협회 등)를 통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를 발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우려로 협회에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반려동물 사료 관련 기초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4.2.3. 반려동물 관련산업 통계 구축 방안

반려동물의 등록과 유기동물, 관련 업종(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등록 자료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nl.go.kr](http://www.animanl.go.kr))이 있지만 자료의 현행화 문제로 최근의 현실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의 「도소매업조사」의 “애완용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에서 “수의업”, 「서비스업조사」에서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이 있다. 이 외에 관세청 등의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사료 및 용품의 수출입 통계가 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그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계청의 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도 빠르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정부가 직접 통계조사하기 어려운 반려동물

생산업체 현황, 생산현황, 유통현황, 판매현황 등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생산자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기초 통계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협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협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관련 협회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 4.3.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 설립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고 연관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정부조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률은 「동물보호법」이 유일하며, 관련 부처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 동물복지팀의 5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의 9명이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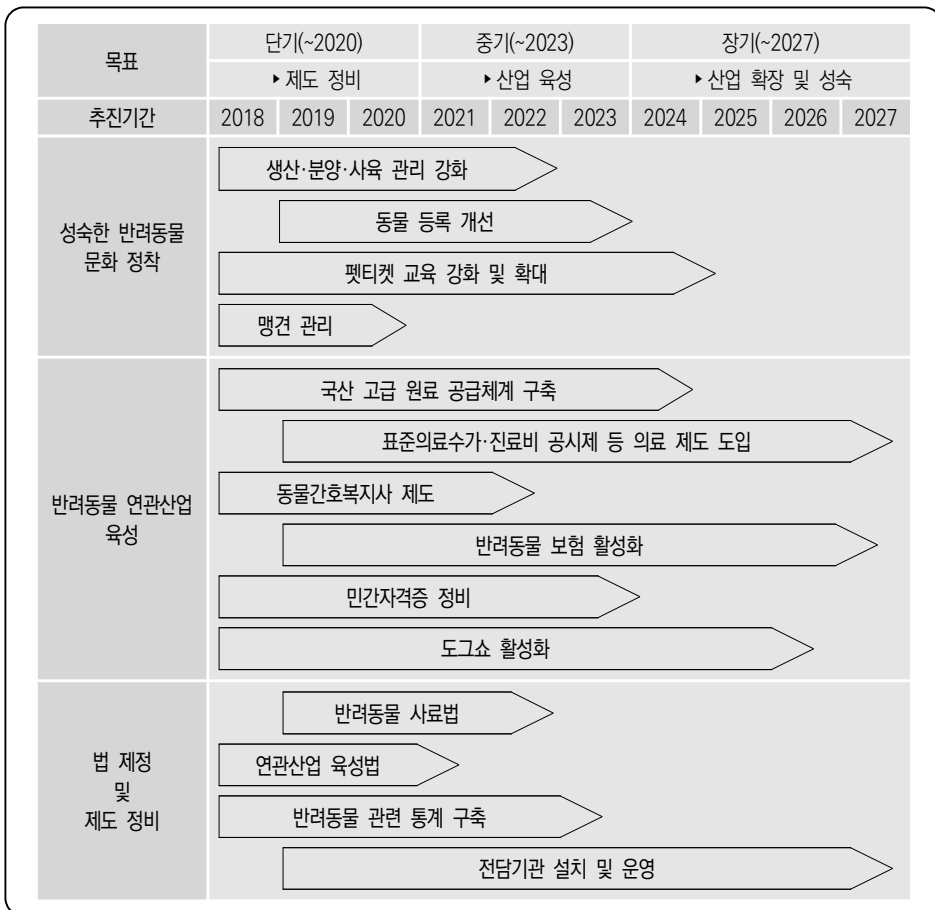
하지만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에 호응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려동물과 이와 관련한 연관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무는 주로 환경성의 자연환경국 동물애호관리실과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의 반려동물용사료 대책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서는 광견병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여러 부처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연관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 5.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연관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제도 정비에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 제도 정비 이후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산, 분양, 사육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물 등록 개선, 펫

〈그림 6-2〉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티켓 교육 강화와 확대, 맹견관리 등이 단기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중 반려동물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국산 고급 원료 공급체계 구축은 시장이 조성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료와 관련한 표준의료수가제와 진료비 공시제는 사전 연구와 준비에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는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되어 있고 상당부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보험활성화는 보험 홍보는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동물 등록제 개선 및 의료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애견미용사, 훈련사 등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 정비는 단기과제로 추진하여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그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그쇼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펫쇼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펫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는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다. 즉, 법 제정 및 제도 정비는 반려동물 문화 안착과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연관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과 「반려동물 사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조속히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부 록 1

## 반려동물 국민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연구수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조사수행기관 : (주)마크로밀엠브레인(전화: 02-3406-3857, E-mail: eslee@embrain.com)

## 기초 정보

SQ1.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합니까? 만( )세(☞ 조사 대상 연령 : 만 20~69세)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4. 귀하는 현재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고 계십니까?

- ① 현재 기르고 있다    ② 지금은 기르고 있지 않지만, 과거 길러본 경험이 있다  
③ 길러본 경험이 없다

※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란 의미로 개칭한 것이다.

SQ5. 귀하께서 현재 기르고 계신 반려동물은 무엇입니까? (☞ ①, ② 미응답시 조사 중단)

- ① 개                      ② 고양이                      ③ 기타 (                      )

## PART A

**공통 질문 문항(반려동물 소유자 및 미 소유자)**

문 1.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반려동물의 대량 생산도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상업적 대량생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 2.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에 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문 2-3.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입양할 경우, 다음 중 어떤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 2순위 (     )

- ① 가격                      ② 품종                      ③ 성격                      ④ 외모  
⑤ 양육비용                ⑥ 크기                      ⑦ 나이                      ⑧ 기타(                      )

### PART C

### 반려동물(개, 고양이) 소유자 질문 문항

☞SQ5=①,② 응답자

문 1. 귀하께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몇 마리 사육하십니까? ☞SQ5=응답에 따라 해당 반려동물 제시

- 개: (                      마리),                      - 고양이: (                      마리)

문 1-1. 기르시는 동물의 품종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개체별로 응답해주십시오  
☞SQ5=응답에 따라 해당 반려동물 제시

	품종	입양 시 나이(개월)	입양 금액	현재 나이
개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고 양 이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개월	원	년    개월

※ 문 1에서 응답하신 반려동물 마릿수와 일치시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개월)

문 2-1.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2-2. 분양하셨다면 돈을 받으셨습니까?

- ① 유료 분양                      ② 무료 분양

문 3. 귀하께서 반려동물을 키우신 동기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 2순위 (                      )

- 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② 가족이 원해서  
 ③ 동물을 좋아해서                      ④ 지인의 권유로  
 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⑥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⑦ 집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⑧ 자녀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⑨ 기타(                      )

문 4.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을 어디에서 키우십니까?

- ① 집안                      ② 집밖(마당 등)                      ③ 기타(                      )

문 5.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 2순위 (                      )

- 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됨                      ②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짐(일찍 귀가 등)  
 ③ 반려동물과의 친밀감 확대                      ④ 지인과의 관계 향상  
 ⑤ 본인 및 가족들의 책임감이 강해짐                      ⑥ 집을 지켜줘서 안전함 증진  
 ⑦ 자녀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됨                      ⑧ 외로움을 달래줌  
 ⑨ 활기찬 가족 분위기                      ⑩ 기타(                      )

문 6.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셨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분양숍(애견숍)                      ② 주변 사람으로부터                      ③ 동물병원                      ④ 인터넷  
 ④ 유기동물센터 입양                      ⑤ 복합매장(병원, 미용, 용품판매 등 복합된 매장)  
 ⑥ 자가번식                      ⑦ 길거리 판매                      ⑧ 기타(                      )

## &lt;개 소유자(☞SQ5=①응답자)에 대한 질문 7~10번&gt;

문 7. 귀하께서는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2014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문 8. 귀하께서는 동물(3개월령 이상 개)을 등록하셨습니까?

- ① 예(☞문 8-1로)                      ② 아니오(☞문 9로)

문 8-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떠한 방법으로 동물을 등록하셨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                    |   |   |
|--------------------|---|---|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 | 원 |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 | 원 |
| ③ 등록인식표 부착         | : | 원 |

문 8-2. 귀하께서 동물을 등록할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찾기 어려움  
 ② 등록 장치 선택폭 제한(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위주 추천 등)  
 ③ 동물 등록 비용 과다  
 ④ 동물 등록 기관이 거주지로부터 너무 멀리 있음  
 ⑤ 기타(\_\_\_\_\_)

문 9. 귀하께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지 못해서      ② 기르고 있는 개가 3개월이 안되어서  
 ③ 의무와 제재만 있고 혜택은 없어서      ④ 필요성을 못 느껴서

- ⑤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⑥ 철차가 번거로워서  
 ⑦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할 때 동물에 발생할 피해가 우려되어서  
 ⑧ 동물 등록 비용 부담  
 ⑨ 기타( )

문 10. 귀하께서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십니까?

- ① 항상 착용한다                      ② 착용하는 편이다  
 ③ 착용하지 않는 편이다              ④ 착용하지 않는다

문 11.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문 11-1로)                      ② 없다(☞문 12로)

문 11-1.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동물병원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예방접종 ② 질병치료 ③ 상해치료 ④ 중성화 수술 ⑤ 기타( )

문 11-2. 동물병원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① 예방접종 ② 질병치료 ③ 상해치료 ④ 중성화 수술 ⑤ 기타( )

문 11-3. 반려동물의 정기 예방접종 등 초기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병

원진료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SQ5=응답에 따라 해당 반려동물 제시

강아지 마리당( 원/년), 고양이 마리당( 원/년)

문 11-4.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비용은 얼마였습니까?☞SQ5=응답에 따라 해

당 반려동물 제시

수컷: 강아지 마리당( 원), 고양이 마리당( 원)

암컷: 강아지 마리당( 원), 고양이 마리당( 원)

문 11-5. 귀하께서는 병원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매우 비싸다	② 비싼 편이다	③ 적정하다	④ 저렴한 편이다	⑤ 매우 저렴하다
예방접종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전반적인 병원진료비					

문 12. 귀하께서는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직접 주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12-1.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직접 반려동물에게 주사하는 행위(자가 진료)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문 13.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5로 이동)

문 14.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 ① 기르는 동물 모두 보험에 가입함 (☞14-1로 이동)  
 ② 기르는 동물 중 일부만 보험에 가입함 (☞14-1로 이동)  
 ③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15로 이동)

문 14-1.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마리당 연간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개: 마리당 1년에 (            원)

고양이: 마리당 1년에 (            원)

문 14-2. 반려동물 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불만족 이유: )

문 15.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②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③ 원하는 보험상품이 없어서  
④ 대상 동물의 연령이 높아 보험 가입이 안 되어서  
⑤ 보험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⑥ 기타( )

문 16. 귀하께서는 털깎기 등 미용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으십니까?

- ① 미용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집에서 직접 한다)(☞17로 이동)  
② 미용 서비스를 받는다(☞16-1로 이동)

문 16-1. 귀하께서는 주로 어디에서 반려동물 미용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 ① 동물병원    ② 반려동물 전문매장    ③ 반려동물 카페    ④ 기타( )

문 16-2. 귀하께서 반려동물 미용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미용 사고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16-3으로 이동)    ② 없다(☞17로 이동)

문 16-3. 귀하께서 경험하신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사고는 어느 유형이셨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신체부위 상해    ② 질병전염    ③ 폐사    ④ 탈골 또는 골절    ⑤ 기타( )

문17.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돌봄서비스(호텔, 놀이방 등)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17-1로 이동)    ② 아니오(☞18로 이동)



문17-1. (예”라고 응답한 경우) 귀하께서는 어떠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이용 하였고, 이용 시 요금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1년에 몇 회나 돌봄 서 비스를 이용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돌봄서비스 유형	1회당 평균 이용시간	1회당 이용 요금	이용 횟수
① 호텔	박 일	원	회/1년
② 놀이방	시간	원	회/1년
③ 펫시터	시간	원	회/1년
④ 기타( )	시간	원	회/1년

문 18. 귀하께서는 현재 국내산과 외국산 중 어느 사료를 급여하고 계십니까?

개 : ① 국내산 ② 외국산 ③ 기타( )  
고양이: ① 국내산 ② 외국산 ③ 기타( )

문 19. 귀하께서는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한 달에 얼마나 급여하십니까?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개 : ① 마리당 한달 사료 급여량 : ( )kg, ② kg 당 사료 가격: ( 원)  
고양이: ① 마리당 한달 사료 급여량 : ( )kg, ② kg 당 사료 가격: ( 원)

문 20. 귀하께서는 주로 어디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구입하십니까?

① 대형마트 ② 슈퍼마켓 ③ 반려동물 전문매장 ④ 동물병원  
⑤ 인터넷 ⑥ 복합매장(병원, 미용, 용품판매 등 복합된 매장)  
⑦ 기타( )

문 21.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급여비율은 어떠하십니까? 합이 100%가 되 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개: ① 건식사료 ( %) ② 습식사료 ( %) ③ 껌, 과자 등 ( %) ④ 기타 ( %)  
고양이: ① 건식사료 ( %) ② 습식사료 ( %) ③ 껌, 과자 등 ( %) ④ 기타 ( %)

문 22. 귀하께서 반려동물 사료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가격                      ② 원산지                      ③ 영양성분                      ④ 반려동물의 기호  
 ⑤ 흡수율                      ⑥ 사용원료                      ⑦ 제조사                      ⑧ 반려동물의 연령  
 ⑨ 기타( )

문 23.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용품(장난감, 의류, 액세서리,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용도(필요성) ② 원산지 ③ 디자인 ④ 품질 ⑤ 가격 ⑥ 기능성 ⑦ 기타( )

문 24. 키우시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 ① 예(☞25로 이동)                      ② 아니오(☞26로 이동)

문 25.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②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생활폐기물)  
 ③ 동물병원에서 소각(의료폐기물)                      ④ 장묘업체를 통한 화장  
 ⑤ 땅에 매립                      ⑥ 기타( )

문 25-1. 반려동물이 장례식을 치렀을 경우 장례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만 원)

문 25-2. 향후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①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② 종량제 쓰레기봉투사용(생활폐기물)  
 ③ 동물병원에서 소각(의료폐기물)                      ④ 장묘업체를 통한 화장(25-1번으로 이동)  
 ⑤ 땅에 매립                      ⑥ 기타( )

문 26.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항목별로 얼마나 됩니까?

한 마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고, 개 또는 고양이, 월 또는 년 중 기준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개, □ 고양이 마리당	□ 월 기준, □ 연 기준
① 사료, 간식 등 식품비	원
② 예방접종, 치료비 등 병원 진료비	원
- 병원 진료 횟수	회
③ 털깎기 등 미용서비스	원
- 미용서비스 이용횟수	회
④ 옷, 장난감, 삼푸 등 기타 용품비	원

문 27. 반려동물을 기를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지역주민과의 갈등(민원 등)    ② 비용 과다(병원비, 사료비 등)  
 ③ 혼자 두고 외출/여행가기 힘들    ④ 배설물, 털 등 관리가 번거로움  
 ⑤ 위생상 좋지 않고 냄새가 남    ⑥ 손이 많이 감  
 ⑦ 건강 이상 시, 대처가 어려움    ⑧ 외출 시 데려갈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임  
 ⑨ 배/소변 교육이 힘들    ⑩ 짓거나 이상하고 특이한 행동을 함  
 ⑪ 기타( )

문 28.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원 유무와 겪었을 시 구체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없다    ②있다(내용: )

문 29.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반려동물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2가지)

1순위( ) 2순위( )

- ① 외출시 맡길 수 있는 호텔, 놀이방 등    ② (배변, 버릇 등) 트레이닝 센터  
 ③ 반려동물 카페    ④ 동물병원  
 ⑤ 반려동물 사료, 의류 등 쇼핑 장소    ⑥ 반려동물 장례업체  
 ⑦ 반려동물 미용실    ⑧ 기타( )

문 30. 끝으로 반려동물을 기르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31. 아래 보기 카드는 반려동물 사료의 가격, 유기농 원료, 원산지, 기능성 재료, 알러지 유발물질, 원료 주성분을 기준으로 제작된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입니다. 보여드리는 반려동물 사료의 유형 중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사료1              ② 사료2              ③ 둘 다 선택하지 않음

☞ 모든 질문에 “③ 둘 다 선택하지 않음”을 포함함.

※ 개 소유자와 고양이 소유자에 대해 구분 질문 ☞SQ5=응답에 따라 해당 개, 고양이 각각 제시

속성	속성수준	
1. kg당 가격	1) 5,000원, 2) 8,000원, 3) 10,000원, 4) 12,000원, 5) 15,000원	5가지
2. 유기농 원료 여부	1) 유기농, 2) 일반	2가지
3. 원산지	1) 국산, 2) 수입	2가지
4. 기능성 재료	1) 첨가, 2) 무첨가	2가지
5. 알레르기 물질 여부	1) 첨가, 2) 무첨가	2가지
6. 원료 주성분	1) 육류, 2) 수산물, 3) 채소, 4) 혼합	4가지

※ 3개 그룹(약180명씩)으로 나누어 각각 실험 진행, 총 30개 대안 생성, 그룹당 5번의 질문 실시(즉, 1인당 조합을 다르게 한 5번의 질문 반복 시행

〈표 1〉 직교설계 결과

대안	kg당 가격	유기농 원료 여부	원산지	기능성 재료	알레르기 물질 여부	원료 주성분
A1	2) 8,000원	1) 유기농	2) 수입	1) 첨가	1) 첨가	3) 채소
A2	3) 10,000원	2) 일반	1) 국산	2) 무첨가	2) 무첨가	4) 혼합
A3	1) 5,000원	1) 유기농	2) 수입	2) 무첨가	2) 무첨가	2) 수산물
A4	5) 15,000원	2) 일반	1) 국산	1) 첨가	1) 첨가	1) 육류
A5	2) 8,000원	1) 유기농	1) 국산	2) 무첨가	1) 첨가	1) 육류
A6	4) 12,000원	2) 일반	2) 수입	1) 첨가	2) 무첨가	3) 채소
A7	4) 12,000원	2) 일반	2) 수입	2) 무첨가	1) 첨가	2) 수산물
A8	5) 15,000원	1) 유기농	1) 국산	1) 첨가	2) 무첨가	4) 혼합
A9	1) 5,000원	2) 일반	2) 수입	1) 첨가	1) 첨가	4) 혼합
A10	3)10,000원	1) 유기농	1) 국산	2) 무첨가	2)무첨가	3) 채소
A11	5) 15,000원	1) 유기농	2) 수입	2) 무첨가	1) 첨가	1) 육류
A12	2) 8,000원	2) 일반	1) 국산	1) 첨가	2) 무첨가	2) 수산물
A13	3) 10,000원	1) 유기농	2) 수입	1) 첨가	2) 무첨가	1) 육류
A14	1) 5,000원	2) 일반	1) 국산	2) 무첨가	1) 첨가	3) 채소
A15	4) 12,000원	1) 유기농	1) 국산	1) 첨가	1) 첨가	2) 수산물
A16	2) 8,000원	2) 일반	2) 수입	2) 무첨가	2) 무첨가	4) 혼합
A17	1) 5,000원	2) 일반	1) 국산	1) 첨가	2) 무첨가	1) 육류
A18	4) 12,000원	1) 유기농	2) 수입	2) 무첨가	1) 첨가	4) 혼합
A19	5) 15,000원	1) 유기농	1) 국산	2) 무첨가	2)무첨가	3) 채소
A20	3) 10,000원	2) 일반	2) 수입	1) 첨가	1) 첨가	2) 수산물
A21	5) 15,000원	2) 일반	2) 수입	2) 무첨가	2) 무첨가	2) 수산물
A22	3) 10,000원	1) 유기농	1) 국산	1) 첨가	1) 첨가	4) 혼합
A23	4) 12,000원	2) 일반	1) 국산	2) 무첨가	1) 첨가	1) 육류
A24	1) 5,000원	1) 유기농	2) 수입	1) 첨가	2) 무첨가	3) 채소
A25	2) 8,000원	1) 유기농	1) 국산	2) 무첨가	2) 무첨가	2) 수산물
A26	5) 15,000원	2) 일반	2) 수입	1) 첨가	1) 첨가	3) 채소
A27	4) 12,000원	1) 유기농	2) 수입	1) 첨가	2) 무첨가	1) 육류
A28	1) 5,000원	2) 일반	1) 국산	2) 무첨가	1) 첨가	4) 혼합
A29	3) 10,000원	2) 일반	2) 수입	2) 무첨가	2) 무첨가	1) 육류
A30	2) 8,000원	1) 유기농	1) 국산	1) 첨가	1) 첨가	2) 수산물

〈표 2〉 그룹별 제시 대안

구분	질문 순서	대안1	대안2	대안3
group 1	1	A1	A2	선택안함
	2	A3	A4	선택안함
	3	A5	A6	선택안함
	4	A7	A8	선택안함
	5	A9	A10	선택안함
group 2	1	A11	A12	선택안함
	2	A13	A14	선택안함
	3	A15	A16	선택안함
	4	A17	A18	선택안함
	5	A19	A20	선택안함
group 3	1	A21	A22	선택안함
	2	A23	A24	선택안함
	3	A25	A26	선택안함
	4	A27	A28	선택안함
	5	A29	A30	선택안함

## 배경 질문

DQ1.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③ 대학교 졸업(대학생 포함)	②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DQ2. 종사 직종	① 교사 ③ 대학(원)생 ⑤ 사무직 ⑦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② 전업주부 ④ 경영 및 관리직 ⑥ 판매 및 서비스직 ⑧ 기타 직업 및 무직
DQ3. 가족 구성원 수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⑥ 6인 이상(   명)	
DQ4. 결혼 여부	① 기혼   ② 미혼	
DQ5. 자녀 유무 (DQ4의 ①번 응답자)	① 자녀 있음   ② 자녀 없음	
DQ6. 자녀 연령 (복수 응답) (DQ5의 ①번 응답자)	① 돌 전   ② 1~3세   ③ 4~7세(미취학 아동) ④ 초등저학년(12,3,학년)   ⑤ 초등고학년(4,5,6학년) ⑥ 중학생   ⑦ 고등학생   ⑧ 대학생 이상	
DQ7. 거주 주택 형태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기타(   )	
DQ8. 월평균 가구 소득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299만 원   ③ 300~399만 원 ④ 400~499만 원   ⑤ 500~599만 원   ⑥ 600~699만 원 ⑦ 700~799만 원   ⑧ 800~899만 원   ⑨ 900~999만 원 ⑩ 1,000만 원 이상	





## 참고문헌

- 관세청. 각 연도. 『수출입 무역통계』.
- 구자춘. 2013. 『도시림의 속성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체계: 선택실험법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기획재정부. 2016. “반려동물산업 TF 자료.”
- 김선희. 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김세중. 2015. 11.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KiRi Weekly』 제359호 포커스.
- 김영각. 2015. 8. “반려동물 시장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 현대증권.
- 김창길·구자춘·정학균·김용규·이혜진. 2016.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43(1): 1-23.
- 김현중·국승용. 2016.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농정포커스』 제13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물검역본부. 2012. 1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_\_\_\_\_. 2013.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
- \_\_\_\_\_. 2015. 1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배합사료 생산 및 가격 통계』.
- \_\_\_\_\_. 2016. “15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보도자료. 2016. 5. 11.
- \_\_\_\_\_. 2016. 12. 14.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 \_\_\_\_\_. 2017. “16년 유실·유기동물 9만 마리 구조·보호, 지난 해 대비 9.3% 증가.” 보도자료. 2017. 6. 12.
- \_\_\_\_\_. 2017.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17. 7. 1.)” 보도자료. 2017. 6. 26.
- \_\_\_\_\_. 2017. 2. 28. “동물보호·복지 추진 위한 ‘동물복지팀’ 신설(2. 28.).”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대한수의사회. 2016. 1. “동물의료체계 및 동물진료비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
- 대한수의사회. 2016. “수의업 현황 및 정책과제 제안.” 기획재정부 TR 회의자료.

- 데일리벳. 2017. 1. 4. “들쭉날쭉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이번에는 어떨까?”  
 \_\_\_\_\_. 2017. 1. 10.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 필요성 설문조사, 79% ‘진료비 조사  
 필요해’.”  
 「동물보호법」 제32조.  
 동아일보. 2017. 7. 15. “개조심 vs 마이펫... 맹견 습격 공포에 ‘펫티켓’ 갈등까지.”  
 롯데손해보험. 2016. 3. “반려동물 보험산업의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TF 회의 자료.  
 명보영. 2013.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완주 의원. 2016 국정감사자료. “반려동물 사료산업 70% 이상이 수입브랜드 점유.”  
 비피기술거래. 2016. 『반려동물 산업과 첨단 기술의 만남』. (주)비피기술거래.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2017. 1. 5. “반려동물판매가격 최고가와 최저가 5.8배  
 가격 차이나, 동물병원비용 가격 천차만별.”  
 삼성경제연구소. 2012. 3. 『효과적 수요 예측 방법과 사례』.  
 「수의사법」 제32조.  
 「약사법」. 제85조 제7항.  
 우연철. 2017. 7. 13.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로짓·프로빗모형 응용』. 박영사.  
 이영대. 2016.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법무법인 수호.  
 이용무. 2006. 『유기동물 발생억제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연구』.  
 (재)대한산업경제연구소.  
 이정임·이수진. 2015.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경기연구원.  
 이종인·김희걸·신동민·오승련·노성훈. 2014.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유통단계별 사료  
 가격책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이지연. 2017. 5. 17. “미국 반려동물 시장 공략을 위한 키워드 4개.” KOTRA 해외  
 시장 뉴스.  
 이학식. 2013. 「SPSS 20.0 매뉴얼」. 집현채.  
 장홍석·문석란·백진화·홍혜수. 2017. 11.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  
 드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설. 2013. 4. 11. “안락사 공포속의 유기동물 현주소.” 『데일리벳』.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2. 『예측 방법론 고찰을 통한 방송시장 전망』.  
 지상윤·문홍길. 2011. “견우시대-반려견 산업 다시보기.” 『RDA Interrobang』 43호.

- 지연구. 2017. 7. 13.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인배·김현중·서강철. 2015. 『말산업 육성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진영운. 2017. 5. 30. “애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미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43호).
- 카라. 2014. 『반려동물 대량생산과 경매 그리고 식용도살 실태보고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_\_\_\_\_.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
- \_\_\_\_\_. 각 연도. 『도소매업조사』.
- \_\_\_\_\_. 각 연도. 『서비스업조사』.
- \_\_\_\_\_. 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 \_\_\_\_\_. 각 연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68조.
- 한국금융연구원. 2007. 11. 『확산모형을 활용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수요 예측』.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12.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을 위한 시장예측 방법론 연구』.
-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2017. 10. 18. “전국 경매장 조사자료.”
- 한국펫사료협회. 2017. 9. 『반려동물 관련 국민 인식 조사』.
- 한은경·엄혜진·강대한·조승현. 2015.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동물자유연대.
- 한진수·박우대·이영아·이종갑·전현정·조윤주. 2013.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함태성. 2015.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pp. 403-431.
- 환경부. 2017. 6. 8.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 황규성·이충구·김두성·김성민·김정래. 2015.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4): 13-17.
- 황명철·김태성. 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NHERI 리포트 제215호.
- 황선훈. 2010. “미국의 연방 동물보호법”. 한국법제연구원.

- 황원경. 201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_\_\_\_\_. 2017.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MBC 8시 뉴스. 2017. 4. 14. “[이슈클릭] 하루만에도 판다? 부실한 반려동물자격증”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0%80%EB%A8%BC%20%EC%85%B0%ED%8D%BC%EB%93%9C>>. 검색일: 2017. 10. 19.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006&cid=40942& categoryId=32310](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6006&cid=40942&categoryId=32310)>. 검색일: 2017. 12. 13.
- 뉴스시 2017. 5. 29. “개 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전국 곳곳 들어서 주민과 마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6\\_0014922132&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6_0014922132&cID=10201&pID=10200)>. 검색일: 2017. 5. 30.
-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http://www.qia.go.kr)>. 검색일: 2017. 10. 10.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 및 축산물 검역통계. <[http://eminwon.qia.go.kr/statistics/statistics\\_No1.jsp?action=search](http://eminwon.qia.go.kr/statistics/statistics_No1.jsp?action=search)>. 검색일: 2017. 6. 15.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http://www.animal.go.kr)>. 검색일: 2017. 6. 12.
- 롯데하우머치. <<http://www.lottehowmuch.com>>. 검색일: 2017. 6. 12.
-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현황-수의사법. <[www.lawmaking.go.kr](http://www.lawmaking.go.kr)>. 검색일: 2017. 10. 13.
- 통계청. 도소매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kosis.kr](http://kosis.kr)>. 검색일: 2017. 6. 15.
- 통계청. <[www.kostate.go.kr](http://www.kostate.go.kr)>. 검색일: 2017. 6. 10.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 2017. 6. 15.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http://ciss.go.kr/www/index.do>>. 검색일: 2017. 7. 17.
- 한국애견연맹. <[www.thekcc.or.kr](http://www.thekcc.or.kr)>. 검색일: 2017. 10. 10.
- 한국애견연맹. 세계3대 도그쇼. <[http://www.thekcc.or.kr/new\\_home/07\\_dogshow/01\\_about\\_dogshow\\_2.asp](http://www.thekcc.or.kr/new_home/07_dogshow/01_about_dogshow_2.asp)>. 검색일: 2017. 10. 10.
- 한국애견협회. <[www.kkc.or.kr](http://www.kkc.or.kr)>. 검색일: 2017. 10. 1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검색일: 2017. 6. 15.
- 한국펫사료협회. <[www.kopfa.org](http://www.kopfa.org)>. 검색일: 2017. 10. 10.

## &lt;해외 자료&gt;

- 도쿄도 중앙구 홈페이지. <<http://www.city.chuo.lg.jp/>>. 검색일: 2017. 8. 22.
- 아니콤 홀딩스주식회사. 2016. 12. 5. 『가정동물백서 2016』.
-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2017. 8. 『반려동물 화장 안내』.
- 일본 농림수산업성. 2016. 12. 『2015년 반려동물식품산업실태조사』.
- 일본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2015. 2. 1. 『반려동물안전법의 개요』.
-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 검색일: 2017. 8. 22.
- 일본 반려동물용품공업회 홈페이지. 『반려동물용품산업실태조사(2014년, 2015년)』.  
<<http://www.jppma.or.jp>>. 검색일: 2017. 8. 23.
- 일본 위키백과 반려동물공양. <<https://ja.wikipedia.org/wiki/ペット供養>>. 검색일:  
2017. 8.
- 일본 반려동물사료협회. 2017. 1. 『2016년 전국 반려견·반려묘 사육실태조사』.
- 일본 환경성. 2011. 2. “알고 납득! 반려동물사료의 표시.”
- 일본 환경성. 2014. 3.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요』. 2012년 개정판.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검색일: 2017. 8. 23.
- (주)일본동물고도의료센터. 2015. 3. 26. “성장가능성에 관한 설명자료.”
- 홋카이도 삿포로시 홈페이지. <<https://www.city.sapporo.jp>>. 검색일: 2017. 8. 23.
- American Humane Association. 2013. “U.S. Pet Population Fact Sheet.”
- American Kennel Club. 2017. 3. 21. “Breaking News: The Labrador Retriever Wins  
Top Breed for the 26th Year In a Row.”
- \_\_\_\_\_. 2015. 8. 21. “The Economic Benefits of AKC Dog Events.”
-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www.americanpetproducts.org](http://www.americanpetproducts.org)>. 검색일: 2017.  
8. 27.
- \_\_\_\_\_. “APPA national pet owners survey.” 2012 - 2017 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Greenwich, CT.
-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Pet Statistics.”  
<<https://www.asPCA.org/animal-homelessness/shelter-intake-and-surrender/pet-statistics>>. 검색일: 2017. 8. 27.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State Laws Governing Euthanasia.  
<<https://www.avma.org/Advocacy/StateAndLocal/Pages/euthanasia-laws.aspx>>.  
검색일: 2017. 8. 27.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eterinary technicians and veterinary assistants. <<https://www.avma.org/public/YourVet/Pages/techs-and-assistants.aspx?PF=1>>. 검색일: 2017. 8. 27.
- APHIS. USDA. “Regulatory Compliance for Commercial Dog Breeders: Introductory Course.”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animalwelfare/caw/education+and+training/ct\\_commercial\\_dog\\_breeders](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animalwelfare/caw/education+and+training/ct_commercial_dog_breeders)>. 검색일: 2016. 4. 25.
- Arenofsky, J.. 2017. “Will Millennials keep it booming?” <<http://businessresearcher.sagepub.com/sbr-1863-102160-2772364/20170227/the-pet-industry>>. 검색일: 2017. 8. 27.
- Bass, F.M.. 1969. “A new product growth for model consumer durables.” *Management Science* 15(5).
- Bit of Heaven 홈페이지. <<http://abitofheaven.com/prices/>>. 검색일: 2017. 8. 27.
- Canine Journal. “Pet Insurance Reviews 2017.” <<https://www.caninejournal.com/pet-insurance-reviews/>>. 검색일: 2017. 8. 27.
- Cat Fanciers’ Association. “CFA’s Top Cats in Championship 2016-17.” <<http://cfa.org/Shows/AwardWinningCats/TopCats,201617.aspx>>. 검색일: 2017. 8. 27.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홈페이지. <[www.fda.gov](http://www.fda.gov)>. 검색일: 2017. 10. 10.
- Halbrendt, C., Wang, Q., Fraiz, C., O’Dierno, L.. 1995. “Marketing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 mid-Atlantic seafood retailing.”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7(5).
- Hensher, D.A., Johnson, L.W.. 1981. “Applied discrete-choice modelling.” Croom Helm, Wiley, London, New York.
- Krinsky, I., Robb, A.L.. 1986.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4).
- Louviere, J.J., Hensher, D.A., Swait, J.D., Adamowicz, W.. 2000. “Stated Choice Methods: Analysi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Fadden, D.. 1974.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P. Zarembka ed., *Frontier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 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2017.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17.”
- PEDGE 「애완동물 보험업계 동향」. <<http://pedge.jp>>. 검색일: 2017. 8. 27.

- Stone, Zara. 2016. 1. 27. “The Pet Funeral Industry Makes 100 Million Dollars in Profit.” <<https://thehustle.co/pet-funerals-in-2016-make-100-million-dollars>>. 검색일: 2017. 8. 27.
- 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2012. 2014. 2016. “Puppy Mills: Facts and Figures.”
- Veterinarian EDU. “Differences Between a Vet Tech and Vet Assistant.” <<http://www.veterinarianedu.org/differences-between-a-vet-tech-and-vet-assistant/>>. 검색일: 2017. 8. 27.
- Walden, C.. 2015. “Brief Overview of Dangerous Dog Laws.” Animal Legal and Historical Web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 World Pet Association. <[www.worldpetassociation.org](http://www.worldpetassociation.org)>. 검색일: 2017. 8. 27.

